

광기의 산맥

At the Mountains of Madness

H.P. 러브크래프트 (1890-1937)

1936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5-25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H.P. Lovecraft, "At the Mountains of
Madness" (Astounding Stories 1936년 2-4월)

저자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Howard Phillips Lovecraft,
1890-1937)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70652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5

번역 정책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 수밖에 없게 된 것은, 과학자들이 이유도 모른 채 내 조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거대한 화석 발굴과 고대의 빙하를 통째로 뚫고 녹여버리려는 저 남극 침공 계획에 내가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은 전적으로 내 의사에 반하는 일이다. 게다가 나의 경고가 헛수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은 더욱 무겁기만 하다.

내가 밝히려는 사실들이 의심을 살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터무니없고 믿기 힘든 내용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숨겨버린다면,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일반 사진과 항공 사진들은 내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 사진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생생하고 사실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사진을 의심할 것이다. 교묘한 위조 기술이 얼마나 정교하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잉크로 그린 삽화들 역시 뻔한 조작작이라며 비웃음을 사겠지만, 그 기이한 분위기와 기법만큼은 미술 전문가들이라면 분명 주목하며 의아해할 만한 것이었다.

결국 나는 소수의 과학계 지도자들에게 판단을 맡길 수밖에 없다. 그들은 한편으로, 내 데이터가 지닌 그 끔찍할 만큼 설득력 있는 가치를 스스로 가늠하거나, 혹은 태고의 불가해한 신화적 체계에 비추어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사고가 독립적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탐사 세계 전체가 저 광기의 산맥 근처에서 경솔하고 과욕에 찬 계획을 세우지 못하도록 막아낼 만큼 충분한 영향력을 지닌 이들이다.

나와 내 동료들처럼 작은 대학에 몸담고 있는, 그리 이름난 이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사실이 하나 있다. 기괴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문제에 관해서라면, 우리 같은 이들이 세상에 인상을 남기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게다가 우리에게 불리한 점이 하나 더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이번에 다루게 된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질학자로서 내가 미스카토닉 대학교 탐사대를 이끈 목적은 오로지 하나였다. 우리 공학부의 프랭크 H. 패보디 교수가 고안해낸 놀라운 시추기를 이용해, 남극 대륙 곳곳에서 심층 암석과 토양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서 선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다. 다만, 이미 탐사된 경로를 따라 이 새로운 기계 장치를 곳곳에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수집 방식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종류의 자료들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다.

우리의 보고를 통해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패보디의 시추 장치는 매우 독특하고 혁신적이었다. 이 장치는 가볍고 휴대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아르테지안 시추 원리와 소형 원형 암석 시추 원리를 결합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덕분에 다양한 경도의 지층을 만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하며 시추를 이어갈 수 있었다.

강철제 헤드와 관절형 로드, 가솔린 엔진, 접이식 나무 시추탑, 다이너마이트 관련 장비와 로프, 쓰레기 제거용 오거, 그리고 폭 5인치에 깊이 1,000피트에 달하는 시추용 분할 파이프까지, 필요한 부속품을 모두 포함한 이 모든 장비는 일곱 마리의 개가 끄는 썰매 세 대가 운반할 수 있는 무게를 넘지 않도록 구성되었다. 금속 물체의 대부분을 영리하게 설계된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네 대의 대형 도르니에 비행기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 비행기들은 남극 고원의 엄청난 고도를 비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페 보디가 고안한 연료 가열 장치와 급속 시동 장치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 비행기들을 이용하면 거대한 빙벽 가장자리에 세운 기지에서 내륙의 적절한 지점들로 원정대 전원을 실어 나를 수 있었고, 그곳에 도착하면 충분한 수의 썰매개들이 우리를 보조할 예정이었다.

우리의 계획은 남극의 한 계절 동안, 혹은 상황이 허락한다면 그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최대한 넓은 지역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주로 로스해 남쪽의 산맥과 고원 지대를 중심으로 움직일 예정이었는데, 이곳은 새클턴, 아문센, 스콧, 그리고 버드가 각기 다른 정도로 탐사했던 지역이다. 우리는 비행기를 이용해 캠프를 빈번하게 옮겨가며 지질학적 의미를 가질 만큼 먼 거리를 이동할 계획이었다. 그렇게 한다면 전혀 없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특히 그동안 남극에서 표본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던 선캄브리아기 지층에서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었다.

우리는 상부 화석층의 표본을 가능한 한 다양하게 확보하고자 했다. 이 황량하고 죽음만이 가득한 얼음의 땅에서 태동한 원시 생명체의 역사는 지구의 과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남극 대륙이 한때 온화한 기후를 유지했으며, 심지어 열대 기후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당시 이곳에는 생명력이 넘치는 동식물들이 가득했으나, 이제는 북쪽 가장자리에 남은 지의류와 해양 동물, 거미류, 그리고 펭귄만이 그 흔적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존의 지식을 더욱 풍부하고 정확하며 상세

하게 확장하기를 희망했다. 단순한 천공 작업만으로 화석의 흔적이 발견되면, 우리는 적절한 크기와 상태의 표본을 얻기 위해 폭파 작업을 거쳐 구멍을 더 크게 넓히곤 했다.

상층부의 토양이나 암석이 보여주는 상태에 따라 시추 깊이를 달리 하며 조사를 진행했으나, 작업 구역은 지표면이 드러났거나 거의 드러난 지형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하층부를 덮고 있는 거대한 빙벽의 두께가 1마일에서 2마일에 달했기에, 조사 가능한 지형은 필연적으로 경사지나 능선뿐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의 빙하층을 뚫는 데 시추 깊이를 낭비할 여유가 없었다. 비록 패보디가 계획을 세워두긴 했지만 말이다. 그의 계획은 구리 전극을 촘촘히 박아 넣은 시추 구멍들을 만들고, 휘발유 발전기로 만든 전류를 흘려보내 제한된 구역의 얼음을 녹여내는 방식이었다.

우리가 남극에서 돌아온 이후 줄곧 경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곧 시작될 스타크웨더-무어 탐사대는 바로 이 계획을 따르려 한다. 우리와 같은 탐사대를 통해 실험적으로만 검증해 볼 수 있었던, 바로 그 계획 말이다.

* * * * *

대중은 우리가 <아컴 애드버타이저>와 AP 통신에 수시로 보낸 무선 보고, 그리고 이후에 패보디와 내가 기고한 기사들을 통해 미스카토닉 원정대의 존재를 알고 있다. 원정대는 대학에서 온 네 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되었다. 패보디와 생물학과 소속의 레이크, 물리학과 소속이자 기

상학자이기도 한 앳우드, 그리고 지질학을 대표하며 명목상의 지휘를 맡은 나였다. 여기에 미스카토닉 대학의 대학원생 7명과 숙련된 기술자 9명을 포함하여 총 16명의 조수가 합류했다.

이들 열여섯 명 중 열두 명은 비행기 조종 자격을 갖춘 조종사였으며,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모두는 숙련된 무선 통신사였다. 패보디와 앳우드, 그리고 나를 포함해 여덟 명은 나침반과 육분의를 이용한 항법을 이해하고 있었다. 아울러 우리 측 선박 두 척 역시 충분한 인원이 배치된 상태였다. 이 배들은 얼음 지형에 견딜 수 있도록 보강된 목재 포경선이었으며, 보조 증기 기관을 갖추고 있었다.

나다니엘 더비 픽맨 재단은 몇몇 특별 기부금의 도움을 받아 이번 탐사대의 비용을 조달했다. 덕분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지는 않았으나, 탐사를 위한 준비만큼은 매우 철저하게 마칠 수 있었다.

개들과 썰매, 기계 장치와 캠프 용품, 그리고 아직 조립하지 않은 비행기 부품 다섯 대를 보스틴에서 인도받았다. 그곳에서 우리 배에 모든 물자를 실었다.

우리는 목적에 맞게 아주 훌륭한 장비들을 갖추고 있었다. 보급과 식단 관리, 운송, 그리고 캠프 건설에 이르는 모든 면에서, 우리는 최근에 활동했던 수많은 천재적인 선구자들의 모범을 따라 큰 도움을 받았다. 이 선구자들이 워낙 많고 유명했던 탓에, 우리 원정대가 아무리 대규모였음에도 세상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을 뿐이다.

신문 보도 내용대로, 우리는 1930년 9월 2일 보스턴 항을 떠났다. 해안선을 따라 파나마 운하를 거쳐 여유롭게 항해를 이어갔으며, 사모아와 태즈메이니아의 호바트에 들렀다. 호바트에서는 마지막 보급품을 모두 싣었다.

우리 탐사대원 중 누구도 극지방에 발을 들여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선장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브리그선 아컴호를 지휘하며 해상 탐사대의 지휘관을 맡은 J. B. 더글러스와, 바크선 미스카토닉호를 지휘하는 게오르그 토르핀센이 그들이었다. 두 사람 모두 남극해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포경선장이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을 뒤로하고 멀어질수록, 태양은 북쪽 하늘에서 점점 더 낮게 가라앉았고 지평선 위에 머무는 시간도 날이 갈수록 길어졌다. 남위 62도 부근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빙산을 목격했다. 그것들은 마치 수직의 벽을 세워놓은 탁자 같은 형상이었다. 10월 20일, 우리는 나름대로 기묘한 의식을 치르며 남극권에 진입했다. 그 직전까지 우리는 유빙 때문에 꽤나 애를 먹어야 했다.

열대 지방을 가로지르는 긴 항해를 마친 뒤라 그런지,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이 꽤나 괴로웠다. 하지만 앞으로 닥쳐올 더 혹독한 시련에 대비해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항해 중 기이한 대기 현상을 목격할 때면 나는 뉘를 잃고 매료되곤 했다. 그중에는 생전 처음 보는 아주 선명한 신기루도 있었다. 멀리 떠 있는 빙산들이 마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주적 성채의 성벽처럼 보였던 신기루 말이다.

다행히 얼음이 넓게 퍼져 있거나 뺨뺨하게 뭉쳐 있지는 않았기에, 우리는 얼음을 헤치고 나아가 남위 67도, 동경 175도 지점에서 다시 탁 트인 바다를 만났다. 10월 26일 아침, 남쪽 하늘에 강렬한 지표광이 나타났다. 정오가 되기도 전에 우리는 눈앞의 시야를 가득 채우며 펼쳐진, 거대하고 높으며 눈으로 뒤덮인 산맥을 목격하고 모두 전율했다. 마침내 우리는 거대한 미지의 대륙, 그리고 얼어붙은 죽음이 지배하는 그 수수께끼 같은 세계의 초입에 발을 들인 것이다.

이 봉우리들은 분명 로스가 발견했던 애드미럴티 산맥이었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아데어 곶을 돌아 빅토리아 랜드의 동해안을 따라 항해하는 것이었다. 목적지는 남위 77° 9'에 위치한 에레버스 화산 기슭, 맥머도 사운드 해안에 세울 예정인 기지였다.

* * * * *

항해의 마지막 구간은 생생했고 상상력을 자극했다. 정오의 낮은 북쪽 태양이나, 지평선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한밤중의 남쪽 태양이 하얀 눈과 푸르스름한 얼음, 물길, 그리고 검게 드러난 화강암 경사면 위로 흐릿한 붉은 빛을 쏟아낼 때마다, 서쪽 하늘에는 신비로운 거대 봉우리들이 끊임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황량한 산봉우리 사이로 남극의 무시무시한 바람이 거칠게 몰아쳤다. 간헐적으로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는 때때로 마치 야생의, 혹은 반쯤 의식을 가진 존재가 부는 기괴한 피리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넓은 음역대를 넘나드는 그 소리는 무의식 속의 어떤 기억을 자극하는 듯

했다. 그래서인지 그 소리는 내게 불안감을 주었고, 어렴풋이 공포마저 불러일으켰다.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니콜라이 레리치의 기이하고도 불길한 아시아풍 회화들이 떠올랐다. 또한 미친 아랍인 압둘 알하즈레드가 쓴 공포스러운 『네크로노미콘』에 묘사된, 더욱 기괴하고도 섬뜩한 령 고원에 대한 기록도 생각났다. 나중에 나는 대학 도서관에서 그 괴물 같은 책을 들여다보았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11월 7일, 서쪽 산맥이 잠시 시야에서 사라진 사이 우리는 프랭클린 섬을 지나쳤다. 다음 날에는 로스 섬 앞에 솟은 에레버스 산과 테러 산의 원뿔형 봉우리들이 보였고, 그 너머로는 패리 산맥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동쪽으로는 거대한 빙벽이 낮고 하얀 선을 그리며 펼쳐져 있었다. 그 빙벽은 마치 퀘벡의 암벽처럼 수직으로 200피트 높이까지 솟아 있었으며, 남쪽으로 향하는 항로의 끝을 알리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우리는 맥머도 해협으로 진입했다. 연기를 내뿜는 에레버스 산이 바람을 막아주는 풍하 쪽 해안에서 떨어져 머물렀다. 화산재로 뒤덮인 산봉우리는 동쪽 하늘을 배경으로 12,700피트 높이까지 솟아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일본 판화에 그려진 신성한 후지산 같았다. 그 너머로는 해발 10,900피트의 테러 산이 유령처럼 하얗게 솟아 있었다. 이제는 화산 활동이 멈춘 산이었다.

에레버스 화산에서는 간헐적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대학원 조교 중 한 명인 댄포스라는 이름의 명석한 청년이 눈 덮인 경사면에서 용암처럼 보이는 것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1840년에 발견된 이

산이, 그로부터 7년 뒤 에드가 앨런 포가 글을 쓸 때 영감을 준 원천임이 틀림없다고 말이다.

"—북극의 끝자락, 야넥 산을 따라 유황빛 물결을 일렁이며 쉼 없이 흘러내리는 용암들— 야넥 산을 타고 굴러떨어지며 신음하는 저 용암들, 북극의 영역, 야넥 산을 따라 흐르는 저 용암들."

덴포스는 기이한 소재의 글을 아주 즐겨 읽는 사람이었기에, 에드거 앨런 포에 관한 이야기도 자주 들려주곤 했다. 나 역시 포의 유일한 장편 소설인 『아서 고든 핼』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 소설 속 남극의 풍경이 주는 불안하고도 수수께끼 같은 분위기 때문이었다. 황량한 해안과 배경을 이루는 거대한 빙벽 위에서는 기괴한 펭귄 떼가 울음소리를 내며 지느러미를 퍼덕였고, 바다 위에는 살찐 물개들이 떠다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 위를 헤엄치거나 널브러져 있었다.

9일 아침,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에 우리는 작은 보트들을 이용해 로스 섬에 어렵사리 상륙했다. 각 함선에서 끌어온 케이블을 연결한 뒤, 브리치스 보이(breeches-buoy) 장치를 설치하여 보급품을 내릴 준비를 마쳤다.

남극의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우리가 느낀 감정은 강렬하면서도 복잡했다. 비록 우리가 도착한 이곳이 스콧과 새클턴의 탐험대가 이미 거쳐 갔던 지점이었음에도 말이다.

화산 경사면 아래, 얼어붙은 해안에 마련한 캠프는 임시 거처에 불과했다. 본부는 아컴 호에 두고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시추 장비

와 개, 썰매, 텐트, 식량, 가솔린 통을 육지로 옮겼다. 또한 실험용 얼음 녹임 장치와 일반 카메라 및 항공 카메라, 비행기 부품, 그리고 기타 부속품들도 모두 내렸다. 여기에는 소형 휴대용 무선 통신기 세 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장치들은 비행기에 실린 것들과는 별개로, 우리가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남극 대륙의 어느 곳에서라도 아컴 호의 대형 통신 장비와 교신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었다.

선박의 통신 설비는 외부 세계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매사추세츠주 킹스포트 헤드에 있는 《아컴 애드버타이저》지의 강력한 무선 기지로 보도 자료를 전송하는 역할을 맡았다. 우리는 단 한 번의 남극 여름 동안 모든 작업을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아컴 호에 머물며 겨울을 나기로 했다. 그리고 나서 얼음이 얼어붙기 전, 다음 해 여름의 보급품을 챙기기 위해 미스카토닉 호를 북쪽으로 돌려보낼 생각이었다.

* * * * *

우리의 초기 탐사 작업에 대해 신문들이 이미 보도한 내용을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에레버스 산을 등반한 일, 로스 섬의 여러 지점에서 광물 시추에 성공한 일, 그리고 패보디의 장비가 단단한 암반층을 뚫고 놀라운 속도로 시추를 마친 일 같은 것들 말이다. 또한 소형 제빙 장비를 시험적으로 가동한 일과 썰매와 보급품을 싣고 거대한 빙벽을 아슬아슬하게 기어오른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빙벽 꼭대기 캠프에서 거대한 비행기 다섯 대를 조립해 낸 일도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다.

우리 탐사대의 건강 상태는 매우 양호했다. 스무 명의 대원과 쉼다섯 마리의 알래스카 썰매개들은 모두 건재했다. 물론 지금까지는 생명을 위협할 만큼 혹독한 추위나 눈폭풍을 마주한 적이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온도는 대체로 영하에서 영상 20도 혹은 25도 사이를 오갔다. 뉴잉글랜드의 혹독한 겨울을 겪어본 우리에게 이 정도 추위는 익숙한 수준이었다. 빙벽 캠프는 반영구적인 시설로, 휘발유와 식량, 다이어마이트를 비롯한 각종 보급품을 저장하는 창고로 쓰일 예정이었다.

실제 탐사 장비를 운반하는 데는 네 대의 비행기면 충분했다. 다섯 번째 비행기는 조종사 한 명과 대원 두 명을 태운 채 선박이 있는 곳에 남겨두었다. 만약 탐사 중이던 비행기들을 모두 잃게 될 경우, 아킴호로부터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비상용 저장 기지에 배치해 둔 것이다.

나중에 장비를 옮기는 데 다른 비행기들을 모두 사용하지 않을 때면, 우리는 한두 대를 따로 떼어 운송 서비스에 투입하곤 했다. 이 비행기들은 비어드모어 빙하 너머, 남쪽으로 600에서 700마일 떨어진 거대한 고원 위에 자리 잡은 또 다른 상설 기지와 이 저장소 사이를 왕복하며 물자를 실어 날랐다.

고원 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끔찍한 강풍과 폭풍에 대해 거의 모든 이들이 한목소리로 경고했지만, 우리는 중간 기지를 거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로 한 것이다.

무선 보고에 따르면, 우리 비행대는 11월 21일 거대한 빙봉 위를 네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비행했다. 그 비행은 숨이 막힐 정도로 경이로웠다. 서쪽으로는 거대한 봉우리들이 솟아 있었고, 엔진 소리만이 끝을 알 수 없는 정적 속으로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바람은 그리 거세지 않았고, 마주친 안개도 단 한 번뿐이었으나 무선 나침반 덕분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위도 83도와 84도 사이, 거대한 지형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베어드모어 빙하에 도달했음을 깨달았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빙하 계곡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얼어붙은 바다는 어느덧 험준한 산맥이 늘어선, 위압적인 해안선에 자리를 내주고 있었다.

마침내 우리는 남극의 끝, 영겁의 세월 속에 죽어버린 저 하얀 세계로 진정하게 발을 들였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동쪽 멀리서 솟아오른 난센 산의 봉우리가 눈에 들어왔다. 그 봉우리는 거의 15,000피트에 달하는 높이로 우뚝 솟아 있었다.

위도 86° 7', 경도 동경 174° 23' 지점의 빙하 위로 남극 기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일은 이미 역사로 남았다. 썰매 탐사와 짧은 비행으로 도달한 여러 지점에서 이루어진 경이로울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추와 발파 작업 또한 마찬가지다.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패보디와 두 명의 대학원생, 게드니와 캐롤이 난센 산을 고난 끝에 정복하며 승리를 거둔 사실 역시 이미 알려진 역사다.

해수면으로부터 약 8,500피트 높이였다. 실험적인 시추를 진행하던 중, 어떤 지점에서는 눈과 얼음을 불과 12피트만 파고 내려가도 단단

한 지층이 드러났다. 우리는 소형 가열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또한 이전의 탐험가들은 광물 표본을 채취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수많은 지점에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며 작업을 이어갔다.

그렇게 얻어낸 선캄브리아기 화강암과 비컨 사암은 이 고원이 단일한 지질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해 주었다. 이 고원의 서쪽에는 거대한 대륙 본토가 자리 잡고 있었으나, 남미 아래 동쪽으로 뻗은 지역과는 다소 성질이 달랐다. 당시 우리는 이 동쪽 지역이 로스해와 웨델해의 얼어붙은 접경지대로 인해 본토와 분리된, 별개의 작은 대륙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비록 이후 버드(Byrd)의 연구로 그 가설은 부정되었으나 말이다.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리고 정으로 깎아낸 일부 사암층에서는 구멍을 뚫은 뒤에야 그 정체가 드러났는데, 그 안에서 매우 흥미로운 화석 흔적과 파편들을 발견했다. 특히 양치식물, 해조류, 삼엽충, 바다나리, 그리고 링구엘라와 복족류 같은 연체동물들이 눈에 띄었다. 이 화석들은 모두 이 지역의 태고적 역사를 밝히는 데 있어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듯 보였다. 또한 지름이 약 1피트에 달하는 기묘한 삼각형 무늬도 있었다. 이 무늬는 깊게 폭파한 구멍에서 끌어올린 세 점의 점판암 파편을 레이크가 하나로 맞추어 완성한 것이었다.

이 파편들은 알렉산드라 여왕 산맥 인근의 서쪽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생물학자인 레이크는 이 파편들에 새겨진 기이한 흔적을 보고 유독 당혹스러워하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지질학자인 내 눈에 는, 퇴적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결무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점판암은 퇴적층이 압력을 받아 형성된 변성암에 불과하다. 그 압력 자체가 기존의 흔적들을 기이하게 뒤틀어 놓기도 하기에, 줄무늬가 새겨진 그 움푹한 지형을 보고도 딱히 경악할 이유는 없었다.

* * * * *

1931년 1월 6일,레이크와 패보디, 대니얼스, 그리고 여섯 명의 학생들과 네 명의 정비사, 그리고 나까지 모두 두 대의 대형 비행기에 나누어 타고 남극점 상공을 곧장 가로질러 비행했다. 비행 도중 갑작스러운 강풍을 만나 한 차례 비상 착륙해야 했으나, 다행히 그 바람이 전형적인 폭풍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신문 보도대로, 이 비행은 여러 차례 진행된 관측 비행 중 하나였다. 우리는 다른 비행들을 통해 이전 탐험가들이 도달하지 못한 지역의 새로운 지형적 특징들을 식별하려 노력했다.

초기 비행은 후자의 측면에서는 실망스러웠다. 다만 그 비행들은 극지방 특유의 화려하고 환상적이며 기만적인 신기루의 장관을 우리에게 몇 차례 보여주었는데, 이는 우리가 지난 항해 중에 잠깐씩 그 전조만을 맛보았던 바로 그 신기루였다.

멀리 보이는 산맥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도시처럼 하늘에 떠 있었고, 한밤중의 낮은 태양이 뿜어내는 마법 같은 빛 아래서는 온 세상이 황금빛과 은빛, 그리고 진홍빛으로 물들곤 했다. 그럴 때면 눈앞의 백색 세계는 마치 던세이니의 꿈속에서나 볼 법한, 모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환상적인 땅으로 녹아내리는 듯했다.

구름이 낀 날이면 비행하는 데 꽤나 애를 먹었다. 눈 덮인 대지와 하늘이 서로 뒤섞여 버리는 탓이었다. 두 세계가 만나는 경계선인 지평선조차 보이지 않는, 신비롭고도 영롱한 진주빛 공허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결국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밀고 나가기로 결심했다. 탐사 비행기 네 대를 모두 동쪽으로 500마일 더 날아가, 우리가 잘못 짐작했던 그 작은 대륙 분할 지점쯤에 새로운 전진 기지를 세우는 계획이었다. 그곳에서 지질학적 표본들을 채집할 수 있다면, 기존 자료들과 비교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터였다.

지금까지 우리의 건강 상태는 아주 양호했다. 라임 주스를 꾸준히 마신 덕분에 통조림과 염장 식품 위주의 식단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기온 또한 대체로 영상권을 유지하여, 가장 두꺼운 모피 옷을 입지 않고도 견딜 만했다.

어느덧 한여름이었다. 서둘러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한다면, 3월까지 지는 마칠 수 있을 듯했다. 그렇게 된다면 길고 긴 남극의 밤을 견디며 지루하게 겨울을 나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서쪽에서 몰아치는 거친 폭풍이 몇 차례나 우리를 덮쳤으나,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애트우드가 고안해낸 원시적인 비행기 격납고와 두꺼운 눈 블록으로 만든 방풍벽 덕분이었고, 주요 캠프 건물들을 눈으로 보강한 덕분이기도 했다. 우리의 행운과 효율성은 실로 기이할 정도로 완벽했다.

물론 외부 세계도 우리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또한 우리가 새로운 기지로 거처를 옮기기 전, 레이크가 서쪽—정확히는 북서쪽—으로 탐

사 여행을 떠나야 한다고 기이할 정도로 완강하게 고집했던 사실도 알려져 있었다.

그는 점판암에 새겨진 삼각형 모양의 줄무늬를 두고 무척이나 깊은 고민에 빠졌던 모양이다. 그 무늬에서 자연의 법칙과 지질 시대가 서로 충돌하는 듯한 모순을 읽어낸 그는 경악스러울 만큼 대담한 결론에 도달했다. 호기심이 극에 달한 그는 발굴된 파편들이 분명 속해 있을 서쪽 방향의 지층을 향해, 더 많은 시추와 폭파 작업을 진행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다.

그는 그 흔적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이하고 거대한 생명체의 발자국이라고 묘하게 확신했다. 그것은 진화가 상당히 진행된 유기체의 것이 분명해 보였다. 비록 그 흔적이 새겨진 암석의 연대가 너무나도 오래되어, 고등 생명체는커녕 단세포 생물이나 기껏해야 삼엽충 단계 이상의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조차 희박한 캄브리아기, 혹은 그 이전 시대의 것이었음에도 말이다. 기묘한 흔적이 남은 이 파편들은 적어도 5억 년에서 10억 년 전의 것이 분명했다.

II.

이 원고는 내 친구 댄포스가 겪은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는 남극 탐사대의 일원이었으며, 그가 목격한 일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그 사건 이후로 정신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했다.

그가 겪은 일의 전말을 이해하려면, 우선 우리가 남극 탐사대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들을 먼저 짚어보아야 한다. 이 탐사대는 미스카토닉 대학의 지원을 받아 조직되었으며, 그 목적은 남극 대륙의 지질학적 구조와 고생물학적 흔적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탐사대의 지도자는 패보디 박사였으며, 그는 이 분야의 권위자였다.

탐사대는 거대한 설원과 얼음의 장벽을 뚫고 남극의 심장부로 향했다. 그들은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갔고, 그곳에서 인류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혹은 인류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시작된 기이한 흔적들을 발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덴포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이 마주한 것은 단순한 얼음과 바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하고 기괴한 무언가의 잔해였다.

대중의 상상력은 우리의 무선 통신을 통해 전해진 소식에 즉각 반응했다. 레이크가 인류의 발길이 닿은 적도, 인간의 상상력이 미친 적도 없는 북서쪽 미지의 영역으로 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술렁였다. 비록 우리가 레이크가 생물학과 지질학 전체를 뒤흔들 혁명적인 발견을 꿈꾸고 있다는 야심 찬 희망까지 언급하지는 않았음에도 말이다.

패보디와 다섯 명의 대원이 함께한 1월 11일부터 18일까지의 예비 썰매 탐사와 시추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거대한 얼음 능선을 넘던 중 썰매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해 개 두 마리를 잃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여정을 통해 시추된 시료에는 시생대 슬레이트 암석이 점점 더 많이 섞여 나왔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그 지층에서 화석 흔적

이 이토록 유별나게 많이 발견되자, 나조차도 깊은 흥미를 느낄 정도였다.

하지만 이 흔적들은 아주 원시적인 생명체의 것이었다. 이 생명체들이 분명한 선캄브리아기 지층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딱히 모순될 것도 없었다. 그렇기에 나는 레이크가 왜 시간 절약 계획을 중단하고 휴식 시간을 갖자고 고집했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요구한 휴식 시간은 네 대의 비행기를 모두 투입해야 했고, 수많은 인원과 탐사대의 모든 기계 장비를 동원해야 하는 대작업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그 계획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비록 레이크가 지질학적 조연을 해달라며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북서쪽으로 향하는 탐사대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말이다. 그들이 떠나 있는 동안 나는 패보디, 그리고 다섯 명의 대원과 함께 기지에 남아 동쪽으로 거점을 옮기기 위한 최종 계획을 세울 생각이었다. 거점 이전을 준비하기 위해 비행기 한 대가 맥머도 해협으로부터 충분한 양의 휘발유를 실어 나르기 시작했으나, 이는 잠시 미뤄두어도 상관없었다. 나는 썰매 한 대와 개아홉 마리를 항상 곁에 두었다. 영겁의 죽음만이 감도는, 생명체라곤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이 황량한 세계에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수단 없이 머무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두가 기억하듯, 미지의 영역으로 향했던 레이크의 하부 탐사대는 비행기에 탑재된 단파 송신기를 통해 자체적인 보고를 보내왔다. 남극 기지에 있는 우리 장비와 맥머도 해협에 머물던 아컴호가 이 신호들을

동시에 수신했으며, 이후 이 정보들은 50미터 파장대의 전파를 타고 외부 세계로 전달되었다.

작업은 1월 22일 오전 4시에 시작되었다. 불과 두 시간 뒤, 첫 번째 무선 메시지가 도착했다. 레이크는 우리로부터 약 300마일 떨어진 지점으로 내려가, 소규모로 얼음을 녹이며 시추를 시작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로부터 여섯 시간 후, 매우 흥분된 어조의 두 번째 메시지가 날아들었다. 비버가 굴을 파듯 필사적으로 작업한 끝에 얇은 수직갱을 파고 폭파 작업까지 마쳤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슬레이트 파편들을 발견했는데, 그 파편에는 처음에 우리를 당혹스럽게 했던 것과 매우 흡사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세 시간 뒤, 짧은 공고가 흘러나왔다. 살을 에듯 매서운 강풍을 뚫고 비행을 재개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더 이상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항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레이크는 새로 채집한 표본들이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가치가 있다며 통명스럽게 답해왔다.

그의 흥분이 이미 반란을 일으킬 만큼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탐사대 전체의 성공을 위협하는 그의 무모한 돌진을 막을 방법은 내게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가 폭풍과 심연의 미스터리가 뒤엉킨, 그 기만적이고 불길한 백색의 광활함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든다는 생각만으로도 나는 소름이 끼쳤다. 그 거대한 백색의 영역은 쿤메리 해안과 녹스 랜드의, 반쯤은 알려지고 반쯤은 의심스러운 해안선까지 무려 1,500마일이나 뻗어 있었다.

* * * * *

그로부터 한 시간 반쯤 더 지났을 때, 이동 중인 레이크의 비행기에
서 격앙된 기색이 역력한 메시지가 날아왔다. 그 내용을 확인한 순간,
나는 마음이 뒤집힐 듯 요동쳤고 차라리 나도 그 일행과 함께 떠났더라
면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마저 들었다.

오후 10시 5분. 비행 중. 눈보라가 지나간 뒤,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산맥보다도 높은 산맥이 전방에 나타났다. 고원의 높이를 고려하
면 히말라야와 맞먹을지도 모르겠다. 예상 위도 $76^{\circ} 15'$, 경도 동경
 $113^{\circ} 10'$. 산맥은 좌우로 끝없이 펼쳐져 있다. 연기를 내뿜는 두 개의
원뿔형 봉우리가 있는 듯하다. 모든 봉우리는 검게 변해 있으며 눈조차
덮여 있지 않다. 산맥에서 불어오는 강풍 때문에 항행이 어렵다.

그 일이 있는 후, 패보디와 대원들, 그리고 나는 숨을 죽인 채 수신
기에 매달렸다. 7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우뚝 솟은 그 거대한 산맥의
성벽을 떠올리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자던 모험심이 뜨겁게 타올
랐다. 비록 우리 개인의 영광은 아닐지라도, 우리 탐사대가 그 산맥을
처음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환희에 젖었다. 30분 뒤, 레이
크가 다시 우리를 불렀다.

몰튼의 비행기가 산기슭 고원에 불시착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
으며, 아마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귀환하거나 필요시 다음 이동을 하
기 위해, 생존에 필요한 필수 물자들은 나머지 세 대의 비행기로 옮겨
실을 예정이다. 당분간 무거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일은 없을 것 같
다. 산맥의 모습은 상상력을 초월한다. 나는 캐롤의 비행기에 짐을 모
두 비운 채, 정찰을 위해 위로 올라가 보려 한다.

"이런 광경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다. 산봉우리들은 높이가 35,000피트를 훌쩍 넘는 게 분명하다. 에베레스트는 이제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다. 캐롤과 내가 위로 올라가는 동안, 애트우드와 경위의 로 높이를 측정하기로 했다. 지형이 층을 이루고 있는 걸 보니 원뿔 모양이라는 내 추측은 틀렸을지도 모르겠다. 아마 선캄브리아기의 점판암에 다른 지층들이 뒤섞여 있는 형태일 것이다. 하늘과 맞닿은 능선의 모습도 기묘하다. 가장 높은 봉우리들에는 정육면체 모양의 단면들이 마치 달라붙어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 지는 해의 붉은 금빛 조명을 받은 이 모든 풍경은 경이로움 그 자체다. 마치 꿈속의 신비로운 땅이나, 누구도 발을 들인 적 없는 금단의 세계로 향하는 관문 같다. 자네도 여기 와서 함께 연구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기술적으로는 모두가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이었으나, 듣고 있던 우리 중 누구도 잠을 청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보급 창고와 야캄 호가 함께 무전을 듣고 있던 맥머도 해협 쪽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더글러스 선장이 이번의 중요한 발견을 축하하며 모두에게 무전을 보냈고, 보급 창고 관리자인 셔먼도 그 말에 동조했기 때문이다. 물론 파손된 경비행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안타까워했으나, 금방 수리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러던 밤 11시, 레이크로부터 또 다른 무전이 들려왔다.

캐롤과 함께 가장 높은 산기슭까지 올라갔다. 지금 같은 날씨에 정말 높은 봉우리들에 도전할 엄두는 나지 않지만, 나중에 다시 시도할 생각이다. 등반 작업은 끔찍할 정도로 고되었고, 이 정도 고도에서는 나아가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산맥의 규모가 위

낙 거대하고 견고해서 그 너머를 살짝 엿보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주요 봉우리들은 히말라야보다 높으며, 매우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다. 산맥은 선캄브리아기의 점판암처럼 보이며, 지각 변동으로 솟아오른 다른 지층의 흔적들도 명확히 드러나 있다. 화산 활동에 관한 내 생각은 틀렸다. 산맥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보다 양방향으로 훨씬 더 멀리 뻗어 있다. 해발 약 21,000피트 위로는 눈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다.

가장 높은 산맥의 경사면에는 기이한 지형들이 널려 있었다. 거대하고 낮은 사각형 블록들이 수직으로 곧게 솟아 있었고, 낮고 수직인 성벽들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로리치의 그림 속에서 가파른 산비탈에 매달려 있는 옛 아시아의 성채 같았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했다. 캐럴은 몇몇 지형 근처까지 비행하며 살펴보았는데, 그것들이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마도 풍화 작용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모서리는 수백만 년 동안 폭풍과 기후 변화를 견뎌온 듯 깎여나가 둥그스름해져 있었다.

"부분적으로, 특히 상층부의 암석은 사면의 다른 지층보다 색이 밝아 보인다. 분명 결정질 암석이 기원인 듯하다. 저공 비행을 해보니 동굴 입구가 여럿 나타나는데, 그중 일부는 운곽이 매우 규칙적이며 사각형이나 반원형을 띠고 있다. 직접 와서 조사해봐야 한다. 어느 봉우리 꼭대기에는 직각으로 세워진 성벽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본 것 같다. 높이는 약 30,000에서 35,000피트 정도로 보인다. 나는 현재 21,500피트 지점에 있으며, 뼈를 깎는 듯한 지독한 추위 속에 있다. 바람이 고갯

길을 지나고 동굴 안팎을 드나들며 휘파람 소리를 내며 울부짖지만, 아직까지 비행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는 없다."

그 후로도 30분 동안 레이크는 끊임없이 말을 이어갔다. 그는 직접 밭로 걸어 몇몇 봉우리에 올라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는 비행기를 보내주는 대로 곧 합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탐사대의 성격이 변한 만큼, 연료를 어디에 어떻게 집중적으로 비축해야 할지 패보디와 내가 최선의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덧붙였다.

레이크가 산기슭에 새로 세울 기지에는 그의 시추 작업뿐만 아니라 항공 활동을 위해서도 엄청난 양의 물자가 공급되어야 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동쪽으로의 비행이 결국 무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더글러스 선장을 불러, 남은 개 썰매 한 팀을 이용해 선박에서 최대한 많은 물자를 실어 장벽 너머로 옮겨 달라고 부탁했다. 레이크의 기지와 맥머도 해협 사이, 그 미지의 영역을 가로지르는 직통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완수해야 할 과제였다.

나중에 레이크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몰튼의 비행기가 불시착한 그 자리에 캠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곳은 이미 어느 정도 수리가 진행된 상태였다. 빙판은 매우 얇아서 군데군데 어두운 지면이 보일 정도였다. 레이크는 썰매를 끌거나 등반 원정을 떠나기 전에, 바로 그 지점에 시추 작업을 하고 폭파 실험을 몇 차례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장엄했다고 말했다. 또한 세상의 끝에서 하늘을 향해 벽처럼 솟구친 거대하고 고요한 침봉들, 그 거대한 봉우리들의 뒤편에 서 있을 때 느꼈던 기묘한 감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삽화: 거대하고 고요한 침봉들의 뒤편에 서 있자니 기묘한 감각이 몰려왔다. 세상의 끝자락에서 하늘을 향해 벽처럼 솟구친 봉우리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에트우드가 경위반으로 관측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높은 다섯 봉우리의 높이는 30,000피트에서 34,000피트 사이였다.

바람이 몰아치는 지형의 특성은 레이크를 분명히 괴롭히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마주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격렬하고 거대한 돌풍이 때때로 몰아친다고 주장했다. 그의 캠프는 높은 산기슭이 갑자기 솟아오른 곳에서 5마일 남짓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말속에는 무의식적인 경고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700마일에 달하는 빙하의 공허를 가로질러 전해진 그 불안함은, 이 기이하고 새로운 지역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고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자고 재촉하는 목소리에 스며들어 있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고 격렬하며 성과가 뚜렷했던 하루의 업무를 마친 그는, 이제 막 휴식을 취하려던 참이었다.

* * * * *

아침이 되자 나는 서로 멀리 떨어진 기지에 있는 레이크와 더글라스 선장, 이렇게 세 명 사이의 무선 통신을 연결했다. 우리는 레이크의 비행기 중 한 대를 내 기지로 보내기로 합의했다. 그 비행기는 패보디와 대원 다섯 명, 그리고 나를 태워 오는 동시에 실을 수 있는 최대한의 연료를 싣고 올 것이다. 동쪽으로 이동할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나머지 연료 문제는 며칠 뒤로 미뤄도 괜찮았다. 레이크의 기지에는 당장 캠프를 운영하고 시추 작업을 계속하기에 충분한 연료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남쪽의 오래된 기지에도 물자를 다시 채워 넣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동쪽으로 향하는 여정을 미룬다면 다음 여름이 올 때까지는 기지를 사용할 일이 없다. 그사이 레이크는 새로 발견한 산맥과 맥머도 해협 사이를 잇는 직항로를 탐사하기 위해 비행기를 보내야만 한다.

패보디와 나는 상황에 따라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동안 기지를 폐쇄할 준비를 했다. 만약 우리가 남극에서 겨울을 나게 된다면, 아마도 레이크의 기지에서 곧장 아컴호로 날아갈 것이며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터였다. 원뿔형 텐트 중 일부는 이미 단단한 눈덩이로 보강해 둔 상태였기에, 우리는 이제 이곳을 영구적인 마을로 만드는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레이크는 텐트를 아주 넉넉하게 챙겨온 덕분에, 우리가 합류한 후에도 기지 운영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나는 패보디와 내가 하루 동안 작업을 마치고 하룻밤 휴식을 취하면, 북서쪽으로 이동할 준비가 끝날 것이라고 무선으로 전했다.

하지만 오후 4시가 지나자 우리의 작업은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다. 그 무렵부터 레이크가 기이할 정도로 흥분된 메시지들을 보내오기 시작했다. 그의 작업은 시작부터 불길했다. 비행기로 노출된 암석 표면을 조사한 결과, 그가 그토록 찾던 시생대와 원시 지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지층들은 캠프에서 손에 잡힐 듯 아득히 솟아 있는 거대한 봉우리들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었다.

눈에 들어오는 암석 대부분은 쥬라기 및 코만치아기의 사암이었고, 페름기와 트라이아스기의 편암들이 섞여 있었다. 간혹 검고 윤기가 흐르는 암석이 돌출되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는 단단한 점판암질의 석탄임을 짐작게 했다.

이 사실은 레이크를 상당히 낙담시켰다. 그의 모든 계획은 5억 년보다 더 오래된 표본들을 발굴하는 데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기이한 문양을 발견했던 시생누대 슬레이트 맥을 다시 찾아내려면, 이 산기슭에서부터 거대한 산맥의 가파른 경사면까지 썰매를 타고 먼 길을 이동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정대의 전체 계획 중 하나로 현지 시추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는 시추기를 설치하고 다섯 명의 인원을 투입했다. 나머지 대원들은 캠프를 정리하고 파손된 비행기를 수리하는 데 전념했다. 첫 번째 샘플을 채취할 장소로는 캠프에서 약 4분의 1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육안으로 보기에 가장 무른 암석인 사암 지대가 선택되었다. 시추 작업은 별도의 폭파 작업 없이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작업의 첫 번째 본격적인 발파가 이루어지고 약 세 시간쯤 지났을 때, 시추 작업반원들의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대리 작업반장인 젊은 게드니가 경악스러운 소식을 품고 캠프로 달려 들어왔다.

* * * * *

그들은 동굴에 도달했다. 굴착 작업 초기에는 사암층이 나타났으나, 곧 코만치산 석회암맥이 드러났다. 그 석회암층에는 미세한 두족류 화석과 산호, 성게, 나선완류가 가득했다. 때로는 규질 해면과 해양 척추동물의 뼈도 발견되었는데, 후자는 아마도 조기류나 상어, 혹은 경린어류의 것으로 보였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번 발견은 충분히 중요했다. 탐사대가 지금까지 확보한 화석 중 최초의 척추동물 화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드릴 헤드 지층을 뚫고 텅 빈 공간으로 툭 떨어지자, 발굴 작업자들 사이에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렬하고 새로운 흥분이 휘몰아쳤다.

꽤 커다란 폭발이 지하의 비밀을 드러냈다. 폭발로 인해 생긴, 폭 너비 약 5피트, 두께 약 3피트에 달하는 들쭉날쭉한 틈새 사이로 탐욕스러운 조사자들의 눈앞에 거대한 공간이 입을 벌렸다. 그곳은 5천만 년도 더 된 옛 열대 세계의 지하수가 흘러들며 깎아 만든, 얇은 석회암 공동이었다.

파여 있는 층의 깊이는 7~8피트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공간은 모든 방향으로 끝없이 뻗어 나갔고, 그 안에는 신선한 공기가 미세하게 흐르

고 있었다. 그 공기의 흐름은 이 공간이 거대한 지하 계통의 일부임을 암시했다. 천장과 바닥에는 거대한 종유석과 석순이 가득 맺혀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서로 맞닿아 기둥을 이루고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곳곳에서 통로를 거의 막아버릴 정도로 쌓여 있는 거대한 조개껍데기와 뼈의 퇴적층이었다. 중생대의 미지의 양치 식물과 균류가 우거진 정글, 그리고 제3기 소철과 종려나무, 원시 피자 식물이 가득한 숲에서 씻겨 내려온 이 골격의 혼합물에는 백악기나 에오세, 그리고 그 외 시대의 동물 종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 종류가 얼마나 방대한지, 아무리 위대한 고생물학자라 해도 일 년 내내 세고 분류하려 해도 다 하지 못할 정도였다. 연체동물과 갑각류의 껍데기, 물고기, 양서류, 파충류, 조류, 그리고 초기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것들이며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한데 뒤엉켜 있었다.

게드니가 비명을 지르며 캠프로 달려간 것도, 다른 대원들이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살을 에듯 차가운 추위를 뚫고 그곳으로 돌진한 것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다. 거대한 시추기가 서 있는 그곳은, 지구 내부의 비밀과 아득히 먼 옛 시대의 흔적으로 향하는 새로운 관문이 되어 있었다.

레이크는 처음의 강렬했던 호기심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나자, 수첩에 메시지를 휘갈겨 적었다. 그러고는 젊은 물턴을 캠프로 돌려보내 무선으로 그 내용을 전송하게 했다.

이것이 그 발견에 대해 내가 받은 첫 소식이었다. 그 기록에는 초기 조개껍데기와 가노이드 및 판피어류의 뼈, 라비린토돈타와 테코이데

아의 잔해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거대한 모사사우루스의 두개골 파편, 공룡의 척추뼈와 갑옷판, 프테로닥틸루스의 이빨과 날개뼈, 시조새의 잔해, 마이오세 상어의 이빨, 원시 조류의 두개골도 언급되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팔레오테리움, 시포돈, 에오히푸스, 오레오돈, 티타노테리움 같은 고대 포유류의 뼈들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었다.

매머드나 코끼리, 진정한 낙타나 사슴, 혹은 소과 동물처럼 비교적 최근에 살았던 생물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레이크는 마지막 퇴적 작용이 올리고세 시대에 일어났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이 움푹 파인 지층은 적어도 삼천만 년 동안이나 지금처럼 메마르고 죽어 있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왔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아주 초기 형태의 생명체들이 유독 흔하게 발견된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석회암 지층에 박힌 벤트리쿨라이트(ventriculites) 같은 전형적인 화석들을 근거로 볼 때, 이 지층은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코만치기(Comanchean) 지층이었으며 그보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빈 공간에 흩어져 있던 파편들 중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비율의 생물체가 섞여 있었다. 그것들은 지금까지 훨씬 더 오래된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으로 여겨진 생물들이었다. 심지어 실루리아기나 오르도비스기만큼이나 먼 과거의 생물인 원시적인 물고기와 연체동물, 산호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할 수 없는 결론은 하나였다. 이 지역에서는 3억 년 전의 생명체와 불과 3천만 년 전의 생명체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이례적인 연속성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동굴이 폐쇄되었던 올리고세 시대 이후로 이 연속성이 얼마나 더 이어졌을지는, 물론 이제 그 누구도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어찌 되었든, 약 50만 년 전 플라이스토세에 들이닥친 공포스러운 빙하기는 이 거대한 공동(空洞)의 연대기에 비하면 그저 어제 일이나 다름없다. 그 빙하기로 인해, 이 지역에서 운 좋게 멸종을 면하며 살아남았던 원시 생명체들은 모두 자취를 감추었음이 틀림없다.

* * * * *

레이크는 첫 번째 메시지만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몰튼이 돌아오기도 전에 또 다른 전보를 작성하여, 눈발을 가로질러 캠프로 보냈다. 그 후 몰튼은 비행기 중 한 대에 있는 무선기로 자리를 지켰다. 레이크가 전령들을 차례로 보내 전달해 온 수많은 추신을, 몰튼은 나에게, 그리고 외부 세계로 전달하기 위해 아컴 호로 송신했다.

당시 신문 기사를 챙겨보던 이들이라면, 그날 오후 보도된 소식들이 과학계에 불러일으킨 파문을 기억할 것이다. 그 보도들은 수년이 흐른 지금, 결국 스타크웨더-무어 탐사대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나는 이 탐사대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만류하고 싶다. 우선 레이크가 보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옮기는 편이 좋겠다. 기지통신사 맥타이어가 속기법으로 받아 적은 것을 번역한 내용이다.

파울리는 폭파 작업 중 나온 사암과 석회암 파편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을 했다. 시생대의 점판암에서나 볼 수 있는 것과 흡사한, 뚜렷한 줄무늬가 새겨진 삼각형 발자국들이 여러 개 발견된 것이다. 이 발자국들은 그 기원이 6억 년 전부터 코만치 시대에 이르기까지, 형태가 크게 변하거나 평균 크기가 줄어들지 않은 채 그대로 이어져 왔음을 증명한다. 코만치 시대의 발자국은 이전의 것들보다 오히려 더 원시적이거나, 혹은 퇴화한 형태인 듯 보인다.

언론에 이 발견의 중요성을 대대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 발견이 생물학계에 가져올 파장은 아인슈타인이 수학과 물리학에 끼친 영향과 맞먹을 것이다. 또한 이 결과는 나의 이전 연구들과 맥을 같이하며, 그 결론을 더욱 공고히 뒷받침해 준다.

내가 짐작했던 대로, 지구는 시생대 세포로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아는 생명 주기 이전에, 이미 한 번 혹은 그 이상의 완전한 생명 주기를 거쳤음을 시사하는 듯하다. 이 생명체들은 행성이 아직 젊고 일반적인 원형질 구조를 가진 생명체가 살기에 부적합했던 10억 년 전 이전에 이미 진화와 전문화를 마친 상태였다. 이제 의문이 남는다. 이 진화가 대체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가 하는 점이다.

* * * * *

나중에 확인한 결과, 거대한 육상 및 해양 파충류와 원시 포유류의 골격 파편 중 일부에서 기이한 상흔이 발견되었다. 뼈의 구조에 남은 이 상처들은 어느 시대의 알려진 포식자나 육식 동물에게서도 나타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상처는 두 가지 형태였다. 하나는 곧고 깊게

뚫린 구멍이었고, 다른 하나는 무언가로 베어낸 듯한 절상이었다. 뼈가 깨끗하게 잘려 나간 사례도 한두 건 있었다. 영향을 받은 표본이 아주 많지는 않았다. 전등을 가져오라고 캠프로 사람을 보내는 중이다. 종유석을 깎아내어 지하 탐사 구역을 넓힐 계획이다.

* * * * *

그보다 더 나중에 발견한 것이다. 지름 약 6인치, 두께 약 1.5인치 정도 되는 기이한 활석 파편을 찾아냈다. 주변에서 보이는 지층과는 전혀 다른 형태다. 색은 녹색을 띠고 있으나, 어느 시대의 것인지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표면은 기묘할 정도로 매끄럽고 규칙적이다. 모양은 끝부분이 부러져 나간 오각별 형태이며, 안쪽 모서리와 표면 중앙에는 다른 결을 따라 갈라진 흔적이 남아 있다. 파손되지 않은 표면 중앙에는 작고 매끄러운 홈이 파여 있다. 이 파편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풍화를 거쳤는지 무척 궁금할 따름이다. 아마도 물의 작용으로 생긴 기이한 현상일 것이다. 캐럴이 확대경으로 살펴보더니,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추가적인 흔적들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규칙적인 패턴으로 늘어선 미세한 점들이 무리 지어 나타난다. 우리가 작업을 계속할수록 개들이 불안해하며, 이 활석을 혐오하는 듯한 기색을 보인다. 혹시 특이한 냄새가 나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밀스가 조명을 가지고 돌아와 지하 구역 조사를 시작하면 다시 보고하겠다.

* * * * *

오후 10시 15분. 중요한 발견을 했다. 오렌도프와 왓킨스가 9시 45분경 조명을 켜고 지하에서 작업하던 중, 정체를 전혀 알 수 없는 괴상

한 통 모양의 화석을 발견했다. 식물성일 가능성이 높으나, 미지의 해양 방사동물 표본이 과하게 자란 것일지도 모른다. 조직은 분명 광물결염분에 의해 보존된 듯하다. 가죽처럼 질기면서도 곳곳에는 놀라울 정도로 유연함이 남아 있다. 양 끝단과 측면 곳곳에는 무언가 부러져 나간 흔적이 보인다. 길이는 양 끝을 이르면 6피트이며, 중앙 지름은 3.5피트이다. 양 끝으로 갈수록 1피트까지 가늘어진다. 마치 통 모양인데, 나무 판자 대신 다섯 개의 불룩한 능선이 솟아 있는 형상이다. 측면의 파손 부위는 얇은 줄기가 꺾인 듯한 모습이며, 이 능선들 사이의 적도 부근에 위치한다. 능선 사이의 골에는 기묘한 돌기들이 돌아 있다. 부채처럼 접혔다 펼쳐지는 빗이나 날개 같은 형태다.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심하게 손상되었으나, 그 하나는 날개를 펼쳤을 때 폭이 거의 7피트에 달한다. 이 배치는 원시 신화 속의 어떤 괴물들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네크로노미콘》에 나오는 전설적인 옛존재들을 연상시킨다.

날개는 선조직 같은 막으로 이루어진 듯하며, 샘 조직으로 된 관 형태의 골격 위에 팽팽하게 펼쳐져 있다. 날개 끝부분의 골격 관에는 미세한 구멍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몸체의 끝부분은 찌그러들어 있어서,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은 그곳에서 무엇이 부러져 나갔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캠프로 돌아가면 반드시 해부해 봐야겠다. 식물인지 동물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여러 특징이 믿기 힘들 정도로 원시적이다. 대원 전원을 투입해 종유석을 깎아내며 추가 표본을 찾게 했다. 흙터가 남은 뼈를 더 발견했지만, 그것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했다. 개들이 말쑥이다. 녀석들은 이 새로운 표본을 견디지 못한다. 우리가 멀리 떨어뜨려 놓지 않았다면 아마도 갈가리 찢어놓았을 것이다.

* * * * *

오후 11시 30분. 다이어, 패보디, 더글라스에게 알림. 지극히, 아니 초월적이라고 할 만큼 중대한 사안임. 아침 측은 즉시 킹스포트 헤드 스테이션으로 이 내용을 전달할 것. 기이한 원통형 성장물은 암석에 발자국을 남겼던 그 태고의 존재임. 밀스, 부드로, 파울러가 입구로부터 40피트 떨어진 지하 지점에서 13개의 군집을 추가로 발견함. 이들은 이전에 발견된 것보다 더 작고, 기묘하게 둥글며 형태가 잡힌 활석 파편들과 섞여 있음. 별 모양을 띠고 있으나, 끝부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파손된 흔적이 없음.

유기체 표본은 여덟 개다. 부속 기관이 모두 온전하게 붙어 있는, 겉보기에는 완벽한 상태다. 개들을 멀리 유인하여 표본 전부를 지표면으로 끌어올렸다. 개들이 이 물체들을 견디지 못한다. 묘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성을 위해 다시 한번 확인해라. 기록은 반드시 정확해야 한다.

물체는 전체 길이가 8피트에 달했다. 몸통은 6피트 길이의 5개 능선이 있는 통 모양이었으며, 중앙 지름은 3.5피트, 양 끝단의 지름은 1피트였다. 색깔은 짙은 회색이었고, 유연하면서도 무한할 정도로 질겼다. 같은 색의 막질 날개는 7피트 길이였는데, 평소에는 능선 사이의 홈을 따라 접혀 있다가 펼쳐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날개의 골격은 관모양이거나 샘모양이었으며, 더 열린 회색을 띠었고 날개 끝부분에는 구멍들이 나 있었다. 날개를 펼치면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을 이루었다.

몸통의 적도 부근에는 다섯 개의 수직 능선이 있었는데, 각 능선의 중앙 꼭대기마다 하나씩 총 다섯 세트의 연회색 유연한 팔 혹은 촉수가 달려 있었다. 이 촉수들은 평소에는 몸통에 단단히 접혀 있었으나, 최대 3피트가 넘는 길이까지 확장할 수 있었다. 그 모습은 원시적인 바다 나리(crinoid)의 팔과 흡사했다. 지름 3인치의 단일 줄기는 6인치 지점에서 다섯 개의 하위 줄기로 갈라졌고, 이 줄기들은 다시 8인치 지점에서 다섯 개의 작고 가늘어지는 촉수로 갈라졌다. 결과적으로 줄기 하나당 총 25개의 촉수가 달린 구조였다.

몸통 상단에는 연한 회색빛을 띤 뭉툭하고 불룩한 목이 달려 있다. 그 목에는 아가미 같은 흔적이 남아 있으며, 그 위로 별 모양의 황색 머리가 솟아 있다. 머리는 다섯 갈래로 뻗은 불가사리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표면은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3인치 길이의 강철 같은 섬모들로 뒤덮여 있다.

머리는 두껍고 부풀어 오른 형태이며, 양 끝단 사이의 거리는 약 2피트다. 각 끝단에서는 3인치 길이의 유연한 황색 관들이 뻗어 나와 있다. 머리 꼭대기 정중앙에는 틈새가 하나 있는데, 아마도 호흡을 위한 구멍일 것이다. 각 관의 끝에는 구형의 팽창부가 달려 있다. 이 부분을 만지면 황색 막이 말려 들어가면서 유리처럼 매끄럽고 붉은 홍채를 가진 구체가 드러나는데, 이는 분명히 눈이다.

불가사리 모양의 머리 안쪽 모서리에서는 약간 더 길고 붉은 관 다섯 개가 뻗어 나왔다. 이 관들은 끝부분에서 같은 색의 주머니 모양으로 부풀어 올랐는데, 압력을 가하면 최대 지름이 2인치에 달하는 종 모

양의 구멍이 열렸다. 그 구멍 안쪽에는 날카롭고 하얀 이빨 같은 돌기들이 돌아 있었으니, 아마도 입의 역할을 하는 듯했다. 발견 당시 이 관들과 섬모, 그리고 불가사리 머리의 돌기들은 모두 단단히 접혀 있는 상태였다. 관과 돌기들은 불룩한 목과 몸통에 바짝 밀착되어 있었다. 엄청난 강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연함은 놀라울 정도였다.

몸통 하단에는 머리 구조와는 다르지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존재했다. 아가미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 불룩한 연회색의 가짜 목 부분이 녹색의 오각 별 모양 구조를 받치고 있었다.

길이는 4피트에 달하며, 밑동의 지름은 7인치에서 끝부분의 약 2.5인치까지 가늘게 좁아지는 강인하고 근육질인 팔이다. 각 팔의 끝에는 길이 8인치, 폭 6인치의 녹색 막질 삼각형이 달려 있다. 이 삼각형은 다섯 개의 맥이 흐르는 형태를 띠며, 한쪽 끝은 팔에 붙어 있고 다른 쪽 끝은 더 넓게 펼쳐져 있다. 이것은 노나 지느러미, 혹은 가짜 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10억 년 전부터 5천만 혹은 6천만 년 전 사이에 형성된 암석 위에 흔적을 남겼다.

불가사리 배열의 안쪽 각도에서 뻗어 나온 2피트 길이의 붉은 관들이 보인다. 이 관들은 밑부분의 지름이 3인치에서 끝부분의 1인치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관의 끝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 이 모든 부위는 무한할 정도로 질기고 가죽 같으면서도, 동시에 매우 유연하다. 4피트 길이의 팔에는 노 모양의 구조물이 달려 있는데, 이는 해양 생물이든 아니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동하는 데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이 팔을 움직이면 과장된 근육질의 움직임이 느껴진다. 발견 당시, 이 모든 돌출

물은 가짜 목과 몸통 끝부분을 단단히 덮고 있었으며, 이는 몸통 반대편에 있는 돌출물들과 대칭을 이루고 있었다.

아직 동물계인지 식물계인지 확정적으로 분류할 수는 없으나, 현재로서는 동물계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다. 아마도 어떤 원시적 특징들을 유지하면서도 믿기 힘들 정도로 고도로 진화한 방사동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변의 상충하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계와 같은 극피동물과 닮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날개 구조는 해양 서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의문을 불러일으키지만, 수중 항해에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 대칭 구조는 기묘할 정도로 식물과 닮아 있는데, 이는 동물의 앞뒤 구조보다는 식물의 본질적인 상하 구조를 암시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단순한 원생동물보다도 앞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이른 진화 시기는 그 기원에 대한 모든 추측을 무색하게 만든다.

완전한 표본들은 원시 신화 속의 어떤 생물들과 기묘할 정도로 닮아 있다. 이 때문에 남극 너머에 고대의 존재가 실존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피할 수 없는 결론이 된다. 다이어와 패보디는 《네크로노미콘》을 읽었고, 그 텍스트를 바탕으로 그려진 클라크 애슈턴 스미스의 악몽 같은 그림들을 보았기에, 내가 왜 옛존재들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농담이나 실수로 만들어냈다고 말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학생들은 그동안 이 생명체들이 아주 오래전 열대 지역에 살았던 방사동물들을 병적인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것이라고만 생각해 왔다. 또한 월마스가 언급했

던, 크톨루 교단의 부속 세력 같은 선사 시대의 민속적 존재들과도 닮아 있다.

방대한 연구 분야가 열렸다. 함께 발견된 표본들로 미루어 볼 때, 이 퇴적층은 백악기 후기나 에오세 초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위로 는 거대한 중유석들이 쌓여 있다. 그것들을 깎아내는 작업은 고되었으나, 암석이 워낙 단단해 손상은 입지 않았다. 석회암의 작용 덕분인지 보존 상태는 기적적일 만큼 완벽하다. 아직 더 발견된 것은 없으나, 나중에 다시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제 남은 일은 거대한 표본 열네 개를 캠프로 옮기는 것이다. 개들을 데리고 갈 수는 없다. 녀석들이 사납게 짖어대서 표본 근처에 두었다가는 믿을 수가 없다.

개들을 지킬 세 명을 제외하고 아홉 명의 인원이 남았다. 바람이 거세긴 하지만, 이 정도 인원이면 썰매 세 대를 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맥머도 사운드와 통신을 연결해 물자를 실어 보내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휴식을 취하기 전에 반드시 이 생명체 중 하나를 해부해야만 한다. 이곳에 제대로 된 실험실이라도 있다면 좋을 텐데. 나의 서쪽 여정을 막으려 했던 다이어는 스스로를 자책하게 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산맥을 마주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런 것까지 마주하고 있으니 말이다. 만약 이번 발견이 이번 탐사의 정점이라면, 대체 무엇이 정점이라는 말인가. 우리는 과학적 성취 그 자체다. 동굴을 뚫어낸 드릴을 만든 패보디, 정말 축하하네. 이제 아킴호 측에서는 방금 전의 묘사를 다시 한번 반복해 주겠나?

[삽화: "이것들 중 하나를 반드시 해부해야만 해. 그전에라도……"]

"먼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산맥이 나타나더니, 그다음엔 이런 것이라니!"

이 보고서를 받았을 때 페보디와 내가 느낀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동료들 역시 그에 못지않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수신기의 웅웅거리는 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핵심적인 내용 몇 대목을 급히 번역해 두었던 맥타이어는, 레이크 측 통신사가 교신을 마치는 대로 자신이 받아 적은 속기록을 바탕으로 메시지 전체를 옮겨 적었다.

모두가 이번 발견이 지닌 역사적 중대함을 높이 평가했다. 나는 아컴호의 통신사가 요청한 묘사 부분을 다시 복창하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레이크에게 축하를 전했다. 이어 맥머도 사운드의 보급 창고에 있던 셔먼도, 아컴호의 더글러스 선장도 나를 따라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나중에 탐사대 대장으로서, 나는 아컴 호를 통해 외부 세계로 전달할 몇 가지 소견을 덧붙였다. 물론 이런 격앙된 상황 속에서 휴식을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내 유일한 바람은 가능한 한 빨리 레이크의 캠프에 도착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산맥에서 불어오는 강풍 때문에 조기 항공 이동이 불가능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한 시간 반이 지나자 실망감은 사라지고 다시금 흥미가 솟구쳤다. 레이크는 추가 메시지를 보내, 열네 구의 거대한 표본을 캠프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운반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표본들이 생각보다 무거웠기에 운반 과정은 몹시 고되었으나, 아홉 명의 대원이 아주 깔끔하게 일을 완수했다. 한편 대원 중 일부는 캠프에서 안전한 거리를 둔

곳에 눈으로 만든 우리를 서둘러 만들고 있었다. 나중에 개들에게 먹이를 줄 때 편하도록 표본들을 그곳으로 옮겨두려는 목적이었다. 캠프 근처 단단한 눈 위에는 표본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다만 레이크가 서투른 솜씨로 해부를 시도하고 있는 표본 하나만은 제외하고 말이다.

해부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다. 새로 설치한 실험용 텐트 안에 가솔린 난로를 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본의 조직은 좀처럼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비록 힘이 넘치고 온전한 상태의 개체였으나, 겉보기와 달리 조직은 가죽처럼 질기고 단단했다. 레이크는 고민에 빠졌다. 자신이 확인하려는 정교한 구조를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질긴 조직에 필요한 절개를 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완벽한 표본이 일곱 개 더 남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나중에 그 동굴에서 무한한 양의 표본이 나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한, 이 귀한 것들을 함부로 써버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기존의 표본을 치우고 대신 다른 것을 끌어다 놓았다. 새로 가져온 표본은 양 끝에 불가사리 형태의 배열 흔적이 남아 있긴 했으나, 거대한 몸통 흉중 한 곳이 심하게 짓눌리고 일부가 파손된 상태였다.

무선 통신을 통해 신속하게 보고된 결과는 참으로 당혹스러우면서도 자극적이었다. 기이한 조직을 겨우 절개할 수 있을 정도의 조잡한 장비로는 정밀하거나 정확한 측정 따위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 미미한 성과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경외감과 혼란에 휩싸였다.

기존의 생물학은 완전히 새로 쓰여야만 할 것이다. 이 생명체는 인류가 알고 있는 세포 성장의 원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광물질로 치환된 흔적도 거의 없었으며, 아마도 사천만 년은 족히 흘렀을 그 기나긴 세월에도 불구하고 내부 장기들은 마치 방금 생긴 것처럼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것의 형태를 구성하는 조직은 가죽처럼 질기고, 부패하지 않으며, 거의 파괴할 수 없을 만큼 견고했다. 이러한 특성은 그 생명체가 지닌 본질적인 속성이었다. 이는 인간의 추측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팔레오세 시대 무척추동물 진화의 어느 단계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했다.

처음에 레이크가 발견한 것은 그저 메마른 상태뿐이었다. 하지만 가열된 텐트의 열기가 얼음을 녹이기 시작하자, 그 물체의 상처 입지 않은 쪽에서 코를 찌르는 불쾌한 악취를 풍기는 유기물질의 습기가 배어나왔다. 그것은 피가 아니었다. 대신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듯한 걸쭉하고 어두운 초록빛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레이크가 이 단계에 이르렀을 무렵, 서른일곱 마리의 개는 모두 캠프 근처의 아직 미완성인 우리로 옮겨진 상태였다. 개들은 그 거리에서도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퍼져 나오자, 사납게 짖어대며 안절부절못하는 기색을 보였다.

* * * * *

그 기이한 존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이 임시 해부 작업은 오히려 수수께끼를 더욱 깊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외부 돌기들에 대한 모든 추측은 적중했다. 그 증거들만 놓고 본다면 이 존재를 동물

이라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내부를 조사하자 식물에 가까운 특징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었고, 결국 레이크는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망연자실하고 말았다. 그 존재는 소화와 순환 기능이 있었으며, 불가사리 모양의 밑바닥에 달린 붉은 관들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했다.

겉보기에 그 생명체의 호흡 기관은 이산화탄소보다 산소를 다루는 구조였다. 또한 공기를 저장하는 방들이 존재하고, 외부 구멍에서 시작된 호흡을 아가미와 기공이라는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완전히 발달한 다른 호흡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까지 갖추고 있다는 기묘한 증거들도 발견되었다.

그 생명체는 분명 양서류였으며, 아마도 공기가 없는 상태로 긴 동면을 견딜 수 있도록 적응했을 것이다. 주 호흡계와 연결된 발성 기관도 존재하는 듯했으나, 그 구조는 즉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기이했다. 음절을 내뱉는 식의 명확한 언어 구사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지만, 넓은 음역대를 넘나드는 음악적인 피리 소리 같은 음을 낼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 근육계는 거의 초자연적이라 할 만큼 발달해 있었다.

신경계는 레이크가 경악할 정도로 복잡하고 고도로 발달해 있었다.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원시적이고 고풍스러웠으나, 그 존재가 지닌 신경절 중심부와 연결망은 전문화된 발달이 도달할 수 있는 극한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다섯 갈래로 나뉜 뇌는 놀라울 정도로 발달해 있었다. 또한 머리에 돌아난 가느다란 섬모를 통해 감각 기관이 작동한 흔적도 보였는데, 이

는 지구상의 그 어떤 생명체와도 다른 이질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 생명체는 다섯 가지 이상의 감각을 지녔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그 어떤 유추로도 이 존재의 습성을 예측할 수 없었다.

레이크는 생각했다. 그 생명체는 태초의 세계에서 오늘날의 개미나 벌처럼, 아주 예민한 감각과 정교하게 분화된 기능을 갖춘 존재였음이 틀림없다고. 그것은 식물성 은화식물, 특히 양치식물처럼 번식했다. 날개 끝에는 포자낭이 달려 있었고, 분명 엽상체나 전엽체로부터 발달한 형태였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저 어리석은 짓이었다. 방사형 구조를 띠고는 있었으나, 분명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 식물의 특성을 일부 지니면서도, 동물의 필수 구조를 4분의 3이나 갖추고 있었다. 대칭적인 윤곽과 몇몇 특징을 통해 그것이 해양 생물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드러났다. 하지만 그것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적응하며 변해갔는지, 그 경계를 정확히 규정하기란 불가능했다.

무엇보다도 그 날개에는 공중을 누비던 생명체라는 흔적이 끈질기게 남아 있었다. 시생대 암석에 발자국을 남길 만큼, 이 생명체가 갓 태어난 지구에서 그토록 복잡한 진화 과정을 거칠 수 있었던 말인가. 이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사실은레이크로 하여금 기묘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별들로부터 내려와 농담이나 실수로 지구의 생명체를 만들어냈다는 '위대한 옛존재들'에 관한 태고의 신화, 그리고 미스카토닉 대학 영문학과와 동료 민속학자가 들려주었던 우주 너머의 기괴한 존재들에 관한 괴담 같은 것들 말이다.

* * * * *

물론 그는 선캄브리아기의 발자국이 현재 발견된 표본보다 덜 진화한 조상에 의해 남겨졌을 가능성도 고려해 보았다. 하지만 오래된 화석들이 보여주는 고도로 발달한 구조적 특성을 검토한 뒤, 그는 이 지나치게 단순한 가설을 곧바로 기각했다. 오히려 나중에 나타난 윤곽들은 진화의 고도화보다는 퇴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짜 발의 크기는 줄어들어 있었고, 전체적인 형태 또한 거칠고 단순해진 듯했다. 게다가 방금 조사한 신경과 기관들은, 훨씬 더 복잡했던 이전 형태로부터 퇴화해 온 듯한 기이한 흔적을 품고 있었다. 퇴화하여 쓸모없어진 흔적이나 흔적기관이 놀라울 정도로 도처에 널려 있었다. 결과적으로 밝혀낸 것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결국 레이크는 임시로 이름을 붙이기 위해 신화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옛존재들"이라 부르며 농담조로 일컬었다.

새벽 2시 30분경, 그는 더 이상의 작업을 미루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는 해부 중이던 유기체를 타포린 천으로 덮어둔 뒤 실험실 텐트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온전한 상태의 표본들을 다시금 흥미로운 눈빛으로 살피기 시작했다.

술 새 없이 내리쬰는 남극의 태양 때문에 시료들의 조직이 조금씩 유연해지기 시작했다. 두세 구의 표본에서는 머리 부분의 돌기와 관 모양의 구조들이 펼쳐지려는 기색이 보였다. 하지만 레이크는 영하에 가까운 이 공기 속에서 시료들이 즉각 부패할 위험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다만 직사광선을 차단하기 위해 해부하지 않은 표본들을 모두 한

데 모아두고, 그 위로 여분의 텐트를 덮어씌웠다.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풍길지 모를 시료의 냄새가 개들에게 전달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터였다. 개들은 꽤 멀리 떨어져 있었고, 대원들이 거쳐 주변에 점점 더 높은 눈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놈들의 적대적인 불안 증세는 점차 문제가 되고 있었다.

거센 돌풍이 몰아치기 시작하자, 그는 텐트 천이 날아가지 않도록 무거운 눈덩이를 모서리마다 얹어 고정해야 했다. 거대한 산맥이 금방이라도 무시무시한 돌풍을 쏟아낼 기세였기 때문이다. 남극의 갑작스러운 강풍에 대한 초기 우려가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애트우드의 감독 아래, 산 쪽을 향해 텐트와 새로운 개 우리, 그리고 조잡한 비행기 격납고 주변에 눈을 쌓아 방벽을 만드는 예방 조치가 취해졌다. 틈틈이 단단한 눈 블록을 쌓아 만들기 시작한 격납고는 높이가 충분치 않았다. 결국 레이크는 다른 모든 업무를 중단시키고 대원들을 투입해 격납고를 보강하는 데 매달렸다.

네 시가 지나서야 레이크는 마침내 업무를 마무리할 채비를 했다. 그는 대피소의 벽을 조금 더 높이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모두가 남은 휴식 시간을 함께 보내자고 권했다. 레이크는 무선 통신을 통해 패보디와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며, 자신의 발견을 가능케 했던 경이로운 훈련들에 대해 다시 한번 찬사를 보냈다. 애트우드 역시 안부 인사와 함께 찬사를 전해왔다.

나는 레이크에게 따뜻한 축하의 말을 건네며, 서쪽으로의 여정에 관한 그의 판단이 옳았음을 인정했다. 우리는 모두 오전 10시에 무선으

로 연락하기로 합의했다. 만약 그때 강풍이 잦아든다면, 레이크는 내 기지로 탐사대를 데려올 비행기를 보낼 계획이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 나는 아침 호에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그날의 소식을 외부 세계에 알릴 때는 수위를 낮추라는 지시도 덧붙였다. 상세한 내용이 너무나 파격적이라,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불신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III.

그것은 1930년 12월 11일, 남극의 어느 지점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기록이다.

우리는 그날, 남극 대륙의 어느 지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댄포스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그는 그날 우리가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말할 때마다 마치 영혼이 깎여 나가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우리는 남극의 어느 지점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그곳에 존재했던 무언가를 마주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 분류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존재였다. 댄포스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유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하고 기괴하며,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의 흔적이었다.

그 흔적들은 얼음 속에 박힌 채, 수억 년의 시간을 견뎌온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그 얼음을 걷어내고 그 실체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알던 세상이 얼마나 좁고 무지한 곳이었는지를 깨달아야만 했다.

그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다. 그것은 재앙의 시작이었다.

그날 아침, 우리 중 누구도 깊이 혹은 내내 잠들지는 못했을 것이다.레이크가 발견한 것에 대한 흥분과 점점 거세지는 바람의 포효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있는 곳조차 이토록 사나운 돌풍이 몰아치고 있으니, 그 거대한 미지의 봉우리들이 바람을 잉태하고 쏟아내는 레이크의 캠프는 대체 얼마나 더 끔찍할지 의구심마저 들 정도였다.

맥타이어는 10시에 깨어나 약속대로 레이크와 무선 통신을 시도했다. 하지만 서쪽에서 몰아치는 불안정한 대기 상태 때문인지 전기적 간섭이 발생하여 통신이 연결되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아컴호와 연락이 닿았다. 더글러스는 자신 또한 레이크에게 연락하려 애썼으나 허사였다고 내게 말했다. 그는 바람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바람이 끊임없이 광포하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맥머도 해협은 바람이 거의 불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루 종일 초조하게 귀를 기울이며 틈틈이 레이크를 찾으려 애썼지만, 번번이 허사였다. 정오 무렵에는 서쪽에서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캠프의 안전이 위태로울 정도의 기세에 우리는 겁에 질렸으나, 다행히 바람은 이내 잦아들었다. 오후 2시경에 잠시 바람이 다시 거세지긴 했지만, 그뿐이었다.

세 시가 지나자 사방은 매우 고요해졌다. 우리는 레이크를 찾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는 네 대의 비행기를 운용하고 있었고, 각 비행기에는 성능이 뛰어난 단파 무전기가 갖춰져 있었다. 그러니 그 많은 무전 장비가 한꺼번에 고장 날 만한 평범한 사고 따위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처럼 무거운 침묵은 계속되었다. 레이크가 있는 곳에 몰아치는 바람이 얼마나 광포할지를 생각하니,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며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다.

무선기로 셔먼에게 연락을 취했다. 기상 조건이 매우 양호해 보였기에, 그는 비행기와 선원 두 명을 데리고 가능한 한 빨리 남쪽 기지로 합류하라고 명령했다. 그 후 우리는 곧 결성될 조사대의 인원 구성을 논의했다. 결국 내가 가지고 있던 썰매와 개들까지 포함하여 전 인원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아무리 짐이 무겁다 해도, 중장비 운송을 위해 특별 주문 제작한 거대한 비행기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터였다. 나는 중간중간 무선으로 레이크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응답도 얻지 못했다.

셔먼은 선원 군나르손, 라르센과 함께 7시 30분에 이륙했다. 비행 중 여러 지점에서 보고해 온 비행 상태는 평온했다. 그들은 자정 무렵 우리 기지에 도착했고, 대원 전원이 모여 다음 행보를 논의했다. 중간 기지 하나 없이 단 한 대의 비행기로 남극 상공을 향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선택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비행기에 짐을 싣는 예비 작업을 마친 뒤, 우리는 2시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4시간 뒤, 짐 싣기와 짐 싸기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일어났다.

1월 25일 오전 7시 15분, 우리는 맥타이어의 안내를 받아 북서쪽으로 출발했다. 대원 10명과 개 7마리, 썰매 한 대, 연료와 식량, 그리고 비행기의 무선 장비를 포함한 여러 물자를 챙겼다. 날씨는 맑고 꽤 고요했으며 기온도 비교적 온화했다. 레이크가 캠프 위치로 지정한 위도와 경도에 도달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예상했다. 우리의 불안은 여정의 끝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혹은 무엇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지에 관한 것이었다. 캠프로 보낸 모든 교신에는 여전히 침묵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 * * * *

그 네 시간 반 동안의 비행에서 겪은 모든 사건은 내 기억 속에 낙인처럼 새겨져 있다. 내 삶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쉰네 살의 나이에, 나는 평범한 정신이 외부 세계와 자연의 법칙을 통해 누리는 평온함과 균형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때부터 우리 열 명은, 특히 학생인 댄포스와 나만은, 그 무엇으로도 씻어낼 수 없는 끔찍한 공포가 도사리는 거대한 세계를 마주하게 되었다. 가능하다면 이 사실을 인류 전체와 공유하는 것조차 피하고 싶을 정도였다. 신문에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며 보낸 보고서들이 실렸다. 그 보고서에는 쉽 없이 비행을 이어간 과정과, 번덕스러운 상층 기류의 돌풍과 맞서 싸운 두 차례의 사투, 그리고 사흘 전 레이크가 중간 지점에서 수직 강도를 뚫었던 부서진 지표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한 아문센과 버드가 끝없이 펼쳐진 얼어붙은 고원을 가로질러 바

람에 굴러다닌다고 기록했던, 그 기묘하고 솜털 같은 눈 기둥 무리를 목격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자, 우리가 느낀 감각은 언론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이후에는 엄격한 검열 규칙을 실제로 적용해야만 하는 지점까지 도달하고 말았다.

선원 라르센이 가장 먼저 마녀의 형상을 닮은 뾰족한 원뿔과 침봉들의 들쭉날쭉한 윤곽을 발견했다. 그가 내지른 외침에 사람들은 모두 거대한 객실이 딸린 비행기의 창가로 몰려들었다. 비행기는 속력을 내고 있었지만, 저 형체들은 좀처럼 뚜렷해지지 않았다. 그 모습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높이 덕분에 겨우 눈에 띄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산들은 서쪽 하늘로 조금씩, 그리고 엄숙하게 솟아올랐다. 덕분에 우리는 황량하고 검게 변한 여러 봉우리를 겨우 분간할 수 있었다.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빙설 구름을 배경으로, 남극의 붉은 빛을 머금은 산봉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기묘한 환상마저 느껴졌다.

그 광경 전체에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과, 동시에 무언가 엄청난 것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끊임없이, 그리고 질게 깔려 있었다. 마치 저 황량하고 악몽 같은 침탑들이 금지된 꿈의 영역, 그리고 아득한 시간과 공간, 초차원의 복잡한 심연으로 통하는 공포스러운 관문의 기둥처럼 보였다. 나는 저 산들이 사악한 존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저 산들은 광기의 산맥이었으며, 그 먼 경사면 너머로는 저주받은 궁극의 심연이 펼쳐져 있는 듯했다.

들끓듯 일렁이며 희미한 빛을 내뿜는 구름 배경은, 지구상의 공간 개념을 훨씬 초월한 모호하고도 영묘한 저편의 세계를 형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암시하고 있었다. 또한 그 풍경은 발길이 닿지 않은 이 심연의 남극 세계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황량하고 영겁의 세월 동안 죽어 있었는지를 소름 끼치도록 상기시켰다.

* * * * *

높은 산맥의 능선이 기묘할 정도로 규칙적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챈 것은 젊은 댄포스였다. 그 능선은 마치 완벽한 정육면체 조각들이 매달려 있는 듯한 형상이었다. 레이크가 전언을 통해 언급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레이크가 왜 그 풍경을 태초의 신전 유적 같다고 비유했는지, 왜 그 모습이 마치 로리치가 구름 낀 아시아의 산봉우리를 미묘하고도 기이한 화법으로 그려낸 꿈속의 풍경 같다고 했는지, 이제야 그 비유가 충분히 납득이 갔다.

산맥으로 뒤덮인 이 기이한 대륙 전체에는 분명 로리치(Roerich)의 화풍을 연상시키는, 무언가 잊히지 않는 기묘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10월에 빅토리아 땅을 처음 목격했을 때도 느꼈던 감각이었으나, 지금 다시금 그 감각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또한 나는 태고의 신화적 형상들이 겹쳐 보이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이 치명적인 영역이 고대의 기록 속에 악명 높게 등장하는 령의 고원과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는지, 그 불길한 유사성이 나를 뒤흔들었다.

신화학자들은 령을 중앙아시아에 위치시켰다. 하지만 인류, 혹은 인류의 선조들이 간직해 온 종족적 기억은 매우 길다. 어쩌면 어떤 이야기들은 아시아보다도,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인간 세상보다도 훨씬 이전에, 공포로 가득한 땅과 산맥, 그리고 사원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일지도 모른다.

대담한 신비주의자 몇몇은 파편적으로 전해지는 '프나코틱 필사본'이 플라이스토세 이전부터 존재해 왔음을 암시했다. 또한 그들은 차토구아를 숭배하는 자들 역시 차토구아 그 자체만큼이나 인류와는 이질적인 존재였다고 주장했다.

랭이 시공간의 어느 곳에 자리 잡고 있든, 나는 그곳에 가고 싶지도, 근처에 머물고 싶지도 않았다. 게다가 레이크가 방금 언급한 것과 같이 모호하고 태고적인 괴물들을 배출해 낸 세계와 가까이 지내는 것 또한 결코 달갑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왜 그 혐오스러운 《네크로노미콘》을 읽었는지, 그리고 대학에서 그 불쾌할 정도로 박식한 민속학자 윌마스에게 왜 그토록 많은 말을 건넸는지 후회스러울 뿐이었다.

이러한 기분 탓인지, 산맥에 가까워지며 산기슭의 굽이치는 능선들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점점 더 유백색으로 빛나는 천정에서 우리를 덮쳐온 기괴한 신기루는 내 반응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수십 번의 극지 신기루를 보아왔다. 그중 일부는 지금처럼 기묘하고 환상적일 만큼 선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신기루는 전혀 새로운, 무언가 불길한 상징성을 띤 모호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머리 위

로 소용돌이치는 얼음 안개 속에서 전설 속의 벽과 탑, 그리고 첨탑들이 뒤엉킨 미로처럼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나는 몸서리쳤다.

그 광경은 인간의 건축 양식이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사이클롭스식 도시의 모습이였다. 밤처럼 검은 석조물들이 거대하게 뭉쳐 있었는데, 그 형태는 기하학적 법칙을 기괴하게 뒤틀어 놓은 듯했다. 깎여 나간 원뿔들이 보였고, 어떤 것은 계단식이었으며 어떤 것은 흠이 파여 있었다. 그 위로는 곳곳에 높다란 원통형 기둥들이 솟아 있었는데, 중간중간 불룩하게 부풀어 오른 형태였으며 대개는 얇고 물결무늬가 새겨진 원판들을 층층이 쌓아 올린 덮개가 씌워져 있었다. 또한 기묘하게 돌출된 탁자 모양의 구조물들도 있었는데, 이는 수많은 직사각형 판이나 원형 판, 혹은 오각별 모양의 판들을 아래층과 겹치도록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처럼 보였다.

복합적인 원뿔과 피라미드들이 단독으로 서 있거나, 원기둥 혹은 정육면체 위에 얹혀 있었다. 때로는 납작한 원뿔대나 피라미드 형태를 띠기도 했다. 그 사이사이로는 바늘처럼 뾰족한 첨탑들이 다섯 개씩 기묘한 무리를 지어 솟아 있었다.

이 열병을 앓는 듯한 구조물들은 서로 아찔한 높이에서 관 모양의 다리들로 얹혀 있었다. 그 다리들은 구조물 사이를 가로지르며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이 모든 건축물이 품은 거대한 규모는 그 압도적인 거대함만으로도 보는 이를 공포에 질리게 하며 숨을 턱 막히게 했다.

신기루의 전반적인 형태는 1820년 북극 포경선원 스코어즈비가 관찰하고 그려낸 기괴한 신기루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가 문제였다. 눈앞에는 정체를 모를 검은 산봉우리들이 거대하게 솟아 있었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 기이한 옛존재들의 세계를 발견했다는 충격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게다가 탐사대의 대부분을 덮친 불길한 재앙의 그림자까지 더해지자, 우리 모두는 그 신기루에서 잠재된 악의와 무한히 사악한 징조를 읽어내고야 말았다.

신기루가 흩어지기 시작하자 나는 안도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악몽 같은 침탐과 원뿔 모양의 형상들이 일시적으로 뒤틀리며, 한층 더 거대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변하기도 했지만 말이다. 환영이 통째로 녹아내리며 소용돌이치는 유백색 빛으로 변하자, 우리는 다시 지면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그리 멀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눈앞에 나타난 미지의 산맥은 마치 거인들이 쌓아 올린 공포스러운 성벽처럼 어지러울 정도로 높게 솟아 있었다. 망원경을 쓰지 않고도 그 기이할 만큼 규칙적인 형상이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이제 가장 낮은 산기슭을 지나고 있었다. 눈과 얼음, 그리고 맨 땅이 드러난 거대한 고원 사이로 어두운 점 두 개가 보였다. 우리는 그것이 레이크의 캠프와 시추 현장이라고 생각했다.

5, 6마일 너머로 더 높은 산기슭들이 솟아올랐다. 그 너머로 히말라야 산맥보다도 더 거대하고 공포스러운 봉우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기에, 이 산기슭들은 마치 별개의 산맥처럼 보일 정도였다. 마침내 맥타이어의 교대 근무를 맡았던 학생 로프스가 조종간을 잡고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왼쪽의 어두운 지점을 향해 내려갔는데, 그 지점의 크기

로 보아 그곳이 캠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로프스가 움직이는 동안, 맥타이어는 우리 탐사대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검열되지 않은 무선 메시지를 송신했다.

물론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남극 체류에 관한, 짧고도 불충분한 보고들을 이미 읽었을 것이다.

상륙하고 몇 시간 뒤, 우리는 우리가 목격한 비극을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그리고 전날 혹은 그 전날 밤에 몰아친 무시무시한 바람 때문에 레이크 일행 전원이 몰살당했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알렸다. 확인된 사망자는 열한 명이었고, 젊은 게드니는 행방불명 상태였다.

사람들은 그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을지 짐작하며, 우리가 세부 사항을 흐릿하게 설명한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다. 또한 바람에 짓이겨진 열한 구의 시신은 외부로 운반하기에 너무나 처참한 상태였다는 우리의 설명도 믿어 주었다.

실로 나는 자부한다. 우리가 겪었던 극심한 고통과 완전한 혼란, 그리고 영혼을 옥죄는 공포 속에서도,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에 있어서 우리는 진실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이다. 진짜 거대한 의미는 우리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한 것들에 담겨 있다.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공포로부터 다른 이들을 경고해야 한다는 절박한 이유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조차 결코 말하지 않았을 내용들이다.

* * * * *

바람이 참혹한 파괴를 불러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설령 다른 변수가 없었더라도, 우리 대원들이 그 폭풍 속에서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미친 듯이 몰아치는 얼음 파편과 그 맹렬한 기세로 보아, 그 폭풍은 우리 탐사대가 지금까지 마주했던 그 어떤 것도 뛰어넘는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비행기 격납고 하나가 거의 가루가 되어 있었다. 격납고들은 전부 지나치게 허술하고 부실하게 지어진 모양이었다. 멀리 떨어진 시추 지점에 있던 데릭(derrick) 역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지면에 닿아 있던 비행기 기체와 시추 장비의 금속 표면은 마찰로 인해 멍이 든 듯 번들거리는 광택을 띠고 있었다. 작은 텐트 두 동은 눈을 쌓아 벽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납작하게 눌러버렸다. 폭풍에 노출된 나무 표면은 구멍이 숭숭 뚫린 채 페인트가 모두 벗겨져 나갔고, 눈 위에 남았던 모든 발자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우리가 발견한 태고의 생물학적 표본들은 그 어떤 것도 온전한 상태로 외부로 반출할 수 없었다. 거대하게 무너져 내린 더미 속에서 우리는 몇몇 광물들을 채집했을 뿐이다. 그중에는 기묘하게 둥근 다섯 갈래의 형태와 희미하게 점점이 박힌 무늬가 특징인 녹색 비누석 파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파편들의 독특한 문양 때문에 수많은 의구심 섞인 비교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화석화된 뼈들도 일부 수집했는데, 그중에는 기이한 상흔이 남은 표본들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포함되어 있었다.

개들은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했다. 캠프 근처에 급히 만들어 두었던 눈 울타리는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있었다. 바람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캠프 쪽을 향한 면이 더 심하게 부서진 점은 의문스럽다. 그쪽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는 광기에 사로잡힌 짐승들이 안에서 밖으로 필사적으로 뛰어넘거나 부수며 탈출하려 했던 흔적처럼 보인다.

썰매 세 대는 모두 사라졌다. 우리는 바람이 썰매들을 미지의 세계로 날려버렸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하려 애썼다. 시추 현장에 있던 드릴과 얼음을 녹이는 기계들은 손상이 너무 심해 회수할 가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장비들을 이용해, 레이크가 폭파하여 열어젖힌 그 기분 나쁜 과거의 통로를 메워버렸다.

우리 역시 캠프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비행기 두 대를 남겨두고 떠났다. 살아남은 일행 중 실제 조종이 가능한 인원은 셔먼, 댄포스, 맥타이어, 로프스까지 총 네 명뿐이었는데, 그중 댄포스는 신경쇠약 증세가 심해 비행을 맡기기 어려운 상태였다.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서적과 과학 장비, 그리고 기타 부수적인 물품들을 챙겨 돌아왔다. 하지만 많은 물건이 영문도 모른 채 바람에 날려가 버린 뒤였다. 여분의 텐트와 모피들은 사라졌거나 상태가 너무 나빠져 쓸 수 없었다.

오후 4시쯤이었다. 비행기로 광범위한 지역을 순항한 끝에, 우리는 게드니를 이미 실종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 무렵 우리는 야콥호에 전달을 부탁할 조심스러운 메시지를 보냈다. 최대한 침착하

고 신중하게 내용을 작성하려 애썼는데, 돌이켜보면 그렇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동요에 대해 언급한 내용 중 가장 큰 부분은 개들에 관한 것이었다. 생물 표본 근처에서 개들이 미친 듯이 불안해하는 것은, 불행한 레이크의 기록을 보았을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개들이 어질러진 구역 곳곳을 쿵쿵거리며 돌아다니다가, 기묘한 녹색 비누석과 다른 물건들을 마주하고 똑같이 불안해했던 모습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은 것 같다. 그 물건들 중에는 과학 장비와 비행기, 그리고 캠프와 시추 현장에 있던 기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기계들의 부품들은 마치 기이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품은 바람에 의해 느슨해지거나, 움직이거나, 혹은 누군가 건드린 것처럼 흐트러져 있었다.

우리가 발견한 14점의 생물 표본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하게 기술했다. 우리는 발견된 표본들이 모두 손상된 상태였다고 적었으나, 레이크의 묘사가 완벽할 정도로 인상적이며 정확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한 양이 남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에 있어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표본의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고, 발견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

당시 우리는 레이크의 대원들이 미쳐 있었다는 인상을 줄 만한 내용은 일절 전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육안으로 보기에 그것은 분명 광기 어린 행위처럼 보였다. 여섯 점의 불완전한 괴물들이 9피

트 깊이의 눈 속에 똑바로 세워진 채 정성스럽게 매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무덤은 오각뿔 형태의 언덕이었으며, 표면에는 점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찍혀 있었다. 그 무늬는 중생대나 제3기 지층에서 발굴된 기묘한 녹색 비누석에 새겨진 문양과 정확히 일치했다. 레이크가 언급했던 온전한 상태의 표본 여덟 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했다.

* * * * *

우리는 대중의 평온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했다. 그래서 다음 날, 그 산맥을 넘으며 겪었던 끔찍한 여정에 대해서는 댄포스와 나 모두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무게를 극단적으로 줄인 비행기 한 대만이 그토록 높은 산맥을 넘을 수 있었기에, 다행히도 그 정찰 비행에 나선 것은 우리 둘뿐이었다.

새벽 한 시에 돌아왔을 때, 댄포스는 거의 히스테리 상태에 빠질 지경이었으나 놀라울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우리는 그를 설득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는 우리가 가져온 스케치와 다른 물건들을 주머니 속에 숨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외부로 전달하기로 미리 합의한 내용 외에는 다른 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따로 현상할 카메라 필름을 잘 숨겨두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 중 일부는 패보디와 맥타이어, 로프스, 셔먼, 그리고 그 외의 동료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될 것이다. 사실 댄포스는 나보다 입이 더 무겁다. 그는 무언가를 보았거나, 혹은 보았다고 생각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만큼은 나에게조차 말해주려 하지 않는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의 보고서에는 험난했던 등반 과정이 담겨 있다. 그 보고서에는 거대한 봉우리들이 태고의 슬레이트와 다른 원시적인 습곡 지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적어도 코만치기 중간 시기 이후로는 변함이 없다는 레이크의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암벽에 달라 붙은 입방체와 성벽 모양의 지형이 매우 규칙적이라는 통상적인 관찰 결과도 담았다. 동굴 입구의 형태를 보아하니 석회질 맥이 용해되어 형성된 것이라는 결정, 그리고 숙련된 등반가라면 특정 경사면과 고개를 통해 산맥 전체를 타고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신비로운 산맥 너머에는 산맥만큼이나 오래되고 변함없는 거대하고 높은 초고원(superplateau)이 자리 잡고 있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그 고원은 해발 20,000피트에 달하며, 얇은 빙하층 사이로 기괴한 암석들이 솟아 있고, 평탄한 고원 표면과 최고봉들의 가파른 절벽 사이에는 완만한 구릉지가 펼쳐져 있다.

이 데이터는 그 자체로 모든 면에서 사실이며, 캠프에 있던 대원들을 완전히 납득시켰다. 우리는 예정된 비행과 착륙, 정찰 및 암석 채집 일정보다 16시간이나 더 늦어진 이유에 대해, 신화 속 이야기처럼 지독한 강풍이 몰아쳤기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그리고 더 멀리 떨어진 산기슭에 착륙했다는 사실 또한 사실대로 전했다.

다행히도 우리의 이야기는 충분히 현실적이고 평범하게 들렸다. 덕분에 다른 이들이 우리처럼 비행에 나서는 무모한 짓을 따라 하려 들지는 않았다. 만약 누군가 시도했더라면, 나는 온 힘을 다해 그들을 만류했을 것이다. 덴포스가 어떻게 행동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우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패보디와 셔먼, 로프스, 맥타이어, 그리고 윌리엄슨은 레이크가 가진 가장 성능 좋은 비행기 두 대를 수리하느라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비행기의 작동 기제가 도무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뒤엉켜 있었음에도, 그들은 다시 비행기를 띄울 수 있도록 정비해 놓았다.

우리는 다음 날 아침 모든 비행기에 짐을 싣기로 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예전 기지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우회하는 경로이긴 했지만, 그것이 맥머도 사운드로 향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 영겁의 세월 속에 죽어버린 대륙의, 그 누구도 가본 적 없는 미지의 영역을 가로질러 직선으로 비행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위험을 수반했기 때문이다.

비극적인 인명 손실과 시추 장비의 파손을 고려하면 더 이상의 탐사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우리를 둘러싼 의구심과 공포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었으나, 그 압도적인 공포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한 가지만을 갈망하게 만들었다. 이 황량하고도 불길한 광기가 서린 남극의 세계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탈출하는 것뿐이었다.

* * * * *

대중에게 알려진 대로, 우리의 귀환은 더 이상의 재난 없이 이루어졌다. 모든 비행기는 쉬지 않고 빠르게 비행하여 다음 날인 1월 27일 저녁에 구 기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28일에는 두 차레에 걸쳐 맥머도 사운드에 도달했다. 거대한 고원을 벗어난 뒤 빙봉 위로 몰아치는 맹렬

한 바람 때문에 키가 고장 나는 일이 있었으나, 잠시 멈춘 시간은 매우 짧았다.

달새가 더 흐른 뒤, 아컴호와 미스카토닉호는 선원 전원과 모든 장비를 실은 채 두꺼워지는 유빙 지대를 벗어나 로스해를 향해 나아갔다. 서쪽으로는 빅토리아랜드의 산맥이 조롱하듯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위로 요동치는 남극의 하늘이 펼쳐졌다. 산맥 사이를 파고드는 바람은 울부짖으며 길게 늘어진 피리 소리 같은 곡조를 만들어냈는데, 그 소리는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서늘하게 얼려버렸다.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우리는 남극 대륙의 마지막 흔적을 뒤로하고 떠났다. 생명과 죽음, 공간과 시간이 뒤엉켜 검고 불경한 결탁을 맺은 저 저주받은 땅을 벗어났다는 사실에 우리는 하늘에 감사했다. 물질이 이 행성의 식어가는 지각 위에서 처음 꿈틀거리며 해엄치기 시작한 그 미지의 시대부터, 그곳은 이미 그러한 기괴한 결탁이 이루어진 땅이었다.

우리는 돌아온 이후로 남극 탐사를 만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또한 우리가 품게 된 특정한 의구심과 추측들은 우리만의 비밀로 간직하며, 놀라울 정도로 일치된 결속력과 충실함을 보여주었다. 신경 쇠약에 걸린 젊은 댄포스조차 주저하거나 의사들에게 횡설수설하며 실토하지 않았다.

이미 말했듯이, 그가 혼자서만 보았다고 믿는 것이 하나 있다. 그는 나에게조차 그 사실을 말해주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연다면 오히려 심리적 상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사실을 털어놓는다면 많은 의문이 풀리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물론 그가 본 것이 앞서 겪은 충격이 남긴 환각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그가 이성을 잃고 횡설수설하며 내게 속삭이는 드문 순간들을 지켜 보며, 나는 그런 인상을 받았다. 그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자신이 했던 말들을 격렬하게 부정하곤 한다.

거대한 백색의 남극으로 향하려는 다른 이들을 막아내는 일은 고된 작업이 될 것이다. 우리의 노력 중 일부는 오히려 불필요한 관심을 끌며, 우리가 추구하는 대의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 인간의 호기심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발표한 결과물이 미지의 세계를 쫓는 저 오래된 탐구의 길로 다른 이들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되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야 했다.

레이크가 보고한 그 생물학적 괴물들에 대한 기록은 박물학자들과 고생물학자들의 관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 매몰된 표본에서 떼어낸 파편들이나, 발견 당시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함부로 공개하지 않을 만큼 신중했다. 흉터가 가득한 뼈와 녹색 활석 조각들 중 특히 수수께끼 같은 것들도 보여주지 않으려 애썼다. 또한 댄포스와 나는 산맥 너머의 거대 고원지대에서 찍거나 그린 사진들, 그리고 우리가 공포에 질린 채 매만지고 연구하다가 주머니에 넣어 가져온 그 구겨진 형체들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하지만 이제 스타크웨더-무어 탐사대가 결성되고 있다. 그들은 우리 팀이 시도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철저하게 움직일 것이다. 막지

않는다면, 그들은 남극의 가장 깊은 해까지 파고들어, 세상을 끝장 낼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존재를 끌어낼 때까지 얼음을 녹이고 구멍을 뚫어낼 것이다. 그러니 나도 이제는 모든 침묵을 깨고 입을 열어야만 한다. 광기의 산맥 너머에 존재하는, 그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궁극의 존재에 대해서까지 말이다.

IV.

그것은 1930년 12월 12일, 남극의 어느 지점에서 발견된 일지였다. 댄포스가 쓴 이 기록은 우리가 조사한 그 모든 비극적인 사건의 중심에 놓여 있다.

그가 쓴 글을 읽다 보면, 그가 겪었을 공포가 마치 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각이 든다. 댄포스는 단순히 미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했고, 그 진실이 그의 정신을 잡아먹는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의 기록은 탐사대가 남극의 고원 지대로 진입하면서 시작된다. 그곳에서 그들은 인류의 역사보다 훨씬 이전의, 결코 알아서는 안 될 무언가를 마주하게 된다. 댄포스의 문장 사이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과, 차마 말로 다 옮기지 못한 경악이 서려 있다.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그 거대한 산맥 아래, 얼음 속에 갇힌 채 잠들어 있던 것은 무엇이었나? 댄포스의 일지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만, 그 답을 읽는 순간 우리는 차라리 무지했기를 바르게 될지도 모른다.

레이크의 캠프에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 끔찍한 산맥의 벽 너머에 실재하는 또 다른 존재에 대해 다시 떠올리려 하면, 나는 거대한 망설임과 혐오감에 휩싸인다.

나는 이미 바람에 짓이겨진 지형과 파손된 대피소, 어지럽게 널브러진 기계 장치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개들이 보인 온갖 불안한 기색과 사라진 썰매 및 물품들, 사람과 개들의 죽음, 게드니의 실종에 대해서도 말해 두었다. 또한 구조적 손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질감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온전했던, 사천만 년 전의 죽은 세계에서 온 여섯 구의 광기 어린 생물 표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들의 사체를 확인하던 중 개 한 마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내가 말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에는 그 사실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실, 나중이야 비로소 뎀포스와 나만이 그 일을 떠올렸을 뿐이다.

내가 지금까지 차마 밝히지 못하고 숨겨온 핵심적인 사실들은 그 사체들에 관한 것이다. 또한, 겉보기에 무질서해 보이는 그 혼돈에 끔찍하고도 믿기 힘든 논리적 근거를 부여할지도 모를, 몇 가지 미묘한 지점들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당시 나는 대원들이 그 사실에 매달리지 않도록 애를 썼다. 모든 일을 레이크 일행 중 누군가가 미쳐버린 탓으로 돌리는 편이 훨씬 간단하고, 훨씬 정상적인 설명이었기 때문이다. 상황을 보건대, 지상의 모든 신비와 황량함이 응축된 이 중심부에서 그 악마 같은 산바람을 마주한다면 그 어떤 인간이라도 미쳐버리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끔찍한 이상 현상은 시신들의 상태였다. 인간과 개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마찬가지였다. 시신들은 무언가 끔찍한 충동을 겪은 듯 보였으며, 악마가 휘두른 듯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갈가리 찢기고 짓이겨져 있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모든 시신은 목이 졸리거나 살점이 찢겨 나가는 방식으로 사망한 것이 분명했다.

사고의 발단은 분명 개들이었다. 조잡하게 만들어진 개사(犬舍)의 상태를 보니, 안쪽에서부터 강제로 부수고 나온 흔적이 역력했기 때문이다. 그 지옥 같은 고대 유기체들을 향한 개들의 증오심 때문에 개사는 캠프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했으나, 그런 예방 조치도 결국 헛수고였던 모양이다. 높이도 낮고 벽도 허술한 그곳에, 그 괴물 같은 바람 속에 개들을 홀로 내버려 두었으니 필시 날뛰었을 것이다. 그 게 단순히 몰아치는 바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악몽 같은 표본들로부터 풍겨 나오는, 점점 짙어지는 기묘한 악취 때문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 * * * *

무슨 일이 일어났든 간에, 그것은 충분히 끔찍하고 역겨운 일이었다. 어쩌면 나는 이제 그만 메스꺼움을 떨쳐내고 마침내 가장 최악의 사실을 털어놓는 편이 나올지도 모른다. 다만 덴포스와 내가 직접 목격한 사실과 엄격한 추론을 바탕으로 한 단호한 의견을 덧붙여야겠다. 당시 실종되었던 게드니는 우리가 발견한 그 혐오스러운 공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사체들이 끔찍하게 훼손되었다고 앞서 말한 바 있다. 이제 덧붙여야 할 사실은, 일부 사체들은 매우 기이하고 냉혹하며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절개되어 그 일부가 도려내졌다는 점이다. 개나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네 발로 걷든 두 발로 걷든, 상태가 더 양호하고 살집이 두터운 사체들은 마치 숙련된 도축업자가 작업한 것처럼 가장 단단하고 밀도 높은 조직 부위가 통째로 잘려 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비행기에 실려 있다가 약탈당한 식량 상자에서 나온 소금이 기묘하게 뿌려져 있었는데, 그 모습은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한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그 일은 비행기를 끌어냈던 조잡한 비행기용 격납고 중 한 곳에서 벌어졌다. 그 후 몰아친 바람은 그 어떤 합리적인 가설도 세울 수 없도록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 인체 절개 부위에서 거칠게 찢겨 나간 옷가지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으나, 그것들 역시 아무런 단서도 제공하지 못했다.

폐허가 된 울타리의 한 구석, 보호된 공간에 남겨진 희미한 눈 발자국에 대한 어렴풋한 인상을 다시 꺼내어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 흔적은 인간의 발자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쌍한 레이크가 지난 몇 주 동안 줄곧 늘어놓았던 화석 발자국에 관한 이야기들과 명백히 뒤섞여 버린 기억이었다. 저 거대한 광기의 산맥이 드리운 그림자 아래에서는, 자신의 상상력이 멋대로 날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만 했다.

이미 언급했듯이, 결국 게드니와 개 한 마리가 행방불명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끔찍한 은신처에 도착했을 당시, 우리는 이미 개 두 마리

와 대원 두 명을 잃은 상태였다. 하지만 거대한 무덤들을 조사한 뒤 들어선 해부용 천막은, 다행히 큰 손상은 입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 안에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레이크가 남겨두었던 모습 그대로가 아니었다. 임시로 마련한 탁자 위에서, 그 태고의 괴물 중 덮여 있던 부분들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이미 깨닫고 있었다. 우리가 발견한 여섯 구의 불완전하고 광기 어린 사체 중 하나, 즉 기묘할 정도로 증오스러운 악취가 배어 있던 그 사체가 바로 레이크가 분석하려 했던 개체의 조각들을 모아 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실험대 위와 그 주변에는 다른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것들이 인간 한 명과 개 한 마리를 기이하고도 서투른 솜씨로, 그러나 아주 세밀하게 해부해 놓은 부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살아남은 이들의 심정을 고려하여,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는 언급하지 않겠다.

레이크의 해부 도구들은 사라졌으나, 누군가 정성껏 닦아낸 흔적은 남아 있었다. 가솔린 스토브 역시 자취를 감췄지만, 그 주변에는 성냥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우리는 인간의 유해를 다른 열 명의 대원 곁에 묻었고, 개의 유해는 나머지 서른다섯 마리의 개들과 함께 묻었다. 실험대 위에 남겨진 기괴한 얼룩과, 그 근처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삽화가 들어간 책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망연자실해 있었다.

캠프에서 벌어진 일 중 가장 끔찍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으나, 이와 못지않게 당혹스러운 일들이 또 있었다. 게드니의 실종과 개 한 마리의 행방, 부상 없는 생물 표본 여덟 개, 썰매 세 대, 그리고 각종 장비의 실종은 도저히 상식적인 추측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기술 및 과학 서적, 필기구, 전등과 배터리, 식량과 연료, 난방 장치, 여분의 텐트, 모피 옷 등도 모두 사라졌다. 종이 위에 잉크가 튀어 얼룩진 자국들 또한 기이했다. 캠프와 시추 현장 곳곳의 비행기와 모든 기계 장치에서는 정체 모를 외계의 존재가 무언가를 더듬고 실험한 듯한 흔적이 역력했다. 개들은 이 기묘하게 어지럽혀진 기계들을 혐오하는 듯 보였다.

식료품 저장고가 뒤엎어져 있었고, 필수 식량들도 사라져 있었다. 게다가 도저히 그럴 리 없는 장소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묘한 방식으로 억지로 따버린 통조림 캔들이 우스꽝스러운 정도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여기저기 흩어진 성냥들도 또 다른 작은 수수께끼였다. 성냥들은 온전한 것도 있었고, 부러진 것도 있었으며, 이미 다 써 버린 것도 있었다. 텐트 천과 모피 옷 두세 벌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 표면에는 기이하고 정통적이지 않은 칼자국들이 나 있었다. 아마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개조하려다 서투르게 그어댄 흔적일 것이다.

인간과 개의 사체를 훼손한 행위, 그리고 손상된 시생누대 표본들을 광기 어린 방식으로 매장한 일은 모두 이 명백한 붕괴적 광기와 맥을 같이 했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캠프 내에서 발견된 광기 어린 무질서의 주요 증거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사진으로 남겼다. 이 사진들은 예정된 스타크웨더-무어 탐사대의

출발을 저지하기 위한 우리의 간청을 뒷받침할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대피소에서 시신들을 발견한 뒤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오각 형태의 눈더미가 덮인 광기 어린 무덤들을 사진으로 찍고 파헤치는 것이었다. 점들이 무리 지어 박힌 그 괴상한 눈더미들을 보며, 우리는 불행한 레이크가 묘사했던 기묘한 녹색 비누석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거대한 광물 더미 속에서 실제 비누석들을 발견했을 때, 그 유사성이 실로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인 형상이 마치 태고의 존재들이 가진 불가사리 모양의 머리를 끄적할 정도로 연상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겠다. 우리 모두는 그 기괴한 형상이 극도로 예민해진 레이크 일행의 정신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게드니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아 그런 짓을 저질렀을 수 있는 장본인이라는 전제하에, 그가 미쳐버렸다는 설명은 적어도 입 밖으로 내뱉는 말에 관한 한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이성으로는 차마 온전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추측들을 마음 속에 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까지 부정할 만큼 내가 순진하지는 않다.

그날 오후, 셔먼과 패보디, 그리고 맥타이어는 비행기를 타고 주변 지역 전체를 살살이 수색했다. 그들은 쌍안경으로 지평선 끝까지 훑으

며 게드니와 실종된 물건들을 찾아 헤맸으나, 끝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탐사대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은 산맥이 좌우로 끝없이 뻗어 있다고 보고했다. 산맥은 높이나 구조 면에서 전혀 줄어드는 기색 없이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일부 봉우리에서는 정교한 입방체와 성벽 모양의 지형이 더욱 뚜렷하고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 모습은 마치 로리치가 그린 아시아의 산악 유적을 두 배는 더 기괴하게 닮아 있었다. 검은 눈에 덮이지 않은 봉우리들에는 정체 모를 동굴 입구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산맥을 따라 추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분포가 대략 일정해 보였다.

우리를 짓누르는 공포가 그토록 거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미지의 영역을 향한 순수한 과학적 열망과 모험심이 남아 있었다. 그 신비로운 산맥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남긴 신중한 메시지에도 적혀 있듯이, 공포와 당혹감으로 점철된 하루를 보낸 우리는 자정 무렵에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부터 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생각이었다. 경량 비행기에 항공 카메라와 지질학 장비를 싣고, 산맥을 가로지르는 고고도 비행을 한 차례 혹은 그 이상 시도해 보기로 잠정적인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다.

덴포스와 내가 먼저 시도해 보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이른 출발을 목표로 오전 7시에 잠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외부 세계에 보낸 짧은 보

고서에도 언급했듯이, 강한 바람 때문에 출발은 오전 9시가 다 되어서야 겨우 이루어졌다.

우리는 16시간 뒤에 돌아온 후, 캠프의 대원들에게는 확답을 피하는 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외부에도 그 정도의 내용만을 전했다. 하지만 이제 나에게는 끔찍한 의무가 하나 남았다. 그 산맥 너머 숨겨진 세계에서 우리가 실제로 목격한 것들, 즉 댜포스를 결국 신경쇠약으로 몰아넣은 그 경악스러운 계시들을 암시함으로써, 자비롭게 비워두었던 이 기록의 빈틈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의무 말이다.

그가 홀로 목격했다고 믿는 그 존재에 대해, 차라리 솔직한 말을 덧붙여 주었으면 좋겠다. 비록 그것이 신경쇠약이 불러온 환각이었을지라도 말이다. 어쩌면 그 환각이야말로 그를 지금의 처지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계기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그 부분만큼은 결코 입을 열지 않으려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가 나중에 횡설수설하며 내뱉은 속삭임들을 되풀이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함께 겪은 그 실재적이고도 명백한 충격 이후, 비바람에 갇힌 산맥의 고개를 비행기로 가로질러 돌아오던 중 그를 비명 지르게 만들었던 그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 말이다.

이것으로 나의 마지막 말을 마친다. 내가 밝히는 내용 속에 남겨진 옛존재들의 흔적만으로도, 다른 이들이 남극의 내륙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막기에 부족하다면—적어도 금기된 비밀과 비인간적이며 영겁의 저주를 받은 황무지, 그 끝없는 황량함의 표면을 너무 깊이 파헤치지 못하게 막기에 부족하다면—그로 인해 초래될 이름 붙일 수 없

는, 어쩌면 헤아릴 수조차 없는 재앙의 책임은 결코 나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덴포스와 나는 패보디가 오후 비행 중에 남긴 기록을 검토하고 육분의로 수치를 대조했다. 그 결과, 산맥에서 통과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고개의 위치를 계산해 냈다. 그곳은 우리로부터 약간 오른쪽에 있었으며, 캠프에서도 시야에 들어오는 거리였다. 해발 고도는 약 23,000피트에서 24,000피트 사이로 추정되었다. 우리는 이 지점을 첫 목표로 삼고, 발전을 위한 비행에 나서기 위해 경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캠프가 자리 잡은 곳은 높은 대륙 고원에서 뻗어 나온 산기슭이었으며, 해발 고도는 약 12,000피트에 달했다.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올라가야 할 높이는 생각만큼 그리 엄청난 차이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고도가 높아질수록 희박해지는 공기와 매서운 추위가 피부로 생생하게 느껴졌다.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선실 창문을 열어두어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연히 가장 두꺼운 모피 옷을 꺼입은 상태였다.

빙하가 갈라진 설원과 그 사이를 메운 빙하들 위로, 어둡고 불길한 봉우리들이 위압적으로 솟아 있었다. 우리가 그 험준한 산맥에 가까워질수록, 산비탈에 달라붙은 기묘할 정도로 규칙적인 형상들이 눈에 점점 더 뚜렷하게 들어왔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니콜라스 로리치의 기이한 아시아풍 회화들을 다시금 떠올렸다.

풍화에 깎인 고대의 암층은 레이크가 보낸 모든 보고를 완벽히 뒷받침했다. 이 기괴한 봉우리들은 지구 역사의 놀라운 정도로 이른 시기, 어쩌면 5천만 년도 더 된 옛날부터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뚝 솟아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과거에 이 봉우리들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높았을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다만 이 기묘한 지역의 모든 정황은, 대기 상태가 매우 불분명하여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즉, 암석이 부서지는 일반적인 기후 작용을 늦추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매료시키면서도 동시에 불안하게 만든 것은, 산비탈을 뒤덮은 정교한 입방체들과 성벽, 그리고 동굴 입구들이 뒤엉킨 기괴한 광경이었다. 나는 망원경으로 그 형체들을 면밀히 관찰했고, 댄포스가 조종하는 동안 항공 사진을 찍었다. 때로는 댄포스가 망원경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조종간을 대신 잡기도 했다. 비록 나의 항공 지식은 그저 아마추어 수준에 불과했지만 말이다.

그것들을 구성하는 물질의 상당 부분은 연한 빛깔을 띤 시생누대 규암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었다. 이는 일반적인 지표면의 광활한 구역에서 볼 수 있는 지층과는 전혀 다른 종류였다. 또한 그 구조가 보여주는 규칙성은 극도로 정교했으며, 불쌍한 레이크가 미처 암시하지 못했을 만큼 기괴하고도 섬뜩한 수준이었다.

그의 말대로, 모서리들은 헤아릴 수 없는 영겁의 세월 동안 거친 풍파를 겪으며 깎이고 둥글게 마모되어 있었다. 하지만 초자연적일 만큼 견고한 강도와 질긴 재질 덕분에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고 형태를 유지

할 수 있었다. 특히 경사면과 맞닿은 부분의 많은 곳은 주변 암석 표면과 그 성분이 완전히 동일해 보였다.

그 모든 구조물은 안데스산맥의 마추픽추 유적을 연상시켰다. 혹은 1929년 옥스퍼드-필드 박물관 탐사대가 발굴해낸 키시의 태고적 기초 벽처럼 보이기도 했다. 댄포스와 나 역시, 레이크가 그의 동행자 캐롤에게서 느꼈다고 말했던 그 기묘한 인상을 문득문득 받았다. 거대한 사이클롭스식 석재들이 제각기 떨어져 놓인 듯한 그 느낌 말이다.

이곳에서 마주한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솔직히 막막했다. 지질학자로서 형언할 수 없는 무력감마저 느껴졌다. 화성암 지형에는 아일랜드의 유명한 '자이언츠 코즈웨이'처럼 기묘할 정도로 규칙적인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거대한 산맥은 달랐다. 처음에는 화산의 연기 뿜는 원뿔 모양일지도 모른다던 레이크의 의구심과는 달리, 그 구조는 무엇보다도 화산 활동과는 전혀 무관해 보였다.

기이한 지형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곳 근처에는 특이한 동굴 입구들이 있었는데, 이 입구들 또한 또 다른 수수께끼를 던져주었다. 다만 입구들의 윤곽이 워낙 규칙적이었기에 앞선 수수께끼보다는 덜 난해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레이크의 보고서에 기술된 대로, 동굴 입구들은 대개 정사각형이나 반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마법 같은 손길로 자연적인 구멍들을 대칭에 맞춰 정교하게 다듬어 놓은 듯했다. 동굴 입구의 수가 워낙 많고 넓게 퍼져 있다는 점도 놀라웠다. 이는 이 지역 전체가 석회암 지층을 녹여 만든 수많은 터널로 벌집처럼 얹혀 있음을 암시했다.

우리가 겨우 확보한 시야는 동굴 깊숙한 곳까지 닿지는 못했다. 하지만 동굴 내부에는 종유석이나 석순이 거의 없는 듯 보였다. 동굴 입구와 맞닿은 산비탈은 예외 없이 매끄럽고 규칙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 댄포스는 풍화 작용으로 생긴 미세한 균열과 구멍들이 기묘한 문양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다.

캠프에서 발견한 공포와 기이한 광경들에 압도된 그는, 그 구멍들이 태고의 초록빛 비누석 위에 흩뿌려진 난해한 점무늬들과 막연하게 닮았다고 넌지시 말했다. 그 점무늬는 매몰된 여섯 괴물 위로 미친 듯이 솟아오른 눈더미 위에도 끔찍할 정도로 똑같이 재현되어 있었다.

* * * * *

우리는 고도가 높은 산기슭을 지나 우리가 미리 정해둔 비교적 낮은 고개의 방향으로 서서히 고도를 높여 비행했다. 전진하는 동안 우리는 이따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육로를 바라보며, 예전처럼 더 단순한 장비만 가지고도 이 여정을 시도할 수 있었을지 자문하곤 했다.

우리는 예상외로 지형이 그리 험난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소 놀랐다. 크레바스와 몇몇 험한 지점들이 있긴 했지만, 스코티나 새클턴, 혹은 아문센의 썰매 부대가 지나가기에 무리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 어떤 빙하들은 바람이 몰아치는 고개까지 끊임 없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듯 보였다. 우리가 선택한 고개에 도착했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산맥의 능선을 넘어 미지의 세계를 마주하기 직전, 우리가 느꼈던 그 팽팽한 긴장감과 기대감은 글로 다 설명하기조차 어렵다. 설령 그 너머의 지형이 우리가 이미 지나온 곳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해도 말이다.

장벽처럼 가로막은 이 산맥들과, 산봉우리 사이로 언뜻 비치는 유백색 하늘의 일렁이는 바다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신비로움은 매우 미묘하고도 희미한 것이어서, 단순히 사실적인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것은 차라리 모호한 심리적 상징이자 미학적 연상에 가까웠다. 이질적인 시와 그림, 그리고 기피되고 금기시된 고서 속에 숨어 있는 고대의 신화들과 뒤섞인 무언가였다.

바람이 실어 오는 소리조차 기묘하게 의도적인 악의를 품고 있는 듯했다. 돌풍이 사방에 깔린 공명하는 동굴 입구 사이로 드나들 때마다, 그 복합적인 소음 속에는 기괴한 휘파람 소리나 피리 소리 같은 음조가 넓은 음역대에 걸쳐 섞여 들어오는 것만 같았다. 그 소리에는 마치 과거의 불쾌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듯한 흐릿한 거부감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앞서 느꼈던 다른 어두운 인상들처럼, 복잡하고도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다.

천천히 고도를 높인 끝에, 우리는 마침내 고도 23,570피트에 도달했다. 아네로이드 기압계가 가리키는 수치였다. 발아래로는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던 눈발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다. 이곳에는 어둡고 벌거숭이인 암벽 경사면과 울퉁불퉁한 능선이 시작되는 빙하뿐이었다. 하지만 기묘한 입방체들과 성벽 같은 암석, 그리고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동굴

입구들이 곳곳에 나타나며, 이곳이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이며 꿈결 같은,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공간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높게 솟은 봉우리들을 따라 시선을 던지자, 불행한 레이크가 언급했던 그 산이 보였다. 산꼭대기에는 성벽 같은 능선이 정확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모습은 기묘한 남극의 안개 속에 반쯤 잠겨 있는 듯했다. 아마도 그 안개 때문에 레이크가 초기에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고 착각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고개 너머로 험준하고 불길하게 찌푸린 기둥들 사이로, 매끄럽게 깎인 협곡이 우리 눈앞에 거대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협곡 너머의 하늘에는 소용돌이치는 증기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고, 낮게 뜬 극지의 태양이 그 위를 비추고 있었다. 그곳은 인간의 눈길이 단 한 번도 닿은 적 없으리라 확신하게 만드는, 신비롭고도 아득한 미지의 영역이었다.

고도를 몇 피트만 더 높였다면 우리는 그 영역을 마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협곡을 타고 몰아치는 바람은 울부짖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엔진의 굉음과 뒤섞여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다. 댄포스와 나는 그 소음 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기에, 서로를 향해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은 눈빛을 교환했다. 마침내 마지막 몇 피트의 고도를 더 확보하자, 우리는 정말로 그 거대한 절벽 너머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곳에는 아직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완전히 이질적인 지구의 비밀들이 펼쳐져 있었다.

V.

그것은 내가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댄포스가 그 기괴한 유적의 입구에서 보았던 것은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체였다.

그 유적의 거대한 입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입처럼 벌어져 있었다. 그 입구는 마치 무언가를 삼키기 위해 기다리는 듯한 불길한 기운을 뿜어냈다. 댄포스는 그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고 했다. 그가 본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하학적으로 뒤튼린 구조물이었다.

그 구조물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내장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의지를 가진 존재의 일부처럼 보였다. 댄포스는 그곳에서 느낀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질식할 것만 같았다고 회상했다. 그 유적은 단순히 죽어있는 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는, 어떤 불길한 힘의 잔재였다.

마침내 협곡을 벗어나 그 너머에 펼쳐진 광경을 마주했을 때, 우리 둘은 동시에 비명을 내질렀다. 그것은 경외와 경탄, 공포와 더불어 자신의 감각조차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뒤섞인 외침이었다. 물론 그 순간만큼은 이성을 붙잡기 위해 머릿속으로 나름의 이론을 세우며 버텨야만 했다. 아마도 우리는 콜로라도의 '신의 정원'에 있는 기괴하게 풍화된 암석들이나, 애리조나 사막에서 바람이 깎아 만든 환상적이고 대칭적인 바위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어쩌면 그 광경을 보고, 이 광기의 산맥에 처음 다가섰던 그날 아침에 보았던 신기루가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끝없이 펼쳐진, 폭풍에 깔여 나간 고원을 눈에 담을 때 우리는 무언가 평범한 관념이라도 매달려야만 했다. 그곳에는 거대하고 규칙적이며, 기하학적 조화를 이룬 석조 덩어리들이 미로처럼 끝없이 얹혀 있었다. 그 돌무더기들은 부서지고 구멍이 숭숭 뚫린 꼭대기를 치켜세운 채, 빙하 위로 솟아 있었다. 빙하는 가장 두꺼운 곳조차 고작 40~50피트 남짓이었고, 곳곳에서는 그보다 훨씬 얇아 보였다.

그 괴물 같은 광경이 불러일으킨 충격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 처음 마주한 순간부터, 이미 알려진 자연 법칙을 악랄하게 위반한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해발 2만 피트에 달하는, 지옥처럼 오래된 이 고원에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기후가 흐르고 있었다. 적어도 50만 년 전, 인류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그랬다. 그곳에는 시야가 닿는 끝까지 질서 정연하게 얹힌 석조 구조물들이 펼쳐져 있었다. 정신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들지 않는다면, 이 구조물들이 의도를 가진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삽화: 그 괴물 같은 광경이 불러일으킨 충격은 필설로 다할 수 없었다! 그것은 자연 법칙을 잔혹하게 유린한 무언가였다!]

우리는 그동안 산비탈을 이루는 입방체 모양의 구조물과 성벽 같은 지형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모든 가설을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치부해 왔다. 하지만 이 지역이 지금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빙하의 죽음 아래 놓이게 된 그 시절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유인원과 겨우 구분될 수 있을 정도였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어찌 그것들이 자연물일 수 있겠는가.

이제 이성의 지배력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흔들리고 있었다. 사각형과 곡선, 그리고 각진 돌덩이들이 뒤엉킨 이 거대한 미로에는, 인간이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구석이라곤 전혀 없는 기괴한 형상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신성모독적인 그 신기루의 도시는 이제 환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하고도 실재적이며, 피할 수 없는 현실로서 그곳에 존재했다.

결국 그 저주스러운 전조에는 물질적인 근거가 있었던 셈이다. 상층 대기에 수평으로 깔린 얼음 먼지 층이 있었고, 이 충격적인 석조 유적의 형상이 단순한 반사의 법칙에 따라 산맥 너머로 투영되었던 것이다. 물론 환영은 왜곡되고 과장되었으며, 실체에는 없는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실체를 직접 마주하게 된 우리는, 멀리서 보았던 환영보다 눈앞의 실체가 훨씬 더 흥측하고 위협적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삽화: 그것은 분명 신성모독적인 신기루의 도시였다. 그 황량하고도 실재적인 모습 그대로!]

이 거대하고 비인간적인 석조 탑과 성벽의 압도적인 규모만이, 그 끔찍한 존재를 보존할 수 있었다. 황량한 고원의 칼바람 속에서 수십만 년, 어쩌면 수백만 년 동안 그곳을 맴돌던 그 존재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을 막아준 것은 오직 이 거대한 구조물뿐이었다. "코로나 문디

(Corona Mundi)——세계의 지붕……." 믿기지 않는 광경을 내려다보며 우리는 어지러움 속에서 온갖 환상적인 문구들을 내뱉었다.

이 죽어버린 남극의 세계를 처음 마주한 이래로, 나를 끊임없이 괴롭혀온 기괴하고 원초적인 신화들을 다시금 떠올렸다. 악마적인 령의 고원, 미고, 혹은 히말라야의 설인들. 인류 이전의 존재들을 암시하는 프나코틱 사본과 크툴루 교단, 그리고 네크로노미콘. 형체 없는 차토 구아와 그 반신(半神)적 존재에 결부된, 형체보다 더 끔찍한 별의 자손들에 관한 하이퍼보리아의 전설들까지.

* * * * *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진 그 거대한 구조물은 멀리 나아갈수록 좁아지는 기색조차 거의 없었다. 실제로 우리가 들어온 고개의 왼쪽에서 끊긴 부분을 제외하면, 산맥의 가장자리와 완만하게 이어진 낮은 구릉의 밑단을 따라 좌우로 시선을 옮겨보아도 폭이 줄어드는 곳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무한히 거대한 무언가의 극히 일부분을 우연히 마주했을 뿐이었다.

산기슭에는 기괴한 석조 구조물들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다. 이 구조물들은 저 끔찍한 도시와, 산맥의 전초기지로 쓰였음이 분명한 입방체 모양의 건물 및 성벽들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었다. 이 전초기지 건물들과 기묘한 동굴 입구들은 산맥의 안쪽과 바깥쪽 모두에 뺨뺨하게 들어서 있었다.

이 이름 없는 돌 미로의 대부분은 높이 10피트에서 150피트에 이르는 얼음처럼 투명한 벽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벽의 두께는 5피트에서 10피트 사이로 제각각이었다. 미로를 구성하는 것은 주로 어둡고 태고의 기운을 머금은 점판암과 편암, 그리고 사암으로 된 거대한 암석 덩어리들이었다. 많은 경우 이 암석들은 $4 \times 6 \times 8$ 피트 크기에 달할 만큼 거대했다. 다만 몇몇 곳에서는 이 미로가 선캄브리아기 점판암으로 이루어진, 울퉁불퉁하고 단단한 기반암을 통째로 깎아 만든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건물들의 크기는 제각각이었다. 거대한 규모로 끝없이 이어진 벌집 모양의 구조물들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작은 독립된 건축물들도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이 건축물들은 대체로 원뿔이나 피라미드, 혹은 계단식 구조를 띠고 있었다. 물론 완벽한 원기둥이나 정육면체, 정육면체가 뭉쳐진 형태, 그리고 그 외의 직사각형 구조물들도 많았다. 또한 현대의 요새를 연상시키는 오각형 평면의 기묘한 각진 건물들도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다. 건축자들은 아치 원리를 끊임없이, 그리고 능숙하게 활용했으며, 도시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에는 아마도 돔 형태의 건물들도 존재했을 것이다.

뒤엎긴 구조물 전체는 기괴할 정도로 풍화되어 있었다. 탑들이 솟아 오른 빙하 표면에는 무너져 내린 암석 덩어리와 아득한 옛날부터 쌓인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다. 빙하가 투명하게 비치는 곳에서는 거대한 돌 무더기의 아랫부분이 보였고, 지면으로부터 제각기 다른 높이에 떠 있

는 탑들을 연결하는, 얼음에 갇힌 석조 다리들도 눈에 들어왔다. 노출된 벽면에는 이와 같은 형태의 더 높고 다른 다리들이 존재했음을 짐작게 하는 흉터 같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가까이서 살펴보니 커다란 창문이 셀 수 없이 많이 달려 있었다. 그 중 일부는 본래 나무였을 법한 화석화된 물질로 덧창이 닫혀 있었으나, 대부분은 불길하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입을 벌린 채 방치되어 있었다.

물론 폐허 중 상당수는 지붕이 없었다. 바람에 깎여 둥글게 마모되었으나 그 윗부분은 울퉁불퉁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반면 원뿔이나 피라미드 모양을 띤 건물, 혹은 더 높은 주변 구조물에 보호받는 건물들은 사방에 널린 부식과 구멍들 속에서도 그 윤곽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우리는 망원경을 통해 수평 띠 모양으로 새겨진 조각 장식들을 간신히 식별할 수 있었다. 그 장식들 중에는 기묘한 점들의 집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고대의 활석에 새겨진 그 점들의 존재는 이제 훨씬 더 거대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곳곳의 건물들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고, 빙판은 여러 지질학적 원인으로 인해 깊게 갈라져 있었다. 어떤 곳은 석조 구조물이 빙하가 덮이기 시작한 지점의 높이까지 깎여 내려가 있었다. 우리가 지나온 고개의 왼쪽으로 약 1마일 떨어진 산기슭의 갈라진 틈까지, 고원 내부에서부터 길게 이어진 넓은 구역에는 건물이 전혀 없었다. 우리는 그곳이 아마도 거대한 강줄기였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수백만 년 전인 제3기에는 그 강이 도시를 가로질러 거대한 장벽 산맥의 엄청난 지하 심연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곳이 무엇보다도 동굴과

협곡, 그리고 인간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지하의 비밀들이 도사리는 영역이라는 사실이었다.

* * * * *

우리가 느꼈던 감각들을 되짚어본다. 인류 이전의 시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영겁의 세월 속에서 살아남은 저 기괴한 존재를 목격했을 때, 우리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물론 연대기든, 과학적 이론이든, 혹은 우리 자신의 의식이든, 무언가가 처참할 정도로 뒤틀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비행기를 조종하고, 수많은 광경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며, 훗날 우리 자신과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사진들을 신중하게 찍어낼 수 있을 만큼의 침착함을 유지했다.

나의 경우에는 몸에 밴 과학적 습관이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나를 당혹스럽게 하고 위협을 느끼게 했던 감정들 너머에는, 이 오래된 비밀을 더 깊이 파헤치고 싶다는 강렬한 호기심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 이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장소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이토록 독특하게 밀집된 생명체가 당대의 세계나 혹은 다른 시대의 세계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고 싶었다.

이곳은 결코 평범한 도시일 리 없었다. 이곳은 지구 역사의 어느 고대적이고도 믿기 힘든 장(章)을 이루는 핵심 핵이자 중심지였음이 분명했다. 그 영향력은 가장 모호하고 왜곡된 신화 속에서나 희미하게나

마 기억될 뿐이었다. 우리가 아는 인류가 아직 세상에 발을 내딛기도 훨씬 전, 지구의 격동이 몰고 온 혼돈 속에서 그 흔적은 이미 완전히 사라져 버린 상태였다.

그곳에는 고생대의 거대 도시가 펼쳐져 있었다. 전설 속의 아틀란티스와 레무리아, 코모리오움과 울줄다름, 그리고 로마르 땅의 올라토에 같은 곳들은 이 거대 도시에 비하면 그저 오늘날의 것들에 불과했으며, 어제의 것이라고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최근의 존재였다. 이 도시는 발루시아, 르리에, 므나르 땅의 이브, 그리고 아라비아 데세르타의 이름 없는 도시처럼, 속삭임으로만 전해지는 인류 이전의 불경한 존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대 도시였다.

삭막한 타이탄의 탑들이 뒹잉킨 그 위를 비행할 때면, 나의 상상력은 때때로 모든 한계를 벗어나곤 했다. 나는 환상적인 연상들이 뒤섞인 영역 속을 정처 없이 떠돌았다. 심지어 캠프에서 목격한 그 미친 공포와, 내가 품었던 가장 황당한 꿈들을 서로 연결하며 기괴한 연관성을 엮어내기도 했다.

기체의 무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연료 탱크를 절반 정도만 채워둔 상태였다. 그래서 우리는 탐사 과정에서 매 순간 조심스럽게 움직여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활한 지역을 훑어 내려갔다. 바람의 영향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낮은 고도로 급강하하자, 우리가 가로지른 거리는 실로 엄청났다.

산맥은 끝이 보이지 않는 듯했다. 산맥의 안쪽 기슭을 따라 늘어선 그 소름 끼치는 석조 도시 또한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었다. 동서남북 어

느 방향으로든 50마일을 날아갔으나, 영겁의 얼음 속에서 시체처럼 솟아오른 바위와 석조물들의 미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눈을 떼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인 광경도 있었다. 한때 넓은 강줄기가 산기슭을 뚫고 흘러 거대한 산맥의 저지대로 내려가던 그 협곡에는 기이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다.

시냇물이 시작되는 입구의 곳은 거대한 사이클롭스식 기둥 모양으로 대담하게 깎여 있었다. 울퉁불퉁한 통 모양의 그 문양들은 댄포스와 내 모두에게 기묘하고 막연하며, 증오스럽고도 혼란스러운 기억의 파편들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별 모양으로 된 여러 개의 빈터도 발견했다. 분명 광장 용도로 쓰였을 법한 곳들이었다. 지형 곳곳에는 기묘한 굴곡들이 이어져 있었다. 가파른 언덕이 솟아오른 곳은 대개 돌로 만든 복잡한 건축물 형태로 파여 있었으나, 적어도 두 군데는 예외였다. 그중 하나는 풍화가 너무 심하게 진행되어 돌출된 언덕 위에 무엇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나머지 하나에는 암반을 깎아 만든 기괴한 원뿔형 기념물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것은 고대 페트라 계곡에 있는 유명한 뱀의 무덤과 흡사한 모습이었다.

산맥에서 내륙을 향해 비행하며 확인한 결과, 그 도시의 폭은 무한하지 않았다. 산기슭을 따라 뻗은 도시의 길이는 끝이 없어 보였으나 말이다. 약 30마일을 더 나아가자 기괴한 석조 건물들이 드문드문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시 10마일을 더 가자 지적 생명체의 흔적이라곤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끝없는 황무지가 나타났다. 도시 너머로 흐르는

강의 경로는 넓고 움푹 파인 선을 따라 형성된 듯 보였으며, 지형은 한 층 더 험준해졌다. 안개 낀 서쪽으로 멀어질수록 땅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조금씩 높아지는 듯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직 착륙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 거대한 구조물 중 하나라도 들어가 보려는 시도 없이 이 고원을 떠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항로를 확보할 수 있는 통로 근처의 산기슭에서 평탄한 지형을 찾아내기로 했다. 그곳에 비행기를 착륙시킨 뒤, 도보로 탐사를 시작할 준비를 하기로 결정했다.

완만한 경사면 곳곳에는 유적의 잔해들이 흩어져 있었으나, 고도를 낮추자 착륙할 만한 장소가 꽤 많이 보였다. 우리는 고개를 넘어 다시 캠프로 돌아와야 했기에, 협곡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착륙지로 택했다. 오후 12시 30분경, 우리는 장애품이 전혀 없고 지면이 매끄럽고 단단한 설원 위에 무사히 내려앉았다. 나중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륙하기에도 아주 적합한 곳이었다.

이 정도 고도에서는 강풍도 불지 않고 날씨도 평온했기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머물 비행기를 눈더미로 덮여 보호할 필요는 없어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착륙용 스키가 안전하게 고정되었는지, 그리고 기계의 핵심 부품들이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었지만 확인했다.

도보로 이동하기 위해 우리는 가장 무거운 비행용 모피를 벗어 던졌다. 대신 휴대용 나침반, 수동 카메라, 가벼운 식량, 두툼한 공책과 종

이, 지질학용 망치와 정, 시료 주머니, 등반용 로프 한 뭉치, 그리고 여분의 배터리를 갖춘 강력한 전기 손전등 등 소규모 장비만을 챙겼다. 이 장비들은 혹시라도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해 비행기에 실어 두었던 것들이다. 착륙에 성공한다면 지형 사진을 찍고, 그림이나 지형도를 그리며, 노출된 경사면이나 암석 노출지, 혹은 산속 동굴에서 암석 시료를 채집할 계획이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찢어서 쓸 수 있는 여분의 종이가 충분히 있었다. 우리는 이 종이를 예비용 표본 봉투에 넣어 두었다가, 혹시라도 내부 미로를 통과해야 할 상황이 오면 '술래잡기' 식의 고전적인 방법으로 경로를 표시하는 데 쓰기로 했다. 평소처럼 바위를 깎아 길을 만드는 대신, 종이를 이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흔적을 남기려는 계획이었다. 만약 공기가 충분히 정지해 있어 종이가 날리지 않는 동굴 시스템을 발견한다면, 이 방식이 매우 유용할 것이라 판단하여 미리 챙겨온 것이었다.

우리는 얼어붙은 눈 위를 조심스레 내려가며, 유백색으로 빛나는 서쪽 하늘을 배경으로 거대하게 솟아오른 돌 미로를 향해 나아갔다. 네 시간 전, 끝을 알 수 없는 산맥의 고개를 마주했을 때 느꼈던 그 강렬한 경외감과도 같은 전율이 다시금 우리를 엄습했다. 곧 무언가 경이로운 것이 나타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우리는 장벽처럼 솟은 봉우리들 뒤에 숨겨진 그 믿기 힘든 비밀을 눈으로는 이미 익히 보았다. 하지만 수백만 년 전, 인류라는 종이 존재하기도 훨씬 이전부터 의지를 가진 존재들이 쌓아 올린 저 태고의 성벽

안으로 직접 발을 들여놓는다는 사실은 여전히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동시에 그것은 우주적 이질성을 내포한, 실로 끔찍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안겨주었다.

이 엄청난 고도에서는 공기가 희박해 평소보다 움직이기가 조금 더 힘들었지만, 댄포스와 나 모두 아주 잘 버텼다. 우리에게 어떤 과업이 주어지더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몇 걸음 옮기지 않아 눈과 높이가 같아질 정도로 마모된, 형체 없는 폐허에 다다랐다. 거기서 10~15로드 정도 더 나아가자 지붕 없는 거대한 성벽이 나타났다. 그 성벽은 거대한 오각형의 윤곽을 여전히 온전히 유지한 채, 10~11피트의 불규칙한 높이로 솟아 있었다. 우리는 그 성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마침내 풍화된 사이클롭스식 거석들을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류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았을, 잊힌 영겁의 세월과 전례 없이 불경한 연결 고리를 맺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별 모양을 한 이 성벽은 꼭짓점 사이의 거리가 약 300피트에 달했다. 성벽은 크기가 제각각인 주라기 사암 블록으로 쌓아 올렸는데, 블록의 표면적은 평균 6x8피트 정도였다. 별 모양의 꼭짓점과 안쪽 꺾인 모서리를 따라 폭 4피트, 높이 5피트 정도의 아치형 총안(銃眼) 혹은 창문들이 대칭을 이루며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 창문들의 바닥은 빙하로 덮인 지면으로부터 약 4피트 위에 놓여 있었다.

이것들을 살펴보니 석조 구조물의 두께가 족히 5피트는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내부에는 남아 있는 칸막이조차 없었으며, 안쪽 벽면

에는 띠 모양의 조각이나 부조의 흔적도 남아 있었다. 이 사실들은 우리가 이 성벽과 그 주변의 다른 성벽들 위를 저공 비행하며 지나갈 때 이미 짐작했던 바였다. 원래는 더 낮은 부분도 존재했겠지만, 이곳에 서는 두껍게 쌓인 얼음과 눈에 완전히 뒤덮여 그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는 창문 중 하나를 통해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리고 거의 지워져 가는 벽화의 문양들을 해독하려 애썼으나, 얼음으로 뒤덮인 바닥을 건드리는 모험까지는 하지 않았다. 사전 정찰 비행 결과에 따르면, 도시 중심부의 건물들 중 상당수는 얼음이 덜 차 있는 상태였다. 만약 지붕이 아직 남아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실제 지면까지 이어지는 완전히 깨끗한 내부 공간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성벽을 떠나기 전, 우리는 그곳을 꼼꼼히 사진으로 남겼다. 그리고 모르타르 하나 없이 쌓아 올린 거대한 사이클롭스식 석조 구조물을 보며 형언할 수 없는 당혹감에 빠진 채 살펴보았다. 패보디가 곁에 있었다면 좋았으리라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면 공학적 지식을 동원해, 이 도시와 외곽 지역이 건설되던 그 믿기지 않을 만큼 먼 옛날에, 대체 어떻게 저런 거대한 암석들을 다루었는지 추측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 * * *

배경에 우뚝 솟은 봉우리 사이로 거친 바람이 하늘을 향해 헛되이, 그리고 사납게 울부짖는 가운데, 실제 도시가 있는 아래쪽으로 0.5마

일을 걸어 내려갔다. 그 길에서 겪은 일들은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내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될 것이다. 댄포스와 나를 제외한 그 어떤 인간이라도, 오직 기괴한 악몽 속에서나 그런 시각적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와 서쪽에서 소용돌이치는 안개 사이에는 검은 돌탑들이 기괴하게 뒤엉킨 모습이 놓여 있었다. 기이하고도 믿기지 않는 그 형상들은 우리가 시선을 옮길 때마다 매번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마치 단단한 돌로 빚어낸 신기루 같았다. 내가 찍어둔 사진들이 없었더라면, 나는 저런 것이 실재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여전히 의심했을 것이다. 석조물의 전반적인 양식은 우리가 이전에 조사했던 성벽과 동일했다. 하지만 도시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석조물들의 과도하고 기묘한 형태는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사진들조차 그 끝없는 다양성과 초자연적인 거대함, 그리고 완전히 이질적인 이국적 면모를 단 한두 단계밖에 보여주지 못할 뿐이다. 그곳에는 유클리드가 이름을 붙이기조차 버거워할 기하학적 형상들이 즐비했다. 온갖 불규칙함과 절단면을 지닌 원뿔들, 자극적일 만큼 불균형한 온갖 형태의 테라스, 기묘하게 부풀어 오른 기둥들, 기이한 무리로 뭉쳐 있는 부서진 기둥들, 그리고 광기 어린 괴상함을 풍기는 오각 혹은 오릿 형태의 구조물들이 그것이었다.

우리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자, 빙판의 투명한 부분 너머로 내부가 보이기 시작했다. 제멋대로 흩어져 있는 구조물들을 다양한 높이에서 연결해 주는 관 모양의 돌다리들도 식별할 수 있었다. 질서 정연하

게 뻗은 거리는 보이지 않았다. 유일하게 넓게 트인 공간은 왼쪽으로 1마일 떨어진 곳뿐이었는데, 그곳은 분명 고대의 강이 마을을 가로질러 산맥으로 흘러 들어갔던 길이었을 것이다.

망원경으로 들여다본 외부 벽면에는 거의 마모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조각들과 점 모양의 무늬들이 수평 띠를 이루며 넓게 퍼져 있었다. 지붕과 탑의 꼭대기 대부분이 이미 무너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도시가 한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렵듯이 상상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그곳은 뒤튼린 길과 골목들이 복잡하게 얽힌 미로였다. 골목마다 깊은 협곡처럼 패어 있었고, 어떤 곳은 돌출된 석조 구조물이나 머리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 때문에 터널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아득했다.

이제 우리 발치 아래로 펼쳐진 광경은 마치 꿈속의 환상처럼 서쪽의 안개 너머로 거대하게 솟아 있었다. 안개의 북쪽 끝자락으로는 이른 오후의 낮고 붉은 남극의 태양이 간신히 빛을 내뿜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다 잠시 태양 빛이 더 짙은 장애물에 가로막혀 주변이 일시적인 어둠에 잠길 때면, 그 광경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미묘하고도 위협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우리 뒤편, 거대한 산맥의 고개 사이를 흐르는, 몸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바람이 내는 희미한 울음소리와 피리 소리마저도, 마치 어떤 악의적인 목적을 품은 듯 더욱 거칠고 사악하게 들려왔다.

마을로 내려가는 마지막 구간은 유난히 가파르고 급격했다. 경사가 변하는 지점의 가장자리에는 암석이 돌출되어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과거에 인공적인 테라스가 존재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우리는 빙하 아래에 계단이나 그와 유사한 구조물이 분명히 묻혀 있을 것이라 믿었다.

마침내 우리가 마을 안으로 뛰어들었을 때, 우리는 무너져 내린 석조물들을 기어오르며 나아갔다. 사방에 깔린, 구멍이 숭숭 뚫리고 부서져 가는 벽들은 우리를 압도하듯 가깝게 에워쌌고, 그 거대한 높이는 우리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다. 그 순간 우리가 느낀 감각은 너무도 강렬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토록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경이로울 정도였다.

덴포스는 노골적으로 불안해했다. 그는 캠프에서 마주한 공포에 대해 불쾌할 정도로 엉뚱한 추측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내뱉는 말들이 못마땅했다. 악몽 같은 고대의 유물에서 비롯된 기괴한 흔적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결론들이 있었고, 나 역시 그 결론들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추측들은 그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그는 잔해들이 널브러진 골목이 급하게 꺾이는 어느 지점에서, 기분 나쁜 지면의 흔적을 희미하게 보았다고 단언했다. 또한 다른 곳에서는 정체 모를 지점에서 들려오는 미세하고 환청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그는 그것이 산맥의 동굴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와 비슷하면서도, 어딘가 불길하게 다른, 웅얼거리는 듯한 악기 소리 같았다고 말했다.

주변 건축물과 간신히 알아볼 수 있는 벽화의 아라베스크 문양에는
오각의 형태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 기괴한 문양들은 피할 수
없는 불길한 암시를 던져주었다. 우리는 이 신성하지 못한 곳을 세우고
거주했던 원초적 존재들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공포 섞인 확신을 무
의식중에 느끼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학적 탐구심과 모험심은 완전히 사그
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석조 구조물에 나타난 온갖 종류의 암석 표본을
채취하라는 계획을 기계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이곳의 연대를 더 정확
히 결론짓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다양한 표본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
다.

거대한 외벽의 그 무엇도 쥐라기나 코만치아기보다 나중에 만들어
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곳에 널린 돌덩이 중 그 어떤 것도 플라이
오세기보다 최근의 것이라 할 수 없었다. 우리는 분명하고도 냉혹한 사
실 앞에 마주했다. 적어도 50만 년,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
동안 군림해 온 죽음의 한복판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돌 그림자가 드리운 황혼의 미로를 헤치며 나아가던 우리는, 눈에
띄는 구멍이 보일 때마다 걸음을 멈췄다. 내부를 살피고 입구로 들어갈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어떤 구멍은 손이 닿지 않을 만큼 높
은 곳에 있었고, 또 어떤 구멍은 언덕 위 성벽처럼 지붕도 없이 황량한,
얼음이 가득 들어찬 폐허로 이어질 뿐이었다.

그중 하나는 공간이 넓고 아늑해 보였으나, 내려갈 수 있는 길은 전혀 보이지 않는,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으로 이어져 있었다. 우리는 가끔 살아남은 덧문 조각의 화석화된 나무 결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여전히 식별 가능한 그 나이테를 보며 이 물건들이 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나긴 세월에 압도당했다. 이 나무들은 중생대의 겉씨식물과 침엽수, 특히 백악기의 소철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한 부채손바닥나무나 초기 피자식물처럼 명백히 제3기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섞여 있었다. 하지만 플라이오세보다 더 최근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 덧창들을 설치한 방식은 제각각인 듯 보였다. 덧창의 가장자리에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기묘한 형태의 경첩 자국이 남아 있었다. 어떤 것은 깊게 파인 창틀의 바깥쪽에, 어떤 것은 안쪽에 달려 있어 설치 방식이 일정하지 않았다. 아마도 금속으로 된 경첩과 고정 장치들은 이미 녹슬어 없어졌겠지만, 덧창 자체는 그 자리에 꽂 끼인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일렬로 늘어선 창문들을 발견했다. 손상되지 않은 거대한 오각형 원뿔형 꼭대기 부분이 불룩하게 솟아오른 곳에 창문들이 있었다. 그 창문 너머로는 돌바닥이 깔린, 보존 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광활한 방이 보였다. 하지만 창문이 방 안쪽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밧줄 없이는 내려갈 수 없는 구조였다. 우리에게 밧줄이 있긴 했지만, 굳이 20피트 높이에서 떨어지는 수고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말이다. 특히 심장에 큰 무리가 가는 이 희박한 고원 지대의 공기 속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이 거대한 방은 아마도 어떤 종류의 홀이나 광장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비춘 전기 손전등 불빛 아래로, 벽면을 따라 배치된 대담하고 선명하며, 어찌면 경악스러울지도 모를 조각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조각들은 넓은 수평 띠를 이루며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그만큼 넓은 폭의 정교한 아라베스크 문양들이 띠를 이루며 구분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곳을 주의 깊게 기록해 두었다.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내부 통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곳을 통해 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마침내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입구를 발견했다. 폭 약 6피트, 높이 10피트 정도 되는 아치형 통로였다. 이곳은 과거에 공중 다리가 이어졌던 끝부분이었는데, 그 다리는 현재의 빙하 지표면에서 약 5피트 위에 놓인 골목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물론 이 아치형 통로들은 건물의 상층부 바닥면과 높이가 일치했는데, 다행히도 이번 경우에는 바닥 중 하나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렇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건물은 우리 왼쪽에서 서쪽을 향해 길게 늘어선 직사각형 테라스 형태였다. 골목 너머, 또 다른 아치형 입구가 입을 벌리고 있는 곳에는 창문 하나 없는 낡은 원통형 건물이 서 있었다. 그 건물은 입구로부터 약 10피트 위쪽이 기묘하게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건물 내부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칠흑같이 어두웠고, 아치형 입구 너머로는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허공이 펼쳐져 있는 듯했다.

왼편에 자리한 거대한 건물의 입구는 쌓여 있는 잔해 덕분에 훨씬 들어가기 수월해 보였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바라왔던 기회가 눈

앞에 왔음에도 잠시 망설였다. 비록 우리가 이 고대의 미스터리가 뒤엉킨 곳까지 침투하는 데는 성공했을지언정, 그 실체가 점점 더 끔찍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저 전설적인 옛 세계의 건물을, 그것도 온전한 형태로 보존된 건물 안으로 직접 발을 들이기 위해서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결단을 내리고 몸을 던졌다. 잔해를 기어올라 입을 벌리고 있는 총안(銃眼) 안으로 간신히 기어 들어갔다. 그 너머의 바닥은 거대한 판석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조각된 벽면을 따라 길고 높게 뻗은 복도가 시작되는 듯 보였다.

그곳에서 뻗어 나가는 수많은 내부 아치형 통로를 살펴보니, 그 안에는 아마도 복잡하게 얽힌 거처들이 가득할 것 같았다. 우리는 곧바로 추적의 흔적을 남기며 길을 찾아 나가는 방식을 시작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나침반과 뒤편 탐들 사이로 보이는 거대한 산맥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인위적인 표식 없이는 버티기 힘들 것이었다.

우리는 남은 종이를 적당한 크기로 갈기갈기 찢었다. 댄포스가 들고 갈 수 있도록 이 종이 조각들을 주머니에 담은 뒤, 안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아껴 쓰기로 했다. 태고의 석조물 내부에는 강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지 않았으므로, 이 방법이라면 길을 잃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만약 기류가 생겨나거나 종이가 바닥나더라도, 바위 표면을 깎아 흔적을 남기는 방법이 남아 있었다. 비록 그 방식은 더 확실하긴 해도, 훨씬 번거롭고 속도도 더딜 것이었다.

우리가 얼마나 광활한 영역을 개척했는지는 직접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었다. 여러 건물이 밀접하고 빈번하게 연결되어 있었기에, 국지적인 붕괴나 지질학적 균열로 가로막힌 곳을 제외하면 얼음 아래 설치된 다리를 통해 건물 사이를 오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거대한 구조물들 사이에는 빙하가 거의 침투하지 못한 듯 보였기 때문이다.

투명한 얼음 너머로 드러난 수중 창문들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다. 마치 빙하가 밀려와 그 아랫부분을 영원히 얼려버리기 전까지, 마을 전체가 이토록 일관된 상태로 방치된 듯했다. 실제로 이곳을 보고 있으면 기묘한 인상이 들었다. 이 도시는 갑작스러운 재앙을 맞았거나 서서히 쇠락한 것이 아니라, 아득히 먼 과거의 어느 시대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떠나버린 것 같다는 느낌 말이다. 만약 빙하가 닥쳐올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름 모를 주민들이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단으로 이곳을 떠나 다른 거처를 찾아 나섰던 것은 아닐까?

이 지점에서 빙판이 형성될 당시의 정확한 지형학적 조건은 나중에 따로 다루기로 미뤄두어야 할 것이다. 분명한 점은, 이것이 단순히 얼음이 밀려 내려오며 갈아낸 흔적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마도 쌓인 눈의 압력이 원인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강물이 범람했거나 거대한 산맥 어딘가에서 고대의 빙하 댐이 터지면서 흘러나온 물이 지금 관찰되는 특수한 상태를 만드는 데 일조했을지도 모른다. 이곳과 관련된 일이라면 상상력은 그 무엇이든 그려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제6장.

그 거대한 동굴이자, 영겁의 세월 동안 죽어 있던 원시 석조물들의 별집 같은 공간에 대해 상세히, 그리고 순서대로 기록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곳은 고대의 비밀을 품은 채 괴물 같은 등지로 남아 있었으며, 헤아릴 수 없는 시대가 흐른 뒤에야 비로소 인간의 발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곳이었다.

이는 특히 더욱 그러한데, 우리가 목도한 그 끔찍한 비극과 경악스러운 계시의 상당 부분이 도처에 새겨진 벽화들을 면밀히 조사한 것만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촬영한 벽화의 플래시 사진들은 지금 밝히고자 하는 모든 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더 많은 필름을 챙겨가지 못한 것이 뼈아픈 실책이었다. 필름을 모두 써버린 뒤에는, 눈에 띄는 특징들을 수첩에 투박하게 스케치하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들어선 건물은 규모가 거대하고 정교했다. 그 건축 양식은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지질학적 과거의 모습을 우리에게 강렬하게 각인시켰다. 내부 칸막이들은 외벽만큼 육중하지는 않았으나, 아래층 구역들은 보존 상태가 매우 훌륭했다. 전체적인 구조는 바닥 높낮이가 기묘할 정도로 불규칙하게 뒤섞인 미로처럼 복잡했다. 우리가 뒤에 남겨둔 종이 조각들을 길잡이 삼지 않았더라면, 분명 시작부터 길을 잃고 헤맸을 것이다.

우리는 우선 더 노후한 상층부부터 탐사하기로 했다. 그래서 미로 같은 구조물 안으로 약 100피트가량 기어 올라갔다. 그곳에는 가장 높은 층의 방들이 눈 덮인 폐허가 된 채 남극의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우리는 계단 대신 곳곳에 설치된, 가로로 흠이 파인 가파른 돌 경사로를 타고 올라갔다.

우리가 마주한 방들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형태와 크기를 띠고 있었다. 오각별 모양부터 삼각형, 그리고 완벽한 정육면체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은 실로 다양했다. 훨씬 더 큰 공간들도 존재했지만, 대략적인 평균치를 내자면 바닥 면적은 약 30x30피트, 높이는 20피트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상층부와 빙하 지대를 철저히 조사한 뒤, 우리는 층을 하나씩 내려가며 침수된 구역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발을 들이자마자 우리는 곧 깨달았다. 눈앞에 펼쳐진 곳은 서로 연결된 방과 통로가 끝없이 이어진 미로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 통로들은 아마도 이 건물 너머의 광활한 지역으로 이어져 있을 것이 분명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의 거대함과 압도적인 규모는 기묘할 정도로 우리를 짓눌러 왔다. 신성모독적일 만큼 고풍스러운 석조물들은 그 윤곽과 치수, 비례는 물론, 장식과 구조적 미세함에 이르기까지 어딘가 모르게 불길하고도 깊은 비인간성을 품고 있었다. 조각된 문양들이 드러내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 괴물 같은 도시가 수백만 년 전의 유물이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다.

거대한 암석 덩어리들을 기이할 정도로 정교하게 균형 잡고 조정하는 데 사용된 공학적 원리는 아직 설명할 길이 없다. 다만 아치 구조가 그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우리가 방문한 방들은 휴대 가능한 물건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비어 있었다. 이러한

정황은 이 도시가 의도적으로 버려졌다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가장 두드러진 장식적 특징은 거의 모든 벽면에 적용된 부조 양식의 벽화였다. 이 벽화들은 폭 3피트 정도의 수평 띠 형태로 길게 이어졌으며, 바닥부터 천장까지 동일한 폭의 기하학적 아라베스크 문양 띠와 번갈아 가며 배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배열 규칙에서 벗어난 예외도 있었으나, 대다수는 규칙을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아라베스크 문양의 띠를 따라, 기묘한 점들의 집합이 새겨진 매끄러운 카르투슈들이 일렬로 파여 있는 경우도 종종 발견되었다.

* * * * *

곧 우리는 그 기법이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숙련되고 정교했을 뿐만 아니라, 문명적 숙달의 경지 중에서도 미학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진화해 있었다. 비록 그 세부적인 양식은 인류가 아는 그 어떤 예술 전통과도 완전히 이질적이었지만 말이다. 실행의 섬세함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조각품도 이 조각에 비할 바가 못 되었다. 조각의 규모가 대담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식생이나 동물의 생태를 묘사한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게 구현되어 있었다. 한편, 그 안에 새겨진 관습적인 문양들은 숙련된 기술이 빚어낸 정교함의 극치였다.

그 아라베스크 문양에는 수학적 원리가 깊게 스며들어 있었다. 문양을 이루는 곡선과 각도는 기묘한 대칭을 이루고 있었는데, 모두 숫자 5를 기반으로 한 모호한 형태였다.

그 그림 띠들은 매우 정형화된 전통을 따르고 있었으며, 원근법 또한 기묘하게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 그림들은 거대한 지질학적 시대라는 아득한 간극을 사이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깊이 뒤흔드는 예술적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의 설계 방식은 단면과 2차원적 실루엣을 기묘하게 병치하는 데 그 핵심이 있었다. 또한 그 설계에는 인류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고대 종족의 수준을 뛰어넘는 분석 심리학적 원리가 담겨 있었다. 이 예술을 우리 박물관에 전시된 그 어떤 것과 비교하려 드는 것은 무의미한 짓이다. 우리의 사진을 본 사람이라면, 아마도 가장 대담한 미래주의자들이 그려낸 기괴한 구상물들에서 이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발견할지도 모른다.

아라베스크 문양은 모두 움푹 파인 선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풍화되지 않은 벽면을 기준으로 그 깊이는 1~2인치에 달했다. 점들이 무리지어 나타나는 카르투슈(cartouche) 부분은 미지의 원시 언어와 문자로 새겨진 비문임이 분명해 보였는데, 매끄러운 표면은 약 1.5인치 정도 파여 있었고 그 위의 점들은 그보다 0.5인치 더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림이 그려진 띠 모양의 구역은 바탕면이 원래 벽면으로부터 약 2인치 정도 낮게 파여 있는 음각의 저부조 형식이었다.

일부 표본에서는 과거의 색채 흔적을 찾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헤아릴 수 없는 영겁의 세월 속에서 색소가 분해되고 사라진 뒤였다. 이 경이로운 기법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 존재들에 대한 경외심은 더욱 깊어졌다. 정형화된 양식 아래에는 예술가들의 세밀하고 정확

한 관찰력과 묘사 기술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사실, 그 정형화된 양식 자체가 묘사된 모든 대상의 본질과 생명력 넘치는 차이점을 상징하고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우리 역시 그 뛰어난 가치들 너머에, 우리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곳곳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분위기는 무언가 잠재된 상징과 자극을 희미하게 암시하고 있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정신적·감정적 배경을 가졌거나, 혹은 더 풍부하고 다른 감각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면, 그 암시들은 우리에게 더 깊고도 강렬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이다.

조각상에 담긴 소재는 분명 그 조각이 만들어졌던, 이제는 사라져 버린 시대의 삶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명백한 역사의 파편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원시 종족이 지녔던 이 비정상적인 역사 의식이야말로, 우연한 계기를 통해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 의식 덕분에 우리는 그 조각상들을 경외심이 들 정도로 유익한 정보원으로 삼을 수 있었으며, 다른 그 무엇보다도 조각상을 사진으로 찍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되었다.

어떤 방들은 지도와 천문도, 그리고 그 외의 대형 과학 도표들이 배치되어 있어 공간의 구성이 사뭇 달랐다. 이러한 자료들은 벽면의 부조와 기단에 새겨진 그림들로부터 우리가 알아낸 사실들을, 천진하면서도 소름 끼치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었다.

밝혀진 모든 사실을 암시하자면, 내 기록을 믿어주는 이들이 부디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경계심을 넘어, 지나친 호기심에 사로

잡히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만약 누군가가 이 경고를 보고도 오히려 그 죽음과 공포의 영역으로 유혹되듯 발을 들인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될 것이다.

* * * * *

조각된 벽면 사이사이로 높은 창문과 12피트 높이의 거대한 문들이 나 있었다. 창문과 출입구 모두, 간혹 실제 덧창과 문짝이었던—정교하게 조각하고 광을 낸—화석화된 나무 판자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도 했다. 금속으로 된 부속품들은 오래전에 모두 사라졌으나, 몇몇 문은 제자리에 그대로 붙어 있어서 우리는 방에서 방으로 이동할 때마다 그 문들을 힘껏 밀어젖혀야만 했다.

기이한 투명 창유리—대부분 타원형이었다—가 끼워진 창틀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으나, 그 양은 그리 많지 않았다. 거대한 크기의 움푹한 벽감들도 자주 보였는데, 대개는 비어 있었다. 간혹 그 안에는 녹색 활석을 깎아 만든 기묘한 물건들이 놓여 있기도 했다. 그것들은 이미 부서져 있거나, 혹은 옮겨 갈 만한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고 여겨진 물건들이었다.

다른 구멍들도 분명 과거의 기계 장치들과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다. 조명이나 난방 같은 시설들 말이다. 조각들에 묘사된 모습들을 보면 그런 장치들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천장은 대체로 평범한 형태였으나, 때때로 녹색 활석이나 다른 타일로 상감 장식을 하기도 했다. 다만 지금은 대부분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바닥 역시 타일로 깔려 있었지만, 대개는 평범한 석재로 마감되어 있었다.

앞서 말했듯 가구와 이동 가능한 집기류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조각상들을 보니, 한때 이 무덤처럼 고요하고 메아리치는 방들을 가득 채웠을 기이한 도구들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분명히 짐작할 수 있었다. 빙하층 위쪽의 바닥은 대개 부스러기와 쓰레기, 파편들로 두껍게 뒤덮여 있었으나,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정도는 점차 줄어들었다.

하층부의 몇몇 방과 복도에는 거친 먼지나 오래된 침전물만이 조금 쌓여 있을 뿐이었다. 반면, 어떤 구역은 마치 방금 쓸어낸 듯 기묘할 정도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물론 지각 변동으로 균열이 생기거나 무너져 내린 곳은 상층부와 마찬가지로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공중에서 보았던 다른 구조물들과 마찬가지로, 중앙에는 커다란 안뜰이 자리 잡고 있었다. 덕분에 안쪽 구역까지 빛이 스며들어 완전한 어둠에 잠기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조각된 세부 문양을 자세히 살펴볼 때를 제외하면, 위층 방들에서 전등을 켜 일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빙하 아래로 내려갈수록 황혼 같은 어스름은 더욱 짙어졌다. 뒤엀킨 지표면의 여러 구역은 거의 완전한 암흑에 가까워졌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석조물들이 얽힌 이 영겁의 침묵 속 미로를 헤쳐 나가며, 우리가 느꼈던 생각과 감정을 조금이라도 짐작해 보려면 우선 걷잡을 수 없이 뒤섞인 감정의 파편들을 정리해야만 한다. 찰나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분과 기억, 그리고 온갖 인상들이 혼란스럽게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이곳이 지닌 압도적이고도 소름 끼치는 고대의 기운과 생명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함만으로도 예민한 사람이라

면 누구나 정신을 잃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 최근 캠프에서 벌어진 설명할 수 없는 공포,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벽면 조각들이 너무도 빨리 드러내 보인 그 끔찍한 진실들이 그 모든 감정을 더욱 가중시켰다.

해석의 여지조차 없는, 완벽하게 조각된 구역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것을 잠시 살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댄포스와 내가 서로에게 암시조차 주지 않으려 애써왔음에도, 사실 우리 둘 다 이미 독립적으로 그 진실을 짐작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태도일 것이다. 이제 이 거대하고 죽어버린 도시를 건설하고 거주했던 존재들의 정체에 대해, 더 이상의 자비로운 의구심은 남아있지 않았다. 인류의 조상이 원시적인 고대 포유류에 불과하고, 거대한 공룡들이 유럽과 아시아의 열대 초원을 누비던 수백만 년 전의 그 존재들에 대해서 말이다.

우리는 이전까지 절망적인 가설 하나에 매달려 있었다. 오각 문양이 어디에나 나타나는 이유는, 그저 오각의 형태를 뚜렷하게 구현한 고대의 자연물이 어떤 문화적 혹은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라고 각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주장했다. 미노아 문명의 크레타가 신성한 황소를 숭배하고, 이집트가 스카라베를, 로마가 늑대와 독수리를 숭배했던 것처럼, 혹은 여러 야만 부족이 자신들이 선택한 토템 동물을 숭배했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안식처마저 사라졌다. 우리는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라면 아

마 오래전부터 짐작하고 있었을, 이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 깨달음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실을 글로 옮기는 것조차 차마 견디기 힘들지만, 어쩌면 굳이 글로 쓸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다.

공룡의 시대, 이 공포스러운 석조 건축물 속에서 우뚝 솟아 거주하던 존재들은 사실 공룡이 아니었다. 그들은 공룡보다 훨씬 더 끔찍한 존재들이었다. 단순한 공룡은 그저 새롭게 나타난, 지능이 거의 없는 생물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도시를 건설한 이들은 지혜롭고도 오래된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거의 10억 년 전쯤에 이미 형성된 암석들 속에 어떤 흔적들을 남겨두었다. 지구의 진정한 생명체가 유연한 세포 집단 수준을 넘어 발전하기도 전의 암석들, 아니, 지구에 진정한 생명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기도 전의 암석들 속에 말이다.

그들은 그 생명체들을 만들어낸 창조주이자 노예로 부린 지배자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프나코틱 필사본〉이나 《네크로노미콘》 같은 책들이 공포에 질린 채 암시하고 있는 그 사악한 고대 신화의 원형이었다. 그들은 지구가 태동하던 시절, 별들로부터 흘러 내려온 위대한 '옛존재들'이었다. 이질적인 진화의 과정을 거쳐 그 형체를 빚어낸 존재들이자, 이 행성에서는 결코 태어날 수 없는 권능을 지닌 존재들이었다.

불과 어제, 댄포스와 내가 그들이 수천 년 동안 화석이 되어버린 육신의 파편들을 실제로 목격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라. 게다가 불쌍한 레이크와 그의 일행은 그들의 온전한 형체까지 보지 않았던가.

물론 우리가 인류 이전의 생명체가 남긴 그 괴물 같은 역사의 편린들을 어떻게 알아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순서대로 전부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확실한 진실을 마주한 뒤 찾아온 첫 충격 때문에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며 기력을 회복해야만 했다. 체계적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오후 세 시가 다 되어서였다.

우리가 들어선 건물 안의 조각상들은 비교적 후대의 것으로 보였다. 지질학적, 생물학적, 그리고 천문학적 특징들을 대조해 본 결과, 아마도 20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 조각상들에 담긴 예술 양식은, 빙하층 아래 놓인 다리들을 건너 지나온 더 오래된 건물들에서 발견한 표본들과 비교했을 때, 퇴폐적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였다.

거대한 암반을 깎아 만든 건축물 하나는 4천만 년, 어쩌면 5천만 년 전, 즉 에오세 초기나 백악기 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듯했다. 그 건물에는, 단 하나의 엄청난 예외를 빼면, 우리가 마주한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예술성을 지닌 부조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곳은, 우리가 나중에 의견을 모은 바에 따르면, 우리가 지나온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주거용 구조물이었다.

곧 공개될 저 손전등 같은 증거물들의 뒷받침이 없었더라면, 나는 내가 무엇을 발견하고 추론했는지 차마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칫 미친 사람으로 몰려 갇히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물론, 이 조각난 이야기의 아주 먼 앞부분—다른 은하와 다른 우주, 다른 행성에서 별의 머리를 한 존재들이 살았던 지구 이전의 생명체에 관한 내용—은 그저 그 존재들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신화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

만 어떤 부분들은 최근의 수학 및 천체물리학적 발견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하는 설계와 도표를 담고 있어, 나조차도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울 정도다. 내가 곧 발표할 사진들을 직접 보고, 판단은 다른 이들에게 맡기겠다.

당연하게도, 우리가 마주한 조각들 중 그 어떤 것도 연결된 이야기의 극히 일부조차 온전히 들려주지 못했다. 그 이야기의 여러 단계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조차 우리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거대한 방들 중 일부는 그 문양의 설계 방식만 보아서는 각각 독립된 단위처럼 보였으나, 또 어떤 경우에는 일련의 방과 복도를 따라 하나의 연속된 연대기가 이어지기도 했다.

가장 정교한 지도와 도표들은 고대의 지표면보다도 훨씬 낮은 곳, 공포스러운 심연의 벽면에 새겨져 있었다. 그곳은 가로세로 약 200피트, 높이 60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동굴이었는데, 의심할 여지 없이 어떤 종류의 교육 센터였을 것이다.

여러 방과 건물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경험의 특정 단계나 인종사의 요약, 혹은 특정 시기의 기록들이 각기 다른 장식이나 거주자들에게 유독 사랑받았던 모양이다. 하지만 때로는 같은 주제를 다룬 서로 다른 판본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지점을 해결해주거나, 기록의 빈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허락된 그 짧은 시간 동안 이토록 많은 것을 알아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겨우 대략적인 윤곽만

을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그마저도 상당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찍은 사진과 스케치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다.

덴포스가 현재 겪고 있는 정신적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마도 뒤늦게 시작된 이 연구 때문일 것이다. 연구를 진행하며 되살아난 기억과 막연한 인상들이, 그의 타고난 예민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나에게조차 결코 밝히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 마지막 공포의 편린과 맞물려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경고를 내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경고를 전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다. 질서가 뒤틀린 시간과 이질적인 자연 법칙이 지배하는 저 미지의 남극 세계에는 여전히 어떤 영향력이 남아 있다. 그렇기에 그곳에 대한 추가적인 탐사를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

VII.

우리는 그 거대한 도시의 입구에 도달했다. 그것은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건축 양식과도 달랐다. 그곳에는 기하학적 질서가 있었으나, 동시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뒤틀림이 공존하고 있었다. 거대한 돌덩이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서로 얹혀 있었고, 그 표면에는 수만 년의 세월을 견뎌온 듯한 기묘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곳은 죽음의 정적만이 감도는 폐허였다. 하지만 그 정적은 단순히 생명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숨을 죽인 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압도적이고도 불길한 침묵이었다. 우리는 그 거대한 구조물들 사이를 지나며, 우리가 발을 들인 곳이 결코 인간의 영역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 도시의 중심부로 향할수록 공포는 더욱 짙어졌다. 돌벽의 높이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괴수의 형상처럼 보였다.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마주할 진실이 우리의 정신을 산산조각 낼 만큼 참혹할 것이라는 사실뿐이었다.

지금까지 해독된 전체 이야기는 머지않아 미스카토닉 대학교의 공식 회보를 통해 발표될 것이다. 나는 여기서 그 핵심적인 내용만을 두서없고 산만한 방식으로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그것이 신화이든 아니든, 조각상들은 별의 머리를 한 존재들이 우주 공간을 지나 태동하던 생명 없는 지구로 찾아온 과정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의 강림과 더불어, 때때로 공간의 개척에 나서는 수많은 외계 존재들의 강림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거대하고 막질로 된 날개를 펼쳐 성간 에테르를 가로지를 수 있는 듯 보였다. 이 모습은 오래전 고고학자 동료로부터 들었던 기묘한 언덕의 민담을 기이할 정도로 뒷받침해 주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바다

밑에서 살며 환상적인 도시들을 건설했고, 미지의 에너지 원리를 이용한 복잡한 장치들을 사용하여 이름 모를 적들과 처절한 전투를 벌였다.

분명 그들의 과학적, 기계적 지식은 오늘날 인류의 수준을 훨씬 능가했다. 다만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만, 그 지식을 더 광범위하고 정교한 형태로 구현해냈을 뿐이다.

조각상 중 일부는 이들이 다른 행성에서 기계화된 생명 단계를 거쳤음을 암시했다. 하지만 그들은 기계 문명이 주는 정서적 충족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듯 보였다. 이들의 신체 구조는 초자연적일 만큼 견고했고 본연의 욕구 또한 단순했다. 덕분에 이들은 인공적인 제조물이 만들어내는 특수한 산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심지어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최소한의 장비 외에는 의복조차 걸치지 않은 채 높은 수준의 문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식량을 얻기 위해, 나중에는 다른 목적을 위해 바닷속에서 지구의 생명체를 처음으로 만들어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방식에 따라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이용했다.

여러 우주적 적들을 섬멸한 뒤에는 더욱 정교한 실험들이 뒤따랐다. 그들은 다른 행성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해 왔다. 그들은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제조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다세포 원형질 덩어리들도 만들어냈다. 이 덩어리들은 최면의 영향 아래에서 조직을 온갖 형태의 임시 기관으로 변형시킬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공동체의 고된 노동을 수행할 완벽한 노예가 되었다.

이 끈적끈적한 덩어리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공포스러운 『네크로노미콘』에서 압둘 알하자드가 "쇼고스"라고 속삭였던 바로 그것이었다. 비록 그 미친 아랍인조차, 어떤 알칼로이드 성분의 약초를 씹어 삼킨 자들의 꿈속에서만 존재할 뿐, 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암시는 남기지 않았지만 말이다.

이 행성에 강림한 별의 머리를 한 옛존재들은 단순한 형태의 먹이를 합성하고 쇼고스를 충분히 번식시킨 뒤에야, 다른 세포 집단들이 다양한 목적을 띤 동물이나 식물의 형태로 발달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다 그 존재들이 번거로운 존재가 되면 가차 없이 말살해 버렸다.

엄청난 무게도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몸집을 불릴 수 있는 쇼고스의 힘을 빌려, 바닷속의 작고 낮은 도시들은 거대하고 위압적인 돌 미로로 성장했다. 그 모습은 훗날 지상에 세워진 도시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제로 적응력이 매우 뛰어났던 옛존재들은 우주의 다른 곳에서 지상 생활을 오래 영위했기에, 아마도 지상 건축 방식에 관한 수많은 전통을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막 지나가고 있는, 영겁의 세월 동안 죽어 있던 복도들을 포함하여, 조각으로 묘사된 태고 지구의 도시들의 건축 양식을 연구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기묘한 우연 하나를 발견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아직 우리 스스로에게조차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일이었다.

우리를 둘러싼 실제 도시의 건물 윗부분은 이미 수만 년 전 풍화되어 형체 없는 폐허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부조에는 그 모습이 선명하

게 새겨져 있었다. 부조 속 건물들은 바늘처럼 뾰족한 첨탑들이 거대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고, 원뿔이나 피라미드 형태의 꼭대기에는 섬세한 장식들이 달려 있었다. 또한 원통형 기둥의 끝에는 얇고 수평적인, 물결무늬가 새겨진 원판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모습이였다.

그것은 우리가 보았던 그 거대하고 불길한 신기루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불행한 레이크의 캠프에 처음 다가갔을 때, 심연과도 같은 광기의 산맥 너머로 무지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죽어버린 도시가 만들어낸 환영이었다. 수천 년, 아니 수만 년 동안 저 지평선의 형체들은 그곳에서 사라져 있었다.

* * * * *

옛존재들의 삶에 대해서라면, 그들이 바닷속에 머물던 시절부터 일부가 육지로 이주한 이후까지를 통틀어 수많은 책을 써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얇은 바다에 살던 개체들은 다섯 개의 주요 머리 촉수 끝에 달린 눈을 최대한 활용하며 살아갔다. 또한 그들은 조각과 문자 기록 기술을 아주 일상적인 방식으로 익혔는데, 방수 처리가 된 밀랍 표면에 송곳 같은 도구로 글자를 새겨 넣는 방식이었다.

심해 더 깊은 곳에 거주하는 이들은 기묘한 인광 생물을 이용해 빛을 밝히기는 했으나, 머리에 달린 프리즘 형태의 섬모를 통해 작동하는 모호하고 특수한 감각으로 시야를 보충했다. 이러한 감각 덕분에 옛존재들은 비상시에는 빛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이들이 남긴 조각과 문자의 형태는 심해로 내려가면서 기묘하게 변해갔는데, 여기에는 화학적 피복 과정이 포함된 듯 보였다. 아마도 인

광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부조에 새겨진 형태만으로는 그 정확한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 존재들은 바다 속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움직였다. 한편으로는 측면에 달린 크리노이드 형태의 팔을 이용해 헤엄쳤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짜 발이 달린 아래쪽 촉수들을 꿈틀거리며 기어갔다. 때때로 그들은 부채처럼 접히는 날개를 두 쌍 이상 펼쳐 보이며, 물속을 길게 활공하기도 했다.

그들은 지상에서는 가짜 발을 이용해 이동했지만, 때때로 날개를 펼쳐 아주 높이 날아오르거나 먼 거리를 비행하기도 했다. 바다나리 모양의 팔에서 갈라져 나온 수많은 가느다란 촉수들은 무척이나 섬세하고 유연하면서도 강인했다. 또한 근육과 신경의 협응력이 무한히 정교하여, 예술적 작업이나 여타 수작업을 수행할 때 극도의 숙련도와 민첩함을 보여주었다.

그 존재들의 강인함은 믿기 힘들 정도였다. 심해 가장 깊은 곳의 엄청난 수압조차 그들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는 듯 보였다. 폭력적인 외상에 의한 죽음을 제외하면, 죽음을 맞이하는 개체는 극히 드물었으며 그들의 매장지도 매우 한정적이었다. 수직으로 매장된 시신들을 별 모양의 문양이 새겨진 둔덕으로 덮어두었다는 사실은, 조각상들이 그 진실을 드러낸 뒤 댄포스와 나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다.

[삽화: 그 존재들의 강인함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 어떤 엄청난 압력조차 그들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했다!]

그 존재들은 포자를 통해 번식했다. 레이크가 짐작했던 대로 식물의 양치식물과 유사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경이로울 만큼 강인하고 수명 또한 길었다. 개체 수가 쉽게 줄어들지 않으니 굳이 새로운 전염체를 대규모로 퍼뜨릴 필요도 없었다. 오직 새로운 지역을 개척해야 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번식을 시도했을 뿐이다.

그 어린 개체들은 빠르게 성숙했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교육을 받은 것이 분명했다. 당시의 지적, 미적 생활은 고도로 발달해 있었고, 그 결과 끈질기게 이어져 내려온 관습과 제도가 형성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필할 논문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바다에 사느냐 육지에 사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나, 그 근간과 핵심적인 요소만큼은 동일했다.

그들은 채소처럼 무기물로부터 영양분을 얻을 수도 있었으나, 유기물, 특히 동물을 먹는 것을 훨씬 선호했다. 바닷속에서는 익히지 않은 해양 생물을 먹었지만, 육지에서는 음식을 익혀 먹었다. 그들은 사냥을 하거나 가축을 길러 고기를 얻었다. 우리 탐사대는 특정 화석 뼈에서 발견된 기묘한 흔적을 통해, 그들이 날카로운 무기로 짐승을 도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모든 일반적인 기온을 견뎌냈으며, 본래의 상대라면 영하의 물속에서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약 백만 년 전, 플라이스토세의 거대한 빙하기가 닥치자 육지 거주자들은 인공 가열을 포함

한 특별한 조치에 의존해야만 했다. 그러다 결국, 치명적인 추위가 그들을 다시 바다로 몰아낸 것으로 보인다.

전설에 따르면, 그들은 선사 시대에 우주 공간을 비행하며 특정한 화학 물질을 흡수했다고 한다. 그 덕분에 먹거나 숨을 쉬는 일, 혹은 열기 같은 환경 조건으로부터 거의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하지만 대빙하기에 이르러서는 그 방법조차 잊어버린 상태였다. 어찌 되었든, 그들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으면서 인위적인 상태를 무한히 지속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옛존재들은 암수가 쌍을 이루지 않고 구조 또한 반식물적이었기에, 포유류가 보여주는 가족 형태의 생물학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공간의 쾌적함과 효율성을 원칙으로 삼아 대규모 가구를 구성하는 듯 보였다. 또한 함께 생활하는 개체들의 활동과 오락을 묘사한 그림들을 통해 추론해 보건대, 그들은 정신적 유대감과 친밀함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형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거대한 방의 중앙에만 가구를 배치했다. 벽면은 장식을 위해 온전히 비워두었다. 지상에 거주하던 존재들의 경우, 조명은 아마도 전기 화학적 원리를 이용한 장치로 밝히는 듯했다.

그들은 육지에서나 수중에서나 기이한 형태의 탁자와 의자, 그리고 원통형 틀 같은 소파를 사용했다. 축수를 접은 채 똑바로 선 자세로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잤기 때문이다. 또한 점무늬가 있는 판들을 경첩으로 연결해 만든 책을 꽃아 두는 선반도 갖추고 있었다.

정치 체제는 분명 복잡한 구조였으며 사회주의적 성향을 띠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가 목격한 조각상들만으로는 이와 관련해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상업 활동 또한 매우 활발했다. 지역 내 거래는 물론 도시 간의 교역도 이루어졌던 듯하다. 화폐로는 다섯 개의 꼭짓점이 있고 무늬가 새겨진, 작고 평평한 패 같은 물건들이 사용되었다. 우리 탐사대가 발견한 여러 종류의 녹색 활석 중 크기가 작은 것들이 아마도 이러한 화폐의 일부였을 것이다.

문화는 주로 도시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일부 농업과 상당한 규모의 축산업도 병행되었다. 광업과 제한적인 수준의 제조업 또한 이루어졌다. 이동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종족이 세력을 확장하며 벌인 거대한 식민화 운동을 제외하면 영구적인 이주는 비교적 드문 편이었다.

개인적인 이동에는 외부의 도움을 빌리지 않았다. 육지나 하늘, 바다를 가리지 않고 옛존재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듯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짐을 옮길 때만큼은 짐승의 힘을 빌렸다. 바다 밑에서는 쇼고스가, 육지 생태계의 후기에는 기이한 형태의 원시 척추동물들이 그 역할을 맡았다.

이 척추동물들은 물론, 동물과 식물, 해양과 육상, 그리고 공중 생물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다른 생명체들 또한 옛존재들이 만들어낸 생명 세포로부터 비롯된 산물이었다. 이 세포들은 옛존재들의 관심 범위를 벗어나 통제를 피하며 진화해 온 것이었다. 이 생명체들은 지배적

인 존재들과 충돌하지 않았기에 아무런 제약 없이 발달할 수 있었다. 물론, 성가신 형태의 생물들은 기계적인 방식으로 말살당하곤 했다.

가장 후기 시대의 퇴락한 조각상들 중 일부에서는 기괴하고 원시적인 포유류의 형상이 발견되어 우리의 흥미를 끌었다. 이 짐승은 때로는 식량으로, 때로는 지상 거주자들의 유희를 위한 광대로 이용되었는데, 그 모습에서 원숭이와 인간의 특징이 어렴풋이 겹쳐 보이는 점은 부정할 수 없었다. 지상의 도시를 건설할 때는 거대한 탑을 이루는 거대한 석재들을 들어 올리기 위해, 지금까지 고생물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거대한 날개를 가진 익룡들이 사용되었다.

옛존재들이 지구 지각의 격변과 수많은 지질학적 변화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모습은 기적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비록 그들의 초기 도시 중 시생누대(Archæan Age) 너머까지 살아남은 것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듯 보였으나, 그들의 문명이나 기록의 전승만큼은 단 한 번의 끊김도 없이 이어졌다.

그들이 이 행성에 처음 발을 들인 곳은 남극해였다. 달을 형성하던 물질이 인접한 남태평양에서 떨어져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이곳에 당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조각된 지도 중 하나에 따르면, 당시 지구 전체는 물에 잠겨 있었다. 이후 영겁의 시간이 흐르면서, 돌로 지은 도시들은 남극에서 점점 더 멀리 흩어져 갔다.

또 다른 지도에는 남극 주변으로 거대한 육지가 펼쳐져 있다. 그곳을 보면 어떤 존재들이 실험적인 정착지를 건설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다만 그들의 주요 거점은 가장 가까운 바다 밑바닥으로 옮겨진 상태였다.

이후에 제작된 지도들을 보면, 이 대륙이 갈라지고 표류하며 일부 조각들이 북쪽으로 떠밀려 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최근 테일러와 베게너, 그리고 줄리가 제기한 대륙 이동설을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뒷받침해 준다.

남태평양의 새로운 대륙이 솟아오르며 거대한 격변이 시작되었다. 해저 도시 중 일부는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처참하게 파괴되었으나, 그것이 가장 최악의 불행은 아니었다. 곧이어 우주의 무한한 심연으로부터 또 다른 종족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문어와 닮은 형상을 한 이 지상 종족은 아마도 전설 속 크툴루의 태고적 자손들과 맥을 같이 하는 존재들일 것이다. 이들의 등장은 괴물 같은 전쟁을 촉발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옛존재들은 한동안 완전히 바다로 물러나야만 했다. 육지 정착지가 점차 늘어나던 상황에서 이는 실로 엄청난 타격이었다.

이후 평화가 찾아왔다. 옛존재들이 바다와 오래된 땅을 차지하는 동안, 크툴루의 후예들에게는 새로운 땅이 주어졌다. 그곳에 새로운 도시들이 세워졌는데, 그중 가장 거대한 도시는 남극에 건설되었다. 처음 발을 내디뎠던 그 지역은 성스러운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이전과 마찬가지로 남극은 옛존재들 문명의 중심지로 남아 있다. 크툴루의 후예들이 그곳에 건설했던 모든 도시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다 갑자기 태평양의 땅들이 다시 가라앉았다. 그 무시무시한 돌의 도시 프리에와 우주적 존재인 문어 형상의 생명체들을 모두 집어삼킨 채였다. 이로써 옛존재들이 다시금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으나, 그들조차 입에 올리기 꺼려하는 어두운 공포 하나만은 예외였다.

다소 후대에 이르러서는, 전 지구의 육지와 바다 곳곳에 그들의 도시가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내가 곧 발표할 논문에서도, 고고학자들이 때보다 식의 장치를 사용하여 멀리 떨어진 여러 지역을 체계적으로 시추해 볼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 * * * *

시대가 흐를수록 생명체들은 물에서 육지로 꾸준히 이동했다. 새로운 대륙들이 솟아오르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되었으나, 그렇다고 바다를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다. 육지로 향하게 된 또 다른 원인은 쇼고스를 번식시키고 관리하는 일이 점차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성공적인 해양 생태계는 바로 이 쇼고스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며 조각상들이 슬프게 증언하듯, 무기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기술은 점차 사라져 갔다. 결국 옛존재들은 이미 존재하는 형태를 빚어내는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육지에서는 거대한 파충류들을 다루기가 매우 수월했으나, 바다의 쇼고스들은 문제가 되었다. 분열을 통해 번식하며 위험할 정도로 지능까지 갖추게 된 쇼고스들은 한동안 옛존재들에게 커다란 난관이었다.

그것들은 언제나 옛존재들이 거는 최면적 암시에 의해 통제되어 왔다. 그 암시에 따라 그것들은 질기고 유연한 신체를 여러 가지 유용한 임시 사지나 기관의 형태로 변형해 왔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스스로 형태를 바꾸는 능력을 때때로 독립적으로 발휘하곤 했으며, 과거의 암시로 인해 각인된 다양한 모방의 형태로 변하기도 했다. 그것들은 반안정적인 뇌를 발달시킨 듯 보였다. 그 뇌가 지닌 개별적이고 때로는 완고한 의지는, 항상 복종하지는 않으면서도 옛존재들의 의지를 메아리처럼 반영하고 있었다.

조각된 쇼고스의 형상들을 마주하자, 댄포스와 나는 공포와 혐오감에 휩싸였다. 본래 쇼고스는 거품이 엉겨 붙은 듯한 끈적한 젤리 덩어리로 이루어진, 형체 없는 존재들이었다. 구형을 이룰 때면 그 지름은 평균 15피트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은 형태와 부피를 끊임없이 변화시켰다. 때로는 일시적으로 돌출된 돌기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주인들을 모방하여 시각, 청각, 언어 기능을 수행할 듯한 기관을 겉모습에 형성하기도 했다. 이는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했으나, 때로는 누군가의 암시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했다.

아마도 약 1억 5천만 년 전인 페름기 중반 무렵, 해안에 거주하던 옛존재들이 이들을 다시 굴복시키기 위해 실질적인 전쟁을 일으켰을 때부터, 이들은 유독 다루기 힘든 존재가 된 듯하다. 그 전쟁의 참상과, 쇼고스가 살해한 희생자들을 머리 없는 상태로 점액에 뒤덮인 채 내버려 두는 특유의 방식이 담긴 그림들은,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의 심연에도 불구하고 경악스러울 만큼 공포스러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옛존재들은 반란을 일으킨 존재들을 제압하기 위해 분자 구조를 교란하는 기묘한 무기를 사용했고, 결국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 이후의 조각상들에는 쇼고스들이 길들여지고 굴복당하던 시기가 묘사되어 있었다. 마치 미국 서부의 카우보이들이 야생마를 길들이듯, 무장한 옛존재들이 쇼고스들을 그렇게 다스렸던 것이다.

반란이 일어나는 동안 쇼고스들이 물 밖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긴 했으나, 굳이 그런 변화를 유도하지는 않았다. 육지에서 부리는 효용이 녀석들을 관리하는 데 드는 수고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쥘라기 시대, 옛존재들은 외계로부터 밀려온 새로운 침략자들로 인해 또 다른 시련을 맞이했다. 이번 침략자들은 절반은 균류이고 절반은 갑각류와 같은 형상을 한 괴물들이었다. 이들은 북부의 어느 언덕에서 은밀히 전해 내려오는 전설 속 존재들과 분명히 일치했으며, 히말라야에서는 미고(Mi-Go), 즉 설인이라 불리며 기억되는 존재들이었다.

옛존재들은 이 존재들에 맞서기 위해, 지구에 발을 들인 이래 처음으로 행성의 대기권 밖으로 다시 나아가려 시도했다. 그러나 그들이 갇출 수 있는 모든 전통적인 준비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다. 성간 여행에 관한 그 오래된 비밀이 무엇이었던 간에, 이제 그 기술은 그 종족에게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상태였다.

결국 미고(Mi-Go)는 북방의 모든 땅에서 옛존재들을 몰아냈다. 비록 바다에 머무는 존재들까지는 건드리지 못했으나 말이다. 그렇게 옛 존재들이 본래의 서식지인 남극으로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했다.

* * * * *

그림에 묘사된 전투를 살펴보면 기이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크툴루의 후예들과 미고(Mi-Go)는 우리가 아는 물질과는 훨씬 더 이질적인 성분으로 이루어진 듯 보였다. 이들은 적대자들에게는 불가능한 변형과 재결합을 거듭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이들은 아마도 옛존재들보다 훨씬 더 먼 우주의 심연에서 건너온 존재들이 분명해 보인다.

옛존재들은 비정상적일 만큼 강인하고 기이한 생명력을 지녔을 뿐, 철저히 물질적인 존재였다. 그들의 기원은 분명 우리가 아는 시공간의 연속체 안에 있었을 것이다. 반면, 다른 존재들의 근원은 숨을 죽이고 추측할 수밖에 없을 만큼 미지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물론 이 모든 가정은 침략해 온 적들에게서 발견된 비지구적 연결 고리나 기이한 현상들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성립된다.

어쩌면 옛존재들은 자신들의 가끔씩 찾아오는 패배를 설명하기 위해 우주적 틀을 직접 만들어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기록을 보면 역사적 관심과 자부심이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심리적 요소였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의 연대기에 정작 많은 고등 종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다. 모종의 모호한 전설 속에는 거대한 문명

과 드높은 윤리관을 지닌 강력한 종족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데도, 정작 옛존재들의 기록에는 이들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조각된 지도와 장면들 중에는 오랜 지질 시대 동안 변해온 세계의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게 묘사된 것이 많았다. 어떤 사례들은 기존 과학 이론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였으나, 또 어떤 사례들은 현대 과학의 대담한 추론이 틀리지 않았음을 장엄하게 증명해 주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테일러와 베게너, 그리고 졸리가 내세운 가설이 있다. 모든 대륙은 본래 하나의 거대한 남극 대륙이었으며, 원심력에 의해 갈라진 뒤 점성이 있는 하층부를 타고 서로 멀리 떠밀려 갔다는 가설이다. 아프리카와 남미 대륙의 해안선이 서로 맞물리는 형태나, 거대한 산맥들이 구불구불 솟아오른 양상 등을 통해 제기된 이 가설은, 이제 이 기이한 출처로부터 놀라울 정도의 뒷받침을 얻게 되었다.

일억 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래전 석탄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들에는 거대한 균열과 심연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다. 이 균열들은 훗날 아프리카를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그리고 남극 대륙으로부터 갈라놓게 될 운명이었다. 당시 유럽은 태고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발루시아의 영역이었다.

다른 해도들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우리를 둘러싼 이 거대한 죽은 도시가 5천만 년 전에 세워졌을 당시를 보여주는 해도에는, 현재의 대륙들이 모두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났다. 또한 플라이오세 시대로 추정되는 가장 최근의 표본에서는 오늘날의 세계 모습이 꽤 명확하게 드러났다. 다만 알래스카와 시베리아가 이어져 있고, 그린랜드를 통해

북아메리카와 유럽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레이엄 랜드를 통해 남아메리카와 남극 대륙이 하나로 맞물려 있을 뿐이었다.

석탄기 지도를 보면 해저와 갈라진 대륙 지각을 가리지 않고 지구 전역에 옛존재들의 거대한 석조 도시를 나타내는 기호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지도들을 보면, 이 도시들이 남극을 향해 점차 후퇴했다는 사실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다.

플라이오세의 마지막 표본에 따르면, 남극 대륙과 남미 대륙의 끝부분을 제외하고는 육상 도시에 대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남위 50도 이북의 해양 도시들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옛존재들에게 있어 북반구 세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은 이미 사라진 듯했다. 아마도 그 부채 모양의 막질 날개를 펼치고 장거리 탐사 비행을 하며 해안선을 조사한 적은 있었겠지만, 그 외의 관심은 완전히 끊긴 상태였다.

산맥이 솟구치며 도시를 집어삼키고, 원심력에 의해 대륙이 갈라지며, 지각이나 해저가 지진으로 요동치는 현상 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한 파괴는 흔히 기록된 사실이었다. 그러나 기이한 점은, 세월이 흐를수록 파괴된 도시를 대체하는 새로운 도시가 점점 더 적게 세워졌다는 사실이다.

우리 주변으로 입을 벌린 채 펼쳐진 거대한 죽음의 대도시를 보았다. 그곳은 아마도 이 종족이 세운 마지막 중심지였을 것이다. 백악기 초기에 건설된 이 도시는, 그보다 훨씬 거대했던 이전의 도시를 집어삼킨 거대한 지각 변동 이후에 세워진 것이었다.

이 지역 전체가 가장 신성한 장소인 듯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태초의 바다 밑바닥에 최초의 옛존재들이 자리를 잡았던 곳이 바로 여기라고 했다. 조각상들을 통해 그 특징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었던 신도시 역시 그러했다. 이 도시는 우리가 항공 측량으로 확인한 가장 먼 경계 너머로, 산맥을 따라 양방향으로 각각 100마일에 걸쳐 광대하게 뻗어 있었다. 그곳에는 최초의 해저 도시를 구성하던 신성한 돌들이 보존되어 있다고 전해진다. 지층이 거대하게 뒤틀리는 과정에서, 오랜 세월을 지나 이 돌들이 마침내 빛 아래로 솟아오른 것이었다.

VIII.

당연하게도, 댄포스와 나는 우리가 머무는 이 주변 지역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각별한 관심과 유난히 개인적인 경외감을 품고 연구했다. 이 일대에서 발견되는 자료는 당연히 차고 넘칠 정도로 방대했다.

영망으로 뒤엎긴 도시의 지표면에서, 우리는 운 좋게도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집 한 채를 발견했다. 인접한 균열 때문에 벽면이 다소 손상되긴 했으나, 그곳에는 퇴폐적인 솜씨로 조각된 형상들이 남아 있었다. 그 조각들은 플라이오세 지도를 훨씬 넘어서는 이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었고, 우리는 그 조각들을 통해 인류 이전 세계의 모습을 마지막 막으로 대략이나마 훑어볼 수 있었다. 그곳은 우리가 상세히 조사한 마지막 장소였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이 우리에게 새롭고도 즉각적인 목표를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분명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기이하고, 기괴하며, 가장 끔찍한 구석 중 하나에 발을 들여놓은 상태였다. 현존하는 그 어떤 땅보다도 비

교할 수 없을 만큼 아득한 고대의 땅이었다. 이 흥측한 고원이 바로 그 전설적인 악몽의 고원, 령일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사이에서 점점 커져 갔다. 《네크로노미콘》을 쓴 미친 저자조차 차마 입에 올리기를 꺼려했던 바로 그곳 말이다.

거대한 산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길게 뻗어 있었다. 웨델해 연안의 루이트폴트 랜드에서 시작된 낮은 산줄기는 남극 대륙 전체를 가로질러 이어졌다. 산맥의 가장 높은 구간은 위도 82도, 동경 60도 부근에서 위도 70도, 동경 115도 부근까지 거대한 호를 그리며 펼쳐졌다. 산맥의 오목한 면은 우리 캠프를 향해 있었으며, 바다 쪽 끝은 윌크스와 모슨이 남극권에서 언뜻 보았던, 얼음에 갇힌 긴 해안선 지역으로 이어졌다.

자연의 섭리를 벗어난, 더욱 기괴하고 거대한 형상들이 바로 눈앞에 닥쳐 있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나는 앞서 이 봉우리들이 히말라야보다 높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조각상들의 묘사를 보면, 이 봉우리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었다. 그 참혹한 영광은 분명 다른 무언가를 위해 남겨진 듯했다. 조각상 중 절반은 그 존재를 기록하기를 주저하는 듯했고, 나머지 조각상들은 명백한 혐오와 공포를 드러내며 그 존재를 묘사하고 있었다.

그 고대의 땅에는 한 구역이 있었다. 지구가 달을 떼어내고 옛존재들이 별들로부터 스며 내려온 뒤, 바다 위로 가장 먼저 솟아올랐던 그 땅의 일부 말이다. 그곳은 이름 모를 막연하고도 사악한 기운 때문에 기괴되는 땅이 되었다. 그곳에 세워진 도시들은 제 수명을 다하기도 전

에 무너져 내렸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자취를 감춘 채 버려진 상태로 발견되곤 했다.

코만치안 시대, 첫 번째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이 지역을 뒤흔들었을 때였다. 끔찍한 굉음과 혼돈 속에서 무시무시한 산맥이 돌연 솟구쳐 올랐다. 그렇게 대지는 가장 높고도 경외로운 산들을 품게 되었다.

조각된 크기가 정확하다면, 이 끔찍한 존재들은 높이가 4만 피트를 훨씬 넘었을 것이다. 우리가 넘어온 그 충격적인 광기의 산맥보다도 근본적으로 훨씬 더 거대했다. 산맥은 동경 70도, 남위 77도 부근에서 시작해 동경 100도, 남위 70도까지 뻗어 있는 듯 보였다. 죽은 도시에서 불과 300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다. 만약 그 모호하고 유백색으로 빛나는 안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서쪽 먼 곳에서 그 두려운 봉우리들을 이미 발견했을 것이다. 산맥의 북쪽 끝 또한 퀸 메리 랜드의 긴 남극권 해안선에서 육안으로 확인될 것이 분명했다.

쇠락의 시대에, 옛존재들 중 일부는 그 산들을 향해 기이한 기도를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산 근처에 다가가지 않았으며,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인간의 눈으로 그 산들을 본 이는 아무도 없었다. 조각에 담긴 감정들을 연구하던 나는, 앞으로 영원히 그 누구도 그 산들을 보지 못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 너머 해안선을 따라 퀸 메리 땅과 카이저 빌헬름 땅이라 불리는 구름지대가 방패처럼 버티고 있다. 다행히도 그 누구도 그 언덕에 상륙해 기어오르지 못했다는 사실에 나는 하늘에 감사할 따름이다. 예전만큼 옛이야기나 공포를 불신하지도 않는다. 음울하게 도사린 능선마다

번개가 마치 어떤 의미를 담은 듯 잠시 머물다 간다거나, 저 끔찍한 봉우리 중 하나에서 긴 극야 내내 설명할 수 없는 빛이 뿜어져 나왔다는 인류 이전 조각가의 주장을 이제는 비웃지 않는다. 차가운 황무지에 있는 카다스에 관한 고대 프나코틱의 속삭임에는, 어쩌면 매우 실재적이 고도 괴물 같은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지형 역시 이름 모를 저주를 품었는지는 몰라도, 그 기이함만큼은 결코 뒤쳐지지 않았다. 도시가 세워진 직후, 이 거대한 산맥은 주요 신전들이 자리 잡은 중심지가 되었다. 곳곳에 새겨진 수많은 조각은 과거에 얼마나 기괴하고 환상적인 탑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묘하게 뒤엎킨 입방체와 성벽뿐인 풍경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역겹의 세월이 흐르며 동굴들이 생겨났고, 그 동굴들은 신전의 부속 시설로 다듬어졌다. 이후 시대가 거듭되며 지하수가 이 지역의 모든 석회암 맥을 파고들어 깎아냈다. 그 결과 산맥과 산기슭, 그리고 그 아래 펼쳐진 평원까지 거대한 동굴과 통로들이 얹히고설킨 하나의 거대한 망을 이루게 되었다. 곳곳에 새겨진 수많은 정교한 조각들은 지하 깊은 곳을 탐사했던 기록을 전하고 있었다. 그것은 지구의 내장 속에 숨어 있는, 빛 한 점 들지 않는 스티기아의 암흑 바다를 마침내 발견했음을 알리는 기록이었다.

* * * * *

이 거대하고 어두운 심연은 분명 이름 모를 서쪽의 끔찍한 산맥에서 흘러내려 온 거대한 강이 깎아 만든 것이리라. 한때 이 강은 옛존재들

의 산맥 기슭을 돌아, 월크스 해안선의 버드 땅과 토튼 땅 사이를 지나 인도양으로 흘러갔다. 강물은 굽이치는 지점의 석회암 언덕 기슭을 조금씩 갇아먹었고, 마침내 침식된 물줄기가 지하수 동굴에 닿으면서 더 깊은 심연을 파헤치며 합쳐졌다.

마침내 그 거대한 물줄기는 전부 움푹 팬 언덕 속으로 쏟아져 들어갔고, 바다로 향하던 옛 물길은 바짝 말라버렸다. 우리가 나중에 발견한 도시의 상당 부분은 바로 그 옛 물길 위에 세워져 있었다. 옛존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고 있었고, 특유의 예리한 예술적 감각을 발휘했다. 그들은 거대한 물줄기가 영원한 어둠 속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저 언덕의 끝자락을 화려한 기둥 모양으로 깎아 만들었다.

한때 수십 개의 장엄한 석조 다리들이 놓여 있었을 이 강은, 우리가 비행기에서 조사했을 때 보았던, 이제는 말라버린 옛 물길이 분명했다. 도시 곳곳에 새겨진 다양한 부조 속에서 이 강의 위치를 확인하자, 이 지역의 유구하고도 영겁에 걸친 역사 속에서 변화해 온 도시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덕분에 우리는 광장과 주요 건물 같은 핵심적인 지형지물들을 서둘러, 그러나 세심하게 지도에 그려 넣을 수 있었다. 앞으로 이어질 탐사를 위한 길잡이로 삼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상상만으로도 그 거대한 유적의 전모를 곧 재구성할 수 있었다. 백만 년, 혹은 천만 년, 아니 오천만 년 전의 모습 그대로 말이다. 조각상들이 그 모든 것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건물과 산맥, 광장과 교외 지역은 물론, 주변 경관과 울창했던 제3기 식생이 어떤 모습이었는지까지도 말이다.

그 도시는 분명 경이롭고도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품었으리라. 그 광경을 떠올리자, 나를 짓누르던 불길하고 축축한 압박감이 잠시 잊히는 듯했다. 그 도시가 지닌 비인간적인 거대함과 죽음의 정적, 그리고 아득한 고립감과 병하의 황혼이 내 영혼을 숨 막히게 짓누르고 있었음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떤 조각들에 따르면, 그 도시의 거주자들 역시 억누를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었다. 조각에는 어둡고도 반복적인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바로 옛존재들이 무언가로부터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었다. 그 대상이 무엇인지는 결코 그림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거대한 강물 속에서 발견되었다는 설명만 있을 뿐이었다. 그 물체는 덩굴이 뒤덮인 소철 숲을 지나, 저 서쪽의 끔찍한 산맥으로부터 떠내려온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도시가 버려지게 된 최후의 재앙을 암시하는 조짐을 발견한 것은, 퇴폐적인 조각들이 새겨진 뒤늦게 지어진 그 집 한 채뿐이었다. 당시의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기 탓에 사람들의 의욕과 열망이 꺾였다고 해도, 분명 다른 곳에도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조각상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조각상들이 존재했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마주한 것은 바로 이 조각상들이 처음이자 유일한 사례였다.

나중에 더 멀리까지 살펴보려던 계획은 있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당시의 급박한 상황 때문에 당장은 다른 목표에 집중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분명 한계는 있었을 것이다. 옛존재들 사이에서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있다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이상, 벽면에 새겨진 장식들도 결국은 완전히 끊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타격은 거대한 추위가 닥쳐온 것이었다. 한때 지구 대부분을 속박했던 그 추위는, 불운한 극지방에서 단 한 번도 물러난 적이 없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설 속의 땅인 로마르와 하이퍼보리아를 영원히 잠재워 버린 바로 그 거대한 추위 말이다.

남극에서 이러한 경향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연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늘날 우리는 일반적인 빙하기의 시작을 현재로부터 약 50만 년 전으로 잡고 있지만, 양극지방에서는 이 끔찍한 재앙이 훨씬 더 일찍 시작되었음이 분명하다. 모든 수치적 추정에는 어느 정도 추측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나, 퇴락한 조각상들이 만들어진 시기는 100만 년이 채 되지 않은 비교적 최근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구 전체 표면을 기준으로 삼는 통상적인 플라이스토세의 시작, 즉 50만 년 전보다도 훨씬 이전에 이미 도시가 완전히 버려졌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퇴락한 조각상 곳곳에는 식생이 희박해진 흔적이 남아 있었고, 옛존 재들의 삶 또한 점차 쇠퇴해가는 모습이 역력했다. 집 안에는 난방 장치의 묘사되어 있었으며, 겨울을 나기 위해 이동하는 이들은 보호용 천으로 몸을 푹푹 싸맨 모습이었다. 이어 우리는 일련의 카르투스슈(cartouches)를 발견했다. 후기 조각들에서는 연속적인 띠 형태의 배치의 자주 끊겨 있었는데, 그 조각들은 더 따뜻한 곳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이주 행렬을 그려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멀리 떨어진 해안

아래의 해저 도시로 도망쳤고, 또 어떤 이들은 속이 빈 언덕 속 석회암 동굴망을 타고 내려가 인근의 검은 심연, 즉 지하수로로 기어 들어갔다.

결국 가장 활발하게 식민지가 형성된 곳은 인근의 심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특별한 지역이 지닌 전통적인 신성함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아마도 더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을 것이다. 그곳은 벌집처럼 구멍이 뚫린 산맥에 자리한 거대한 신전들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광활한 대지 도시를 여름 별장이자 여러 광산과 소통하는 거점으로 삼기에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이다.

옛 거처와 새 거처를 잇는 길은 여러 단계의 정비와 개선 작업을 거치며 더욱 효율적으로 변해 있었다. 연결 통로를 따라 길을 닦았고, 고대 도시에서 검은 심연으로 곧장 이어지는 수많은 직통 터널을 깎아 만들기도 했다. 그 터널들은 아래를 향해 가파르게 뻗어 있었다. 우리는 정밀한 추산에 따라 그 터널의 입구들을 지도 위에 세심하게 그려 넣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탐사하기에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 적어도 두 개의 터널이 놓여 있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두 터널 모두 도시의 산 쪽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하나는 고대 강줄기 방향으로 1/4마일도 채 되지 않는 곳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 반대 방향으로 아마 그 두 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심연의 곳곳에는 마른 땅이 층을 이룬 해안이 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옛존재들은 그들의 새로운 도시를 수중 속에 건설했다. 아마도 수

중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에 훨씬 더 확실한 환경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숨겨진 바다의 깊이는 매우 깊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덕분에 지구 내부의 열기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곳을 살 만한 곳으로 유지해 줄 수 있었던 듯하다.

그 존재들은 아가미 체계가 퇴화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에, 수중에서 부분적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히 거주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곳에는 수많은 조각상이 있었다. 그 조각상들은 옛존재들이 다른 곳에 사는 수중 친족들을 얼마나 자주 방문했는지, 그리고 거대한 강바닥 깊은 곳에서 얼마나 습관적으로 몸을 씻었는지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었다. 남극의 길고 긴 밤에 익숙해진 종족에게, 땅속 깊은 곳의 어둠 따위는 결코 장애물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조각 양식은 의심할 여지 없이 퇴락해 있었으나, 해저 동굴 속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던 과정을 담아낸 최신 조각들만큼은 진정 서사적인 기품을 머금고 있었다. 옛존재들은 이 작업을 과학적으로 수행했다. 벌집처럼 구멍이 뚫린 산맥의 심장부에서 물에 녹지 않는 암석을 채굴했고, 가장 가까운 해저 도시에서 숙련된 노동자들을 불러들여 최선의 공법으로 건설을 진행했다.

이 일꾼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왔다. 동굴 도시에서 돌을 들어 올리는 생물과 그 뒤를 이을 짐 나르는 짐승들을 번식시키기 위한 쇼고스의 조직, 그리고 조명용 발광 생명체로 빔어낼 다른 원형질 물질들이 그것이었다.

* * * * *

마침내 그 스티기아의 바다 밑바닥에서 거대한 대도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건축 양식은 지상의 도시와 매우 흡사했다. 또한 건축 과정에 내재된 정밀한 수학적 요소 덕분에, 그 공예 기술은 퇴락한 기색 없이 비교적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새로 번식한 쇼고스들은 거대한 몸집과 기이할 정도로 높은 지능을 갖추게 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명령을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불행한 레이크의 해부 결과가 옳았다면, 쇼고스들은 옛존재들의 목소리를 흉내 내며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그것은 넓은 음역대를 넘나드는 일종의 음악적인 휘파람 소리 같았다. 또한 쇼고스들은 예전처럼 최면적인 암시에 의존하기보다는, 말로 내리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더 강해졌다.

하지만 그들은 훌륭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인광을 내뿜는 생물들은 매우 효과적으로 빛을 공급해주었으며, 덕분에 바깥세상의 밤을 채우던 익숙한 극광의 부재도 충분히 메울 수 있었다.

예술과 장식 또한 추구되었으나, 물론 어느 정도 퇴폐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다. 옛존재들 스스로도 이러한 쇠락을 인지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들은 여러 경우에 걸쳐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정책을 미리 예견한 듯한 행보를 보였다. 쇠락의 시대를 맞이했던 그 황제가 그리스와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예술품들을 약탈해, 자국민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화려한 비잔티움 수도를 건설했던 것처럼, 옛존재들 또한 자신들의 육상 도시에서 정교하게 조각된 고대의 석재들을 옮겨

심었다. 조각된 석재들의 이전 작업이 이보다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육상 도시가 처음부터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말했듯, 이 이야기를 전하는 퇴락한 문양과 기단부의 부조들은 제한된 탐색 범위 내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던 가장 최신의 유물이었다. 그 유물들은 옛존재들의 삶을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주었다. 그들은 여름에는 육지의 도시를, 겨울에는 해저 동굴의 도시를 오가며 생활했으며, 때로는 남극 해안 근처의 심해 도시들과 교역을 나누기도 했다.

파충류 가축들은 거의 다 죽어 있었고, 포유류들도 버티기 힘든 상태였다. 지상 세계의 작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형태가 일정치 않고 기이할 정도로 추위에 강한 쇼고스 중 일부를 육지 생활에 적응시켜야만 했다. 본래 옛존재들은 이런 일을 꺼려왔었다. 거대한 강에는 이제 생명력이 사라졌고, 상층 해역은 물개와 고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거주민을 잃었다. 새들은 모두 날아갔으며, 오직 거대하고 기괴한 펭귄들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짐작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 건설된 그 해저 동굴 도시는 얼마나 오랫동안 존속했을까? 영원한 어둠 속에 박제된 돌덩이 시체가 되어, 여전히 그곳 밑바닥에 잠겨 있는 것일까? 지하의 물들은 마침내 모두 얼어붙었을까? 외부 세계의 저 해저 도시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 밀려드는 빙하를 피해 옛존재들 중 누군가가 북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현재의 지질학적 증거

로는 그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북쪽의 외해(外海) 세계에는 여전히 그 끔찍한 미고(Mi-Go)가 위협으로 남아 있을까? 지구의 가장 깊은 곳, 빛조차 들지 않고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심연 속에 오늘날까지 무엇이 남아 있고 무엇이 사라졌는지, 과연 누가 확신할 수 있겠는가?

그 존재들은 어떤 압력도 견뎌낼 수 있었던 듯했다. 바다를 누비는 이들이 때때로 기이한 물건들을 낚아 올리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했다. 그리고 한 세대 전 보르크그레빙크가 발견했던, 남극 물개들에게 남겨진 야만적이고도 신비로운 흉터들을 범고래 이론이 정말로 설명해낼 수 있단 말인가?

불쌍한 레이크가 발견한 표본들은 이러한 추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질학적 환경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 표본들은 그 대륙 도시의 역사에서 아주 초기 단계에 살았던 존재들이었기 때문이다. 발견된 위치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은 분명히 최소 삼천만 년 전의 것이었다. 우리는 그 시절에는 바다 동굴 도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실 동굴 그 자체도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었으리라 생각했다.

그들은 훨씬 더 오래된 풍경을 기억했을 것이다. 사방에는 제3기의 식생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고, 주변에는 예술이 꽃피는 젊은 도시가 자리 잡은 모습 말이다. 또한 거대한 강줄기가 웅장한 산맥의 기슭을 따라 북쪽으로 굽이치며, 멀리 떨어진 열대 해양을 향해 흘러가는 광경도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표본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레이크의 처참하게 유린당한 캠프에서 사라진, 완벽한 상태의 여덟 점

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했다. 그 모든 사건에는 무언가 비정상적인 구석이 있었다. 누군가의 광기로 치부하며 애써 외면하려 했던 그 기괴한 일들, 그 소름 끼치는 무덤들, 그리고 사라진 물건들의 양과 그 정체까지도 말이다. 게드니의 행방, 그 고대의 괴물들이 지닌 초자연적인 강인함, 그리고 조각상들을 통해 드러난 그 종족의 기이하고 생명력 넘치는 변종들까지. 지난 몇 시간 동안 댄포스와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목격했다. 우리는 태초의 자연이 품은, 믿기 힘들고도 끔찍한 수많은 비밀을 받아들이고 침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IX.

우리는 그 거대한 도시의 입구에 도달했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기괴하고도 압도적인 건축물이었다. 그곳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문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이질적인 기하학적 질서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 거대한 성벽과 탑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뼈대처럼 보였으며, 그 형태는 비정상적이고도 불길한 곡선을 그리며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다. 우리는 그 거대한 구조물들 사이를 지나며, 우리가 발을 들인 곳이 인간의 영역이 아님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곳은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오래전 이곳을 지배했던 존재들의 흔적이었다.

타락한 조각상들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당면 목표가 바뀌었다고 앞서 언급했다. 이는 당연히 조각상들에 새겨진 통로와 관련이 있었다. 그 통로들은 우리가 이전에는 존재조차 몰랐던 검은 내면의 세계로 이

어져 있었다. 우리는 이제 그 세계를 필사적으로 찾아내어 직접 가로질러 가고자 했다.

조각의 압도적인 규모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인근 터널 중 어느 쪽이든 약 1마일가량 가파르게 내려가는 길을 따라가면, 거대한 심연을 둘러싼 아찔하고 햇빛조차 들지 않는 절벽 끝에 다다를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 절벽 옆으로는 옛존재들이 다듬어 놓은 길들이 나 있었고, 그 길은 숨겨진 채 어둠에 잠긴 바다의 암석 해안으로 이어졌다. 이 전설 같은 구령을 실제로 목격하고 싶다는 유혹은, 그 존재를 알게 된 순간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번 탐사 일정에 이 여정을 포함하려면 당장 조사를 시작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각은 어느덧 오후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손전등을 계속 켜두기에는 교체할 배터리가 부족했다. 빙하 아래에서 연구와 필사를 이어오느라 배터리를 거의 다섯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사용한 상태였다. 특수 건전지라 해도 이제 네 시간 정도면 바닥이 날 것이 분명했다. 물론 아주 흥미롭거나 까다로운 구간에서만 사용하고, 손전등 하나를 아껴둔다면 그보다 조금 더 버티며 안전하게 작업을 마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거대한 사이클로페스식 지하 묘지에서 빛 없이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심연 속으로 발을 내디뎌야 하는 지금, 벽면에 새겨진 문양을 해독하는 일은 더 이상 미뤄둘 수밖에 없었다. 물론 우리는 이곳을 다시 찾아와 며칠, 어쩌면 몇 주 동안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사진을 찍

을 계획이었다. 공포보다는 호기심이 이미 오래전에 앞질러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서둘러야만 했다.

길을 표시할 종이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었다. 여분의 공책이나 스케치용 종이를 떼어내어 종이를 보충하는 일은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커다란 공책 한 권을 내주기로 했다.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면 바위를 깎아 흔적을 남기는 방법도 있었다. 설령 길을 완전히 잃는다 해도, 시행착오를 거칠 충분한 시간만 있다면 어떻게든 통로를 찾아내어 해가 뜰 때까지 버텨낼 수 있을 터였다. 마침내 우리는 표시해 둔 가장 가까운 터널을 향해 의욕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가 지도를 만드는 데 사용했던 조각들을 토대로 추측건대, 우리가 찾던 터널 입구는 현재 위치에서 4분의 1마일(약 400m)을 채 넘지 않는 곳에 있을 터였다. 그 사이 공간에는 견고해 보이는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빙하 아래층을 파고 들어간다면 충분히 진입할 수 있을 듯한 모습이었다. 터널의 입구는 거대한 오각형 구조물의 지하층에 위치할 것이 분명했다. 그 건물은 분명 공공의 목적이나 의례를 위해 세워진 것으로 보였으며, 우리는 항공 측량을 통해 그 유적의 정체를 파악하려 애썼다. 구조물은 산기슭과 가장 가까운 모서리 부분에 입구를 두고 있었다.

우리가 도망치던 순간을 떠올려 보아도, 그런 구조물이 있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조물의 윗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목격했던 빙열 사이로 완전히 박살 나 버렸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만약 후자라면 터널은 아마 무언가로 가득

막혀 있을 터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쪽으로 1마일도 채 되지 않는 곳에 있는, 그다음으로 가까운 터널을 찾아 나서야만 했다.

강줄기가 가로막고 있는 탓에 이번 탐사에서는 더 남쪽에 위치한 터널들을 시도해 볼 수 없었다. 게다가 인접한 두 터널이 모두 막혀 있는 상황이라면, 두 번째 후보지에서 약 1마일 정도 더 북쪽에 있는 다음 터널을 시도해 볼 만큼 우리 배터리가 버텨 줄지조차 의심스러웠다.

우리는 지도와 나침반에 의지해 미로 같은 내부를 어스름한 빛 속에서 헤쳐 나갔다. 어떤 방과 복도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었고, 어떤 곳은 마치 방금 만든 것처럼 온전한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다. 경사로를 기어오르고, 위층과 다리를 건너간 뒤 다시 아래로 내려가기를 반복했다. 막힌 문과 잔해 더미를 마주하기도 했고, 때로는 기이할 정도로 깨끗하게 보존된 구간을 따라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왔던 길을 되돌아갔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남겨둔 종이 표식들을 말끔히 치우며 나아갔다. 가끔은 햇빛이 쏟아져 내리거나 가늘게 흘러드는 탁 트인 수직 통로의 바닥에 닿기도 했다. 그 여정 내내, 길을 따라 늘어선 조각된 벽면들이 우리의 시선을 붙들며 끊임없이 유혹하듯 나타났다.

우리는 터널 입구가 있을 것으로 계산된 지점 아주 가까이까지 기어 들어갔다. 2층 높이의 다리를 건너자 뽀족한 벽의 끝단처럼 보이는 곳이 나타났고, 우리는 그곳에서 아래로 내려가 폐허가 된 복도로 접어들었다. 그 복도에는 후대에 만들어진 듯한, 퇴폐적이고도 정교하며 의

식용으로 쓰였을 법한 조각상들이 유독 풍성하게 늘어서 있었다. 오후 8시 30분경, 예민한 감각을 지닌 젊은 댄포스의 코끝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냄새가 처음으로 스쳤다.

만약 우리에게 개 한 마리라도 있었다면, 진작에 경고를 받았을 것이다. 처음에는 예전처럼 수정처럼 맑았던 공기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불과 몇 초 지나지 않아, 기억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주저하지 않고 그 사실을 말해 보겠다. 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막연하면서도 미묘하게, 그리고 틀림없이, 불쌍한 레이크가 해부했던 그 공포스러운 존재가 묻힌 광기 어린 무덤을 열었을 때 우리를 구역질 나게 했던 바로 그 냄새와 닮아 있었다.

물론, 당시에는 그 사실이 지금처럼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가능한 설명이 여러 가지였기에, 우리는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한동안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논쟁을 이어갔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더 조사하지 않고 물러서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여기까지 온 이상, 확실한 재앙이 닥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우리의 발길을 돌리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가 의심했던 그 무언은 도저히 믿기 힘들 만큼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그런 일은 평범한 세상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마도 순전한 본능이었을 것이다. 압도적인 벽면에서 위협적으로 눈을 부라리던 퇴폐적이고 불길한 조각상들에 더는 유혹되지 않으려, 우리는 들고 있던 단 하나의 횃불을 낮추었다. 또한 점점 더 어지

러워지는 바닥과 잔해 더미 위를 조심스럽게 발끝으로 걷거나 기어가는 식으로 움직이게 만든 것도, 아마 그 본능이었을 것이다.

나보다 댄포스의 눈과 코가 더 예민했던 모양이다. 지표면에 연결된 방과 복도로 이어지는, 반쯤 막힌 아치형 통로들을 수없이 지나온 뒤였다. 잔해의 기묘한 모습에 가장 먼저 주목한 이 역시 댄포스였다. 수만 년의 세월 동안 버려진 곳이라기엔 그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불빛을 더 비추자, 잔해 사이로 무언가 최근에 휩쓸고 지나간 듯한 흔적이 보였다. 흔적의 형태가 불규칙해 정확히 무엇이라 단정할 수는 없었으나, 매끄러운 바닥 곳곳에는 무거운 물체를 끌고 간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한때는 마치 썰매가 지나간 것처럼 평행한 궤적이 보인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는 다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던 그 순간, 우리는 앞쪽에서 풍겨오는 또 다른 냄새를 동시에 맡았다. 역설적이게도 그 냄새는 덜 공포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더 공포스러운 것이었다. 냄새 자체만 따지면 덜 무서운 것이었으나, 우리가 처한 상황과 이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그 무엇보다도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만약 게드니가—아니, 그 냄새는 분명하고도 익숙한, 평범한 휘발유 냄새였다. 일상에서 흔히 맡는 바로 그 가솔린 냄새였다.

* * * * *

그 이후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심리학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캠프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공포가 무언가 거대한 형태로 확장되어, 영겁의 세월이 잠든 이 어두운 무덤 속으로 기어 들어왔으리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렇기에 눈앞에 이름 모를 존재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현재 진행형이든 혹은 아주 최근의 일이든, 더는 의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결국 우리를 몰아붙인 것은 순수한 호기심, 혹은 불안, 자기최면, 아니면 게드니에 대한 막연한 책임감이었을지도 모를, 그 무엇인지 모를 강렬한 충동이 었다.

덴포스는 폐허 위쪽 골목이 꺾이는 지점에서 보았던 것 같은 그 발자국에 대해 다시금 속삭였다. 그는 또한 희미한 피리 소리 같은 음악 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 소리는 바람 부는 봉우리의 동굴 입구에서 울리는 메아리와 매우 흡사했으나, 레이크의 해부 보고서를 고려하면 엄청난 의미를 지닌 것일지도 몰랐다. 덴포스의 말에 따르면, 발자국을 본 직후 그는 저 아래 알 수 없는 심연으로부터 들려오는 듯한 그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다고 했다.

나 역시 내 차례가 되자 캠프가 어떤 상태로 남겨졌는지 속삭이듯 말했다. 무엇이 사라졌는지, 그리고 홀로 살아남은 자의 광기가 어떻게 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머릿속에 그려냈을지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괴물 같은 산맥을 가로지르는 거친 여정과, 미지의 원시적인 석조 구조물 속으로 내려간 그 기괴한 행적에 대해서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설득할 수도, 심지어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도 없었다. 그 무엇도 확실히 알 수 없었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 모든 불을 껐다. 그저 희미하게나마, 깊게 여과된 상공의 햇빛이 남아 있어 암흑

이 완전히 밀려드는 것만은 막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다.

우리는 자동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고, 간간이 비치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나아갔다. 어지럽게 흩어진 잔해들은 떨쳐낼 수 없는 불길한 인상을 남겼고, 가솔린 냄새는 점점 더 짙어졌다. 눈앞에는 폐허가 끝없이 나타나 발길을 붙잡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앞길이 끊기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중에서 언뜻 보았던 그 균열에 대해 우리가 내렸던 비관적인 추측은 너무나도 정확했다. 터널을 찾는 우리의 탐색은 막다른 길이었다. 심연을 향해 뚫린 구멍이 있는 지하층에조차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우리가 서 있는 막힌 복도의 기괴하게 조각된 벽면 위로 햇불이 번뜩였다. 벽면을 비추자 여러 개의 문이 보였는데, 문마다 막혀 있는 정도가 제각각이었다. 그중 한 문에서는 다른 냄새를 완전히 집어삼킬 만큼 강렬한 휘발유 냄새가 유독 선명하게 풍겨 나왔다.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문 근처의 잔해들이 최근에 조금 치워진 상태였다. 숨어 있는 공포가 무엇이든 간에, 그놈에게로 향하는 직접적인 통로가 이제 분명히 드러난 셈이었다. 우리가 다음 행동을 옮기기 전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망설이며 기다렸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그 검은 아치 안으로 발을 들였을 때, 우리가 처음 느낀 감정은 허탈함이었다. 한 번의 길이가 약 20피트에 달하는 완벽한 정

육면체 형태의 그 조각된 지하 묘지는 온갖 파편들로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즉각적으로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 만큼 최근에 남겨진 물건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문을 찾아 헤맸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잠시 후, 댄포스의 예리한 시선이 바닥의 잔해들이 어지럽게 흐트러진 곳을 찾아냈다. 우리는 두 손전등을 최대한으로 밝혀 비추었다. 그 빛 아래 드러난 모습 자체는 사실 단순하고 사소한 것이었으나, 그것이 암시하는 바 때문에 나는 차마 그 사실을 입에 올리기가 꺼려진다.

파편들이 거칠게 평평하게 깔린 지형이었다. 그 위에는 작은 물건 몇 개가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최근에 상당한 양의 가솔린이 쏟아진 것이 분명했다. 이 높은 초고원 지대에서도 가솔린의 강한 냄새가 진동할 정도였다. 다시 말해, 이곳은 일종의 캠프였다. 우리처럼 심연으로 향하는 길이 예상치 못하게 막혀버린 탓에, 탐사를 이어가려던 존재들이 머물다 간 흔적임이 틀림없었다.

솔직히 말하겠다. 흩어져 있던 물건들은 물질적인 면에서 모두 레이크의 캠프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그 참혹한 현장에서 보았던 것들처럼 기괴한 방식으로 열린 통조림 캔들, 다 타버린 성냥 수십 개, 다소 기묘한 얼룩이 묻은 삽화가 들어간 책 세 권, 그림과 설명이 인쇄된 종이갑이 딸린 빈 잉크병, 부러진 만년필, 이상한 모양으로 잘려 나간 털 조각과 텐트 천 조각들, 사용 설명 전단

이 딸린 다 쓴 전지, 우리가 쓰는 종류의 텐트 히터에 달려 오는 안내 책자, 그리고 여기저기 구겨진 종이 몇 장이었다.

상황은 이미 충분히 최악이었다. 하지만 흩어진 서류들을 가지런히 펴고 그 내용을 확인한 순간, 우리는 마침내 최악의 국면에 도달했음을 직감했다. 캠프에서 발견했던, 정체를 알 수 없는 얼룩이 묻은 종이가 이 미리 경고를 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악몽 같은 도시, 그 인류 이전의 지하 회랑에서 마주한 광경은 차마 견디기 힘들 만큼 압도적이었다.

* * * * *

미친 상태의 게드니라면 초록빛 비누석에서 발견된 점들을 흉내 내어 점들을 찍었을지도 모른다. 마치 그 광기 어린 오각 형태의 무덤들 위에 새겨진 점들처럼 말이다. 또한 그는 인근 도시의 윤곽을 그린 거칠고 서두른 스케치들을 남겼을 가능성도 있다. 그 스케치들의 정확도는 제각각이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나온 경로 밖의 어느 지점에서 시작해 현재의 오각 구조물과 그곳의 터널 입구로 이어지는 길을 그려두었을 것이다. 우리가 조각상에서 거대한 원통형 탑으로 확인했고, 항공 조사에서 거대한 원형 만으로 목격했던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그런 스케치들을 준비했을지도 모른다. 우리 앞에 놓인 스케치들은 우리 것이 그랬던 것처럼, 빙하 미로 어딘가에 남겨진 후기 조각상들을 토대로 분명히 작성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직접 보고 참고했던 조각상들은 아니었다. 하지만 예술적 감

각이라곤 전혀 없는 이 서투른 자가 도저히 해낼 수 없었을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스케치에 담긴 기묘하고도 확신에 찬 기법이다. 비록 서두르고 부주의하게 그려졌을지언정, 그 기법은 스케치의 모태가 된 퇴락한 조각들보다도 훨씬 뛰어났다. 그것은 죽은 도시가 번성하던 시절, 옛존재들이 직접 구사했던 특유의, 그리고 틀림없는 그들만의 기법이었다.

그 일을 겪고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도망치지 않은 것을 두고, 댄포스와 나는 완전히 미쳐버린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결론은 비록 터무니없을지언정 이미 확고하게 굳어졌으며, 그 내용은 내 기록을 여기까지 읽은 이들에게라면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미쳤던 것인지도 모른다. 내가 그 끔찍한 봉우리들을 두고 '광기의 산맥'이라 부르지 않았던가? 하지만 아프리카 정글 속에서 치명적인 맹수를 촬영하거나 그 습성을 연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뒤쫓는 이들에게서도, 비록 그 정도는 아닐지언정 비슷한 광기를 엿볼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당시 우리는 공포에 질려 몸이 반쯤 마비될 지경이었으나, 그럼에도 우리 내면에서는 경외심과 호기심이라는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고, 결국 그 불꽃이 공포를 이겨냈다.

물론 우리는, 그곳에 분명 있었다고 알고 있던 그 존재—혹은 그 존재들—와 정면으로 마주할 생각은 없었다. 다만 지금쯤은 그들이 떠났으리라 느꼈다. 그들은 이미 심연으로 통하는 인근의 다른 입구를 찾아냈을 것이고, 그 너머에 도사린 과거의 칠흑 같은 파편들을 향해 나아갔을 터였다. 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 궁극의 심연 속으로 말이

다. 설령 그 입구마저 막혀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른 길을 찾아 북쪽으로 계속 나아갔을 것이다. 우리는 기억해 냈다. 그들은 빛의 유무와는 어느 정도 무관하게 움직이는 존재들이었다.

그 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새로운 감정이 정확히 어떤 형태를 띠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기대감을 그토록 날카롭게 자극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차마 기억해 내기 어렵다. 우리는 분명 두려워하던 대상과 마주할 의도는 없었다. 하지만 숨겨진 관측 지점에서 무언가를 몰래 훑쳐보고 싶다는, 무의식 속에 잠복해 있던 욕망이 우리에게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지 않겠다.

우리가 발견한 구겨진 스케치에 그려진 그 거대한 원형의 장소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고 해서, 심연 그 자체를 엿보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 꺾인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는 조각된 문양을 통해 그것이 거대한 원통형 탑이라는 사실을 즉시 알아차렸다. 다만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는 그저 엄청나게 거대한 원형 구멍처럼 보일 뿐이었다.

서둘러 그려낸 도표임에도 불구하고, 그 묘사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정교함은 우리로 하여금 빙하 아래의 층계들이 여전히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어쩌면 그곳에는 우리가 아직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한 건축학적 경이로움이 구현되어 있을지도 몰랐다. 그 구조물이 묘사된 조각상들에 따르면, 그것은 분명 믿기 힘들 정도로 오래된 것이었으며, 실제로 그 도시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건축물 중 하나였다. 만약 그 조각들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면, 그것들은 매우 중대한 단서를 품고 있을 터였다. 게다가 그 통로는 지상 세계와

연결되는 훌륭한 통로가 될 수도 있었다. 우리가 지금 이토록 공들여 길을 개척하고 있는 경로보다 훨씬 짧은 지름길이자, 아마도 그 존재들이 내려왔을 바로 그 길일지도 몰랐다.

* * * * *

어찌 되었든, 우리가 한 일은 그 끔찍한 스케치들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 그림들은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완벽하게 뒷받침해주었다. 우리는 스케치에 표시된 경로를 따라 다시 그 원형의 장소로 향했다. 이름 모를 선행자들이 우리보다 앞서 이미 두 번이나 오갔을 그 길을 말이다. 심연으로 통하는 또 다른 인접한 문은 그 너머에 있을 것이었다.

우리의 여정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여정 내내 종이를 아껴가며 흔적을 남겼는데, 그 방식은 막다른 곳에 도달할 때와 거의 같았다. 다만 이번에는 지면을 따라 더 밀착해서 움직였고, 때로는 지하 복도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발밑에 흩어진 잔해나 쓰레기 사이에서 가끔 불길한 흔적들이 눈에 띄었다. 휘발유 냄새가 나는 구역을 벗어나자,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끈질긴 악취가 다시금 희미하게, 그리고 발작적으로 코끝을 스쳤다. 길이 원래 가던 경로에서 갈라지기 시작하자, 우리는 가끔 들고 있던 손전등 빛을 벽면을 따라 슬쩍 훑어보았다. 그때마다 거의 모든 곳에서 조각상들이 나타났다. 마치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만 같았다. 그 조각들은 정말이지 옛존재들이 자신들의 미적 욕구를 분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주된 수단처럼 보였다.

오후 9시 30분경이었다. 우리는 아치형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바닥은 점점 더 빙결되어 지표면보다 낮은 곳에 있는 듯했고, 앞으로 나아갈수록 천장은 점점 낮아졌다. 그러다 전방에서 강렬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우리는 손전등을 끌 수 있었다. 우리는 거대하고 둥근 광장에 다다르고 있는 듯했다. 지상과는 그리 멀지 않은 곳까지 내려온 모양이었다.

복도는 아치형 입구로 이어졌다. 거대한 석조 유적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낮았으나, 그 너머를 통해 밖으로 나가기도 전부터 많은 것이 보였다. 아치 너머로는 지름이 무려 200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원형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은 잔해들로 어지러웠고, 우리가 막 건너려던 아치와 닮은 통로들이 곳곳에 막힌 채 늘어서 있었다. 벽면에는 비어 있는 공간을 따라 영웅적인 규모의 나선형 띠가 대담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탁 트인 공간 탓에 풍화 작용이 심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각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마주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뛰어난 예술적 화려함을 뽐내고 있었다. 잔해가 널브러진 바닥은 빙하에 두껍게 덮여 있었는데, 우리는 실제 바닥이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조물은 거대한 돌계단이었다. 계단은 아치형 통로를 지나 바닥 쪽으로 급격히 꺾여 나간 뒤, 거대한 원통형 벽을 따라 나선형으로 휘감아 올라갔다. 마치 고대 바빌론의 거대한 탑이나 지구라트 외벽을 타고 오르던 계단이, 그 안쪽으로 거꾸로 뒤집혀 들어앉은 듯한 형상이었다. 우리가 하늘에서 이 구조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급박했던 탈출 과정 때문이었다. 계다가 탑

의 내벽과 아래로 향하는 경사가 시각적으로 뒤섞여 보이는 착시 현상까지 더해졌다. 결국 우리는 이 계단을 보지 못한 채, 빙하 아래층으로 향할 다른 길을 찾아 헤매야만 했다.

패보디라면 저 구조물을 지탱하는 공학 기술이 어떤 방식인지 설명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댄포스와 나는 그저 경탄하며 바라볼 뿐이었다. 여기저기 거대한 돌 까치발과 기둥들이 보였으나, 우리가 목격한 것들만으로는 저 거대한 건축물이 수행하는 기능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스러워 보였다. 탑의 현재 상단부까지 구조물은 아주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또한 탑의 내부 공간은 벽면에 새겨진 기괴하고 불길한 우주적 조각상들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 * * * *

우리가 이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의 바닥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곳에는 기괴한 반광이 감돌고 있었다. 오천만 년의 세월을 견뎌온 이 구조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마주한 것 중 가장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건축물이었다. 경사로가 설치된 벽면은 아찔한 높이로 솟아 있었는데, 그 높이가 족히 60피트에 달했다.

항공 조사 당시 확인했던 기억을 되짚어보니, 이것은 약 40피트 두께의 외부 빙하 작용이 있었음을 의미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았던 그 아득한 심연은, 부서진 석조물로 이루어진 약 20피트 높이의 언덕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언덕은 거대한 곡선형 벽을 이룬 높은 유적들에 둘러싸여 있어, 둘레의 4분의 3 정도가 어느 정도 보호받는

형국이었다. 조각상들의 묘사에 따르면, 본래 이 탑은 거대한 원형 광장 중앙에 우뚝 솟아 있었던 모양이다. 탑의 높이는 아마도 500에서 600피트에 달했을 것이며, 꼭대기 근처에는 수평 원반들이 층층이 쌓여 있고 상단 테두리를 따라 바늘처럼 뾰족한 첨탑들이 줄지어 늘어 있었다.

석조 구조물 대부분은 안쪽이 아니라 분명 바깥쪽으로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차라리 다행인 일이었다. 만약 안쪽으로 무너졌다면 경사로가 산산조각 나고 내부 전체가 잔해로 가득 차 숨통을 막아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의 경사로는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으나, 다행히 내부를 메운 잔해들은 아치형 입구들을 겨우 절반 정도만 가로막고 있는 듯 보였다.

우리는 곧 결론을 내렸다. 이곳이 바로 다른 이들이 내려갔던 경로이며, 비록 다른 곳에 종이 띠를 길게 늘어뜨려 놓긴 했으나 우리가 다시 올라갈 때에도 이 길이 가장 합리적인 경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탑의 입구는 산기슭과 대기 중인 비행기로부터, 우리가 들어갔던 거대한 계단식 건물에 못지않게 가까웠다. 그리고 이번 탐사에서 빙하 아래를 더 조사하게 된다면, 아마도 모두 이 근방에서 이루어질 터였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우리가 목격하고 추측한 그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도, 여전히 나중에 다시 이곳을 찾아올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 거대한 바닥에 널브러진 잔해들을 조심스레 헤치며 나아가

던 중, 그 순간만큼은 다른 모든 고민을 잊게 만들 만큼 압도적인 광경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

경사로의 하단부, 바깥쪽으로 돌출된 구간의 먼 구석에는 썰매 세 대가 가지런히 모여 있었다. 지금까지는 그곳이 가려져 있어 우리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다. 레이크의 캠프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 썰매 세 대가 그곳에 있었다. 썰매들은 몹시 험하게 다뤄진 흔적이 역력했다. 눈조차 없는 석조 구조물과 잔해더미 위를 강제로 끌고 왔거나,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험로를 일일이 손으로 직접 옮겨야만 했을 것이 분명한 상태였다.

물건들은 지능적이고도 세심하게 포장되어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 안에는 잇기 힘들 만큼 익숙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가솔린 스토브와 연료통, 계기함, 식량 통조림, 그리고 책이 가득 들어 있어 불룩하게 솟아오른 방수포들이 보였다. 그 외에도 내용물을 짐작하기 어려운 물건들이 담긴 꾸러미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레이크의 장비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다른 방에서 마주했던 일 덕분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이번 조우에 대비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우리가 그쪽으로 발을 옮겨, 유독 기분 나쁜 윤곽을 드러내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방수포 하나를 걷어 올렸을 때 찾아왔다. 레이크뿐만 아니라 다른 대원들도 전형적인 표본을 수집하는 데 관심을 가졌던 모양이었다. 그곳에는 두 구의 사체가 있었다. 둘 다 꼼꼼 얼어붙은 채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으며, 목 주위에 상처가 난 부분은 접착 테이프로 응급처치를 해둔

상태였다. 더 이상의 손상을 막으려는 듯 정성스럽게 싸여 있었다. 그것들은 젊은 게드니와 행방불명되었던 개의 사체였다.

번역할 원문을 입력해 주십시오. 즉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비극적인 발견을 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북쪽 터널과 심연을 떠올리는 것을 보고, 많은 이들은 우리가 미쳤을 뿐만 아니라 냉혈하기까지 하다고 판단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이 우리 앞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쳐 새로운 추측의 연쇄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즉시 그런 생각들을 다시 떠올렸을 것이라고는 차마 말할 수 없다.

불쌍한 게드니의 시신 위로 방수포를 덮어준 우리는, 말문이 막힌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소리가 들려왔다. 산맥의 비현실적인 고지대에서 산바람이 희미하게 울부짖던 탁 트인 공간을 벗어난 이후, 처음으로 의식에 닿은 소리였다.

그 소리는 지극히 흔하고 일상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이 죽음의 황량한 세계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그 어떤 기괴하거나 환상적인 음성보다도 더 뜻밖이었고 소름 끼쳤다. 그 소리가 우리가 가진 우주의 조화에 대한 모든 관념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레이크의 해부 보고서를 통해 예상했던, 혹은 캠프의 참극을 목격한 뒤부터 우리가 들은 모든 바람의 울음소리에서 억지로 찾아내려 했던 그 기괴하고 광범위한 악기 소리의 흔적이었다면,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이 영겁의 세월이 죽어버린 황무지와 기괴할 정도로

조화를 이루었을 것이다. 다른 시대에서 온 목소리는 마땅히 다른 시대의 무덤 속에 머물러야 하는 법이니까.

하지만 그 소음은 우리가 간신히 유지해 온 심리적 안정을 단번에 산산조각 냈다. 우리는 남극의 내륙이란 정상적인 생명의 흔적이라곤 전혀, 그리고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황무지일 뿐이라고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우리가 들은 것은 고대의 지구에 묻혀 있던 어떤 신성 모독적인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태고의 강인함을 지닌 대지로부터, 시대를 잊은 극지의 태양이 불러일으킨 괴이한 응답 같은 것도 아니었다. 대신 그것은 너무나도 조롱하듯 평범한 소리였다. 빅토리아 랜드 해안에서 보낸 항해와 맥머도 사운드의 캠프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소리였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이곳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짧게 말하자면, 그것은 그저 펭귄의 거친 울음소리였다.

우리가 지나온 복도와 거의 정반대편, 즉 거대한 심연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터널 방향인 빙하 아래 깊숙한 곳에서 둔탁한 소리가 떠올랐다. 지표면 전체가 영겁의 세월 동안 생명력 하나 없이 균일한 죽음의 세계나 다름없는 이곳에서, 그런 방향으로부터 살아있는 물새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사실은 단 하나의 결론만을 가리켰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그 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소리는 분명히 반복되었고, 때로는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목구멍에서 흘러나오는 듯했다.

우리는 근원을 찾아 잔해를 치워둔 아치형 입구로 들어섰다. 햇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 발을 들이며, 우리는 다시 길을 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썰매에 실린 타포린 뭉치 중 하나를 열어 종이를 꺼내 들었는데, 왠지 모를 혐오감이 밀려와 기분은 몹시 불쾌했다.

빙하로 뒤덮인 바닥이 잔해더미로 바뀌면서, 우리는 무언가 기이하게 끌린 흔적들을 분명히 식별할 수 있었다. 한 번은 댄포스가 어떤 종류의 뚜렷한 발자국 하나를 발견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였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명백했다. 펭귄들의 울음소리가 가리키는 방향은 지도와 나침반이 지시하는 북쪽 터널 입구로 향하는 경로와 정확히 일치했다. 다행히 지면과 지하층을 잇는 통로가 다리 없이도 트여 있는 듯 보였다.

지도에 따르면, 터널은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 지하에서 시작되어야 했다. 항공 조사 당시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그 구조물은 놀라울 정도로 보존 상태가 양호해 보였다. 우리는 길을 따라 나아갔다. 들고 있는 햇불 하나가 비추는 길목마다 조각들이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빼곡히 새겨져 있었으나, 우리는 그것들을 살펴보기 위해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 * * * *

갑자기 거대한 흰 형체가 우리 앞을 가로막으며 나타났다. 우리는 서둘러 두 번째 손전등을 비추었다. 이 새로운 탐색이 시작되자, 근처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지 몰라 두려워하던 이전의 공포가 얼마나 완전히 씻겨 나갔는지 참으로 기이할 따름이었다. 그 다른 존재들은 거대

한 원형 광장에 보급품을 남겨둔 채, 심연을 향해 혹은 심연 속으로 정찰을 떠났다가 돌아올 계획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이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들에 대한 모든 경계심을 완전히 떨쳐버린 상태였다.

그 하얗고 뒤통거리는 생명체는 키가 족히 6피트에 달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앞서 보았던 다른 존재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즉각 깨달았다. 그들은 훨씬 더 거대하고 어두운 색이었으며, 조각상에 묘사된 바에 따르면 바다에서 쓰는 기괴한 촉수 장치에도 불구하고 육지 위를 매우 빠르고 거침없이 움직였다. 그러나 그 하얀 생명체가 우리에게 전혀 공포를 주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허세일 것이다. 우리는 그 순간, 앞서 보았던 존재들에 대해 느꼈던 이성적인 공포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원초적인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 순간 허탈감이 밀려왔다. 하얀 형체는 우리 왼쪽의 측면 아치형 입구로 미끄러지듯 들어가더니, 시끄러운 울음소리로 그것을 불러냈던 다른 두 마리의 동족에게 합류했다. 그것은 그저 펭귄일 뿐이었다. 비록 알려진 종 중 가장 거대한 킹펭귄보다도 훨씬 크고 미지의 종이었으며, 백색증과 눈이 거의 없는 기괴한 모습이 결합되어 괴물처럼 보였을지언정 말이다.

우리가 그 괴물을 따라 아치형 입구 안으로 들어가, 무심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는 세 존재를 향해 양손의 횃불을 비추었을 때, 우리는 그들이 모두 눈이 없는 알비노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종의 개체들이었다.

그것들의 크기를 보니 옛존재들의 조각상에 묘사된 고대의 펭귄들이 떠올랐다. 우리는 머지않아 그것들이 같은 혈통에서 유래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것들은 분명 더 따뜻한 내륙 지역으로 후퇴하여 살아남았을 것이다. 그곳은 영원한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었기에, 그 어둠이 그것들의 색소를 없애버렸고 눈을 그저 쓸모없는 틈새처럼 퇴화시켰을 것이 분명했다.

그들이 현재 거주하는 곳이 우리가 찾던 그 거대한 심연이라는 사실에는 한 치의 의심도 들지 않았다. 심연이 여전히 온기를 머금은 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증거를 마주하자, 우리는 기묘하면서도 온근히 마음을 뒤흔드는 상상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우리는 이 세 마리의 새가 어쩌서 평소의 서식지를 벗어나 이곳까지 흘러 들어왔는지 의아했다. 거대한 죽은 도시의 상태와 정적을 보던대, 이곳이 계절마다 새들이 모여드는 서식지였던 적은 결코 없었음이 분명했다. 게다가 그 세 마리의 새는 우리의 존재를 전혀 개의치 않았는데, 그렇다면 지나가던 다른 무리들이 나타나더라도 새들이 놀라기는커녕 이토록 무심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혹시 다른 개체들이 공격적인 의도를 품었거나, 식량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움직인 것은 아닐까? 개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그 자극적인 냄새가 이 펭귄들에게도 똑같은 혐오감을 불러일으켰을지는 의문이었다. 이들의 조상은 분명 옛존재들과 아주 원만하게 지냈던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옛존재들 중 단 하나라도 저 심해에 남아 있는 한, 그 우호적인 관계 또한 그곳에서 계속 이어져 왔을 것이 분명했다.

순수 과학을 향한 옛 열정이 불쑥 솟구치며, 우리는 이 기이한 생명체들을 사진으로 남기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우리는 곧 그들의 괴상한 울음소리를 뒤로한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제 그 끝이 분명히 증명된 심연을 향해서였다. 가끔씩 나타나는 펭귄의 발자국이 그 심연이 정확히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었다.

* * * * *

얼마 지나지 않아, 문도 없고 조각 흔적조차 기묘할 정도로 없는 길고 낮은 복도가 가파르게 아래로 이어졌다. 우리는 마침내 터널 입구에 다다르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사이 펭귄 두 마리를 더 지나쳤다.

그윽한 복도는 이윽고 거대한 공간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그곳은 완벽한 역반구 형태를 띤 거대한 공동이었다. 분명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공간이었으며, 지름은 족히 100피트, 높이는 50피트에 달했다. 원주를 따라 곳곳에 낮은 아치형 통로들이 나 있었으나, 단 한 곳만은 예외였다. 그곳에는 검고 아치형인 거대한 구멍이 동굴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높이가 거의 15피트에 이르러 천장의 대칭 구조를 깨뜨리고 있었다. 그곳은 거대한 심연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다.

이 거대한 반구형 공간의 천장은 태초의 천구와 흡사하도록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으나, 그 화려함은 어딘지 퇴락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곳에는 알비노 펭귄 몇 마리가 뒤뚱거리며 걷고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었으나, 주변 환경에는 무심한 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듯했다. 검은 터널은 가파른 내리막을 따라 끝없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입구는 기괴하게 조각된 문설주와 인방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 기괴한 입구로부터 약간은 더 따스한 공기가 흘러나오는 듯했고, 어쩌면 희미한 수증기마저 배어 나오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공허와, 벌집처럼 얇힌 대지, 그리고 거대한 산맥들이 펭귄 말고 또 어떤 생명체를 숨기고 있을지 궁금해했다.

우리 역시 의구심을 품었다. 불쌍한 레이크가 처음 의심했던 산 정상
의 연기 흔적과, 우리 스스로가 성벽처럼 둘러싸인 봉우리 주변에서
목격했던 기묘한 안개가 혹시 지구 핵의 심연으로부터 뒤틀린 통로를
타고 솟구쳐 오른 어떤 증기 때문은 아닐까 하고 말이다.

터널 안으로 들어서자 그 윤곽이 드러났다. 입구 쪽은 가로세로가
각각 약 15피트 정도였으며, 벽면과 바닥, 그리고 아치형 천장 모두 일
반적인 거석 조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벽면에는 후대의 퇴폐적인
양식으로 그려진 평범한 문양의 카르투슈들이 드문드문 장식되어 있
었다. 건축물과 조각 모두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였다.

바닥은 꽤 깨끗했다. 밖으로 나가는 펭귄들의 발자국과 안으로 들어
오는 다른 생명체들의 발자국이 남긴 약간의 부스러기들만 보일 뿐이
었다.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기온은 점차 올라갔다. 우리는 곧 두
꺼운 겉옷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지하에 실제로 화산 활
동의 흔적이 있는지, 그리고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이 바다의 물이 뜨거
운지 궁금해졌다.

얼마 못 가 석조 구조물은 단단한 암반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터널의 너비와 높이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정교하게 깎아 만든 듯한 규칙적인 모습 또한 변함이 없었다. 가끔 경사가 너무 가팔라지는 구간에서는 바닥면에 깊은 홈이 파여 있기도 했다.

우리는 도면에 기록되지 않은 작은 측면 통로들의 입구를 몇 차례 발견했다. 그 통로들이 우리의 귀환 경로를 복잡하게 만들 정도는 아니었으나, 만약 심연에서 돌아오는 불길한 존재들과 마주치게 된다면 모두가 소중한 은신처가 되어줄 것이었다.

그것들이 풍기는 이름 모를 냄새는 매우 뚜렷했다. 현재의 상황에서 저 터널 안으로 발을 들이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살 행위나 다름 없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하지만 미지의 세계가 품은 유혹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여, 어떤 이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강렬하게 작용한다. 사실, 우리를 이 기이한 남극의 황무지로 이끈 것 또한 바로 그러한 유혹이었다.

지나가는 길에 펭귄 몇 마리를 마주쳤다.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할 거리가 얼마나 될지 가늠해 보았다. 벽면에 새겨진 조각들을 보았을 때는 심연에 이르기까지 약 1마일 정도 가파른 내리막길을 걸어야 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전의 탐사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사물의 규모라는 것이 결코 온전히 믿을 만한 것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

약 400미터쯤 더 나아가자 그 이름 모를 악취가 더욱 강렬하게 코를 찔렀다. 우리는 지나쳐 오는 측면 통로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기록하며 나아갔다. 입구에서 보았던 것 같은 수증기는 보이지 않았으나, 이

는 차가운 공기와의 대비가 없기 때문임이 분명했다. 기온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그러다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여 몸서리쳐지는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레이크의 캠프에서 가져온 모피와 텐트 천들이었다. 우리는 그 천들이 어떤 기괴한 형태로 갈기갈기 찢겨 있는지 확인하려 멈춰 서지도 않았다.

이 지점을 조금 지나자 측면 통로의 크기와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우리는 높은 산기슭 아래에 벌집처럼 뻗뻗하게 얹힌 구역에 마침내 도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름 모를 그 악취에는 이제 또 다른 냄새가 기묘하게 섞여 있었다. 그 냄새 역시 앞선 것 못지않게 불쾌했다. 그것이 정확히 어떤 성질의 것인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다만 부패하는 유기물의 냄새거나, 혹은 지하 깊은 곳에 서식하는 미지의 균류에서 풍기는 냄새가 아닐까 추측할 뿐이었다.

이윽고 터널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격히 확장되었다. 벽면에 새겨진 조각들만으로는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터널은 점차 넓어지더니, 마치 자연적으로 형성된 듯한 거대하고 높은 타원형 동굴로 이어졌다. 동굴의 바닥은 평탄했으며, 길이는 약 75피트, 너비는 50피트에 달했다. 그곳에는 수많은 거대한 측면 통로들이 뻗어 나가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깊숙이 이어지고 있었다.

동굴의 외형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횃불을 비추어 자세히 살펴보니, 인접한 벌집 모양의 방들 사이를 가로막던 벽들을 인위적으로 허물어 만들어낸 흔적이 역력했다. 벽면은 거칠었고, 높게 솟은 아치형 천장에는 종유석이 뻗뻗하게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단단한 암석 바닥만큼은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었으며, 파편이나 부스러기, 심지어 먼지 한 톨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기이할 만큼 깨끗했다.

우리가 들어온 통로를 제외하면, 그 통로에서 갈라져 나온 거대한 회랑들의 모든 바닥이 이와 같았다. 그 기이한 상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우리는 헛된 의문을 품은 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뿐이었다.

이름 모를 악취를 덧씌운 기묘하고 새로운 악취는 이곳에서 유독 코를 찔렀다. 그 향이 어찌나 강렬한지, 이전의 냄새는 흔적조차 남지 않을 정도였다. 매끄럽게 닦여 번들거리는 바닥을 비롯해, 이 장소 전체에서 풍기는 무언가가 우리를 압도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마주했던 그 어떤 괴물보다도 막연하게, 그러나 훨씬 더 당혹스럽고도 끔찍한 공포로 다가왔다.

눈앞에 나타난 통로의 규칙적인 형태 덕분에, 비슷하게 거대한 동굴 입구들이 즐비한 와중에도 길을 잃을 염려는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다시금 표식을 남기며 나아가기로 했다. 길이 더 복잡해질 경우를 대비해서였다. 먼지 위에 남긴 발자국 따위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전진을 시작하며 우리는 햇불을 비추어 터널 벽면을 훑었다. 그러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경악하며 멈춰 서고 말았다. 통로의 이 구간에 새겨진 조각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옛존재들이 터널을 뚫던 당시, 그들의 조각 기술이 이미 크게 퇴보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실제로 우리 뒤편에 펼쳐진 구간의 아라베스크 문양들도 솜씨가 형편없다는 점을 이미 눈여겨보았던 터였다.

하지만 이제, 동굴 너머 더 깊은 구역에 들어서자 설명할 수 없는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것은 단순히 질적인 차이를 넘어 본질 자체가 달라진 변화였다. 기술의 퇴보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파멸적인 수준에 이르러, 지금까지 관찰해 온 점진적인 쇠퇴의 양상만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새롭고 퇴폐적인 저작은 거칠고 대담했으며, 세부적인 묘사의 섬세함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문양은 이전 구역의 드문드문한 카르투슈(cartouche)와 비슷한 선을 따라 새겨져 있었으나, 과장될 정도로 깊게 파여 있었다. 다만 부조의 높이는 전체 표면의 높이까지 올라오지는 못했다.

덴포스는 이것이 두 번째로 새겨진 조각이라고 생각했다. 마치 이전의 문양을 완전히 지워버린 뒤 그 위에 덧씌운 팔림프세스트(palimpsest)처럼 말이다. 조각의 형태는 순전히 장식적이고 관습적이었다. 투박한 나선과 각진 문양들로 이루어진 이 조각은 옛존재들의 5분법적 수학 전통을 대략적으로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전통

을 계승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전통을 조롱하기 위해 흉내 낸 것처럼 보였다.

연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없었기에, 우리는 대략적인 훑어보기만 마친 채 다시 전진을 재개했다.

펭귄의 모습이나 울음소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하지만 땅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 끝없이 멀리 떨어진 펭귄 무리가 합창을 하고 있는 듯한 막연한 기운이 느껴졌다. 새로이 풍겨오는 정체불명의 악취는 끔찍할 정도로 강렬했다. 그 때문에 이전에 맡았던 이름 모를 향취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앞쪽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증기는 기온 차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거대한 심연 너머로 태양 빛조차 닿지 않는 해안 절벽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매끄럽게 닦인 바닥 앞쪽에 무언가 가로막고 있는 물체들이 보였다. 그것들은 분명 펭귄 따위가 아니었다. 우리는 물체들이 완전히 멈춰 있는지 확인한 뒤, 두 번째 손전등을 켰다.

XI.

그것은 아마도 댄포스가 겪은 일일 것이다. 그가 남극의 그 기괴한 산맥 아래에서 목격한 것은, 인간의 정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그가 나중에 내게 들려준 이야기는,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보다는 그가 느꼈던 공포의 깊이를 증명하는 것에 가까웠다.

그는 그 거대한 도시의 잔해 사이를 헤매며, 그 기이한 형상들이 남긴 흔적들을 마주했다. 그것은 단순한 유적의 발견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 지구가 아직 생명의 온기를 품기 전부터 존재했던,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의 기록을 파헤치는 일이었다. 댄포스는 그곳에서 우리가 아는 생물학적 법칙이 통하지 않는, 기괴하고도 정교한 구조물들을 보았다.

그는 그 거대한 석조 건물들이 내뿜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짓눌렸다. 그것은 단순히 크기가 커서가 아니었다. 그 구조물들 하나하나에 깃든,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들의 의지가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댄포스는 그곳에서 자신이 결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우주의 거대한 질서 속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옛존재들이 남긴, 차갑고도 무심한 역사의 파편이었다. 그 파편들은 댄포스의 정신을 갇아먹었고, 그가 평생을 바쳐온 학문적 신념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는 그곳에서 보았던 것들을 차마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그저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심연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만 덧붙였다.

또 한 번, 더는 나아갈 길을 찾기 힘든 장소에 다다랐다. 이쯤 되면 나도 무뎌졌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어떤 경험과 예감은 너무도 깊은 흉터를 남겨 결코 아물지 않는다. 그저 상처가 예민해질 뿐이라,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때 느꼈던 공포가 고스란히 되살아나고 만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매끄러운 바닥 앞에 놓인 몇 가지 장애물을 목격했다. 덧붙이자면, 그 순간 코끝을 찌르는 기묘한 악취가 갑자기 강해졌다. 그 기이한 냄새는 이미 그곳에 진동하던 불쾌한 악취와 뒤섞여, 먼저 죽어간 자들이 남긴 이름 모를 악취와 함께 우리를 덮쳐왔다.

두 번째 횃불이 비춘 빛은 그 장애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의심의 여지 없이 드러내 주었다. 우리가 감히 그곳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건, 멀리서 보아도 그것들이 이미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불행한 레이크의 캠프에서, 거대한 별 모양의 무덤으로부터 발굴되었던 여섯 구의 표본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발굴해낸 다른 유해들과 마찬가지로 온전치 못한 상태였다. 다만 그것들을 둘러싸고 고여 있는 질은 녹색의 걸쭉한 액체를 보니, 이들이 훼손된 지는 훨씬 얼마 되지 않았음이 분명했다. 남아 있는 것은 고작 네 구뿐이었다. 레이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보다 앞서 이 무리를 이끌었던 개체는 적어도 여덟 구는 되어야 했다. 이토록 처참한 상태로 발견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기에,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대체 어떤 괴물 같은 사투가 벌어졌던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펭귄은 무리로 공격받으면 부리로 사납게 반격한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우리는 저 멀리 훨씬 더 깊은 곳에 펭귄들의 번식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혹시 다른 이들이 그곳을 침범하여 죽음의 추적을 불러일으킨 것일까? 하지만 눈앞의 장애물들을 보아하니 그럴 것 같지는 않았다. 레이크가 해부했던 펭귄의 질긴 조직으로는, 우리가 다가가며

목격하기 시작한 그 처참한 파괴를 설명하기에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가 보았던 거대하고 눈먼 새들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해 보였다.

그렇다면 그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자리를 비운 네 명의 존재가 그 일에 책임이 있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혹시 우리 근처에 숨어 있다가 곧 우리를 위협하려 드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느릿하고도 마지못해 발을 옮기며, 매끄러운 바닥이 깔린 옆 통로들을 불안한 눈초리로 훑었다.

그 갈등의 실체가 무엇이었던, 분명 펭귄들을 평소와 다르게 방황하게 만든 원인이었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새들이 평소에 서식했다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그 사건은 저 멀리, 아득한 심연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번식지의 소음 근처에서 발생했을 것이 분명했다.

우리는 아마도 끔찍한 추격전이 벌어졌을 것이라 짐작했다. 약한 쪽이 숨겨둔 썰매를 향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면, 추격자들이 그들을 몰살하는 식의 싸움 말이다. 검은 심연 속에서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괴물들이 튀어나와 악마 같은 혈투를 벌이는 광경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 혼란 속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앞다투어 도망치는 펭귄 떼가 거대한 구름처럼 몰려나왔을 것이다.

우리는 그 거대하고도 불완전하게 늘어진 장애물들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주저하며 다가갔다고 말하겠다. 차라리 하늘이 도우셨다면, 아예 그곳에 접근조차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름칠이라도

한 듯 매끄러운 바닥과, 자신들이 밀어낸 옛 존재들을 조롱하듯 흉내내는 타락한 벽화가 가득한 그 신성모독적인 터널을 전력 질주하여 도망쳐 나왔어야 했다. 우리가 목격한 것들을 마주하기 전에, 그리고 다시는 평온하게 숨조차 쉬지 못할 만큼 우리의 정신을 태워버린 그 무언가를 보기 전에, 그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어야만 했다.

* * * * *

우리는 햇불을 비추어 바닥에 널브러진 물체들을 향했다. 곧 그 형체들이 왜 온전하지 못한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 것들은 짓이겨지고, 눌리고, 뒤틀리고, 터져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입은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머리가 완전히 잘려 나갔다는 점이었다.

각각의 몸체에서는 촉수가 달린 불가사리 모양의 머리가 제거되어 있었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머리가 떨어진 방식이 일반적인 절단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마치 지옥의 어떤 힘이 무언가를 찢어발기거나 빨아들인 듯한 형상이었다.

그들의 불쾌한 암녹색 혈액이 넓게 퍼지며 커다란 웅덩이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 악취는 더 새롭고 기이한 냄새에 가려져 있었다. 그 냄새는 우리가 지나온 경로 중 어느 곳보다도 이곳에서 더욱 코를 찔렀다.

사방으로 뻗어 나간 장애물들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고 나서야,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두 번째 악취가 어디서 풍겨 나오는지 겨우 알아낼 수 있었다. 그 즉시 댄포스가 비명을 내질렀다. 1억 5천만 년 전 페름기 시대, 옛존재들의 역사를 묘사한 생생한 조각상들을 떠올린 모양

이었다. 덴포스의 신경질적인 비명은 불길한 문양들이 겹겹이 새겨진, 아치형의 고풍스러운 통로를 따라 히스테릭하게 울려 퍼졌다.

나 역시 그의 비명에 맞장구치듯 소리를 지를 뻔했다. 나 또한 그 태고의 조각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름 모를 예술가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채 쓰러져 있는 옛존재들의 형상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나는 전율하며 감탄하고 말았다. 그 조각상들에는 기괴한 점액질이 뒤덮여 있었다. 마치 공포스러운 쇼고스들이 재정복의 대전쟁 중에 옛존재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머리를 끄적하게 빨아먹어 버린 뒤 남겨진 흔적처럼 말이다.

그 조각들은 악명 높았다. 태고의 지나간 세월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그 자체로 악몽과도 같았다. 쇼고스와 그들이 남긴 흔적은 인간의 눈에 담겨서도 안 되며, 그 어떤 존재에 의해서도 묘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에.

《네크로노미콘》을 쓴 광기 어린 저자는, 이 행성에서는 그 어떤 것도 태어난 적이 없으며 오직 약물에 취해 꿈을 꾸는 자들만이 그것들을 상상했을 뿐이라고 초조하게 맹세하려 했다. 모든 형태와 기관, 그리고 생리 작용을 흉내 내고 투영할 수 있는 형체 없는 원형질. 보글보글 거품을 일으키는 세포들이 끈적하게 뭉쳐진 덩어리. 15피트 크기의 고무 같은 구체들은 무한히 유연하고 가소성이 뛰어났다. 암시에 따라 움직이는 노예이자 도시를 건설하는 건축가들인 그것들은, 갈수록 더 침울해졌고, 갈수록 더 지능적으로 변했으며, 갈수록 더 양서류에 가까워졌고, 갈수록 더 교묘하게 모방해 나갔다! 세상에! 대체 어떤 광기

가 그 신성모독적인 옛존재들로 하여금 저런 존재들을 부리고 빚어내게 만들었던 말인가!

이제 댄포스와 나는 깨달았다. 머리 없는 시체들에 두껍게 들러붙은, 갓 묻어나온 듯 번들거리며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검은 점액을 마주한 순간, 우리는 우주적 공포의 심연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그 점액에서는 병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겨우 짐작할 수 있을 법한, 생소하고도 불쾌한 악취가 진동했다. 게다가 그 점액은 저주받은 듯 기괴하게 재조각된 벽면의 매끄러운 부분에 점점이 모여, 이전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행방불명된 네 명의 동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다. 그들이 다시는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 가련한 영혼들 같으니! 결국 그들은 그 종족 중에서도 악한 존재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다른 시대, 다른 차원의 존재였을 뿐이다. 자연이 그들에게 지독한 농담을 던진 것이었다. 인간의 광기나 무관심, 혹은 잔혹함이 앞으로 저 끔찍하게 죽어 있거나 잠들어 있는 극지의 황무지에서 무엇을 파헤쳐 올지 모르나, 자연은 언제나 그 대상에게 똑같은 농담을 던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닥친 비극적인 귀환이었다.

그들은 미개인조차 아니었다. 그들이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미지의 시대,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맞이한 끔찍한 깨어남이라니. 어쩌면 털이 덩수룩하고 미친 듯이 짙어대는 네발짐승들의 습격이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기괴한 뿔개와 장비들을 갖춘, 그만큼이나 광

또한 흰색 유인원들에게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맞서 싸웠던 것일지도 모른다! 가여운 레이크. 가여운 게드니. 그리고 가여운 옛존재들까지!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과학자였다.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우리라고 과연 다르게 행동했을까? 신이시여, 그 지성이라니, 그 끈기라니! 조각된 친족들과 선조들이 자신들보다 아주 조금 덜 믿기 힘든 존재들을 마주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믿을 수 없는 존재들과 정면으로 맞섰던 것이다! 방사대칭 생물, 식물, 괴물, 혹은 별에서 온 자들이었든—그것들이 무엇이었던 간에, 그들은 분명 인간이었다!

* * * * *

그들은 한때 나무고사리 사이를 거닐며 신전이 늘어선 경사면에서 경배를 올렸던 그 얼어붙은 봉우리들을 넘어갔다. 그들은 저주를 품은 채 침묵하는 죽은 도시를 발견했고, 우리처럼 그곳에 새겨진 마지막 기록들을 읽어 내려갔다. 그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설 속의 칠흑 같은 심연 속에 살아있는 동족들이 있을 곳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머리 없는 채 점액에 뒤덮인 형체들, 그리고 그 옆 벽면에 새겨진 혐오스러운 겹문양 조각들과 악마 같은 점액 덩어리들을 바라보며, 댄포스와 나는 그 모든 사실을 동시에 깨달았다. 펭귄들이 서식하는 그 어두운 심연 속, 거대한 석조 수중 도시에는 대체 무엇이 승리하여 살아남아 있는 것인가. 댄포스의 히스테릭한 비명에 응답이라도 하듯, 심연의 끝에서는 불길한 안개가 창백하게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괴물 같은 점액질과 머리 없는 형체가 우리를 말 못 하는 부동의 석상처럼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 당시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후에 이어진 대화들을 통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우리가 그곳에 서 있었던 시간은 영겁처럼 느껴졌으나, 실제로는 십 초나 십오 초를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 혐오스럽고 창백한 안개는 마치 저 멀리서 다가오는 거대한 형체에 밀려오는 듯 앞으로 꾸물꾸물 밀려들었다.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우리가 방금 내린 결론을 송두리째 뒤엎었고, 동시에 우리를 짓누르던 마법 같은 긴장마저 깨뜨려 버렸다. 우리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끼룩거리는 펭귄들이 혼란에 빠져 내지르는 소리를 뒤로한 채, 우리가 왔던 길을 따라 도시를 향해 달렸다. 얼음 속에 잠긴 거석 복도를 지나 거대한 원형 광장으로, 그리고 그 고대의 나선형 경사로를 따라 미친 듯이 내달렸다. 제정신을 되찾을 수 있는 바깥의 공기와 햇빛을 향해, 우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던지듯 위로 솟구쳐 올라갔다.

[삽화: 그리고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소름 끼치는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우리는 제정신을 유지하며 바깥의 공기를 향해 미친 듯이 달아날 수 있었다.----]

내가 암시했듯, 그 새로운 소리는 우리가 내린 결론을 뒤흔들어 놓았다. 불쌍한 레이크가 해부한 결과물을 토대로, 우리는 방금 전 죽었다고 판단한 존재들이 바로 그 소리의 주인공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다. 훗날 댄포스의 말에 따르면, 그는 빙하 지대 위 골목 모퉁이

를 지나던 중 그곳에서 아주 희미하게 울리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했다. 그 소리는 분명 우리가 높은 산의 동굴 주변에서 함께 들었던 바람 소리와도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다.

유치해 보일 위험을 무릅쓰고 한 가지를 더 덧붙이려 한다. 댄포스가 받은 인상이 나의 생각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해석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공통적으로 읽어온 문헌들 덕분이었다. 다만 댄포스는, 에드거 앨런 포가 백 년 전 「아서 고든 핼」을 집필할 당시 우리가 상상조차 못 한 금기된 출처들을 접했음지도 모른다는 기묘한 가설을 암시한 바 있다.

그 환상적인 이야기 속에는 남극과 연관된, 정체는 알 수 없으나 가공할 만하고 거대한 의미를 지닌 단어가 등장한다. 그 불길한 지역의 중심부에서 유령처럼 하얀 거대한 새들이 영원토록 내지르는 비명, 바로 “테켈리-리! 테켈리-리!”라는 외침이다. 밀려오는 흰 안개 너머에서 들려온 그 갑작스러운 소리, 즉 기이할 정도로 넓은 음역대를 넘나들며 들려오던 그 간교하고도 음악적인 휘파람 소리가 바로 그 단어였다고, 나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다.

* * * * *

세 마디의 음이나 음절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비록 옛존재들의 속도라면, 학살에서 살아남아 비명을 듣고 쫓아오는 자가 마음만 먹었을 때 순식간에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막연한 희망이 하나 있었다. 만약 붙잡히더라도 공격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우리와 비슷한 지성을 갖췄음을 증명한다면, 저 존재가 학술적 호기심 때문이라도 우리를 살려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다.

결국, 만약 그 존재가 스스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를 해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이제 와서 숨어 있는 것이 무의미해졌기에, 우리는 손전등을 비추며 뒤를 급히 훑었다. 안개가 걷히고 있는 것이 보였다. 드디어 그 정체 모를 존재의 온전하고 살아있는 실체를 마주하게 되는 것일까? 그때, 그 교활하고도 기분 나쁜 악기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테켈리-리! 테켈리-리!"

우리가 추격자를 점점 따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우리는 저 존재가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모험을 할 수는 없었다. 저 존재는 다른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댄포스의 비명 소리에 반응하여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타임이 너무나도 절묘했기에 의심의 여지조차 없었다.

그 상상조차 하기 어렵고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악몽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었다. 심연을 정복하고, 언덕의 굴속을 다시 파헤치며 꿈틀거리기 위해 육지로 개척자들을 보냈던 그 종족. 점액질의 원생질을 뿜어내는, 본 적 없는 그 불쾌한 거대한 산더미 같은 존재의 행방에 대해서는 그 어떤 추측도 할 수 없었다. 아마도 홀로 살아남은 존재일지도 모를, 몸이 불구가 된 듯한 그 옛존재를 다시 붙잡히는 위

힘과 이름 모를 운명 속에 내버려 두고 떠나야 했던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고통이었다.

다행히도 우리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말려 올라가는 듯한 안개가 다시 짙어지더니, 더욱 빠른 속도로 우리 앞을 덮쳐왔다. 뒤쳐진 펭귄들은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고 있었다. 아까 그들을 지나칠 때만 해도 그리 당황한 기색이 아니었기에, 지금 보여주는 저 공포 섞인 반응은 실로 놀라울 정도였다.

그 불길하고도 멀리 울려 퍼지는 휘파람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다. "테켈리-리! 테켈리-리!" 우리가 틀렸다. 그 존재는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었다. 그저 쓰러진 동족들의 사체와 그 위에 새겨진 지옥 같은 점액질의 비문을 마주하고 잠시 멈춰 섰을 뿐이었다. 그 악마 같은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끝내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레이크의 캠프에서 발견된 매장지들은, 그 존재들이 죽은 자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무모하게 휘둘러던 횃불이 앞을 비추자, 여러 갈래의 길이 교차하는 거대한 공동이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는 그 기괴한 조각상들을 뒤로하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것들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만큼 희미했지만, 마치 살아있는 듯 불길한 흔적을 남기며 우리를 압박해 왔다.

동굴이 나타나자 또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거대한 통로들이 어지럽게 얹힌 이 미로 같은 공간을 이용한다면, 우리를 쫓아오는 추적자를 따돌릴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이었다. 탁 트인 공간에는 눈먼 알비

노 펭귄 몇 마리가 있었는데, 놈들이 다가오는 존재를 두려워하는 기색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해 보였다.

그 시점에서 우리가 이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빛만 남기고 햇불을 낮춘 채 앞만 비추며 나아간다면, 안개 속에서 거대한 새들이 겁에 질려 퍼덕거리는 소리가 우리의 발소리를 죽여줄지도 모른다. 그 소음이 우리의 실제 경로를 가려주고, 어쩌면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유인하는 잘못된 길잡이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소용돌이치며 뒤섞이는 안개 속에서, 이 지점 너머로 펼쳐진 중앙 통로의 바닥은 온통 쓰레기투성이에 윤기조차 없었다. 기괴할 정도로 매끄럽게 닦여 있던 다른 굴들과는 확연히 달랐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한 특징이라 할 수도 없었다. 비상시에는 빛 없이도 어느 정도,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옛 존재들의 특수한 감각을 고려하더라도, 이 바닥의 상태를 두고 무언가 대단한 점을 추측하기란 어려웠다.

사실 우리는 서두르다가 길을 잃을까 봐 내심 걱정하고 있었다. 미지의 산기슭에 얹힌 미로 같은 구멍들 사이에서 길을 잃는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도시를 향해 곧장 나아가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우리가 살아남아 그곳을 빠져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괴물이 잘못된 통로로 들어섰고 우리가 천운으로 올바른 통로를 찾아냈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 펭귄들만으로는 우리를 구할 수 없었겠지만, 안개와 함께 작용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구한 듯하다. 휘몰아치는 증기

가 끊임없이 움직이며 사라질 듯 위태로웠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토록 질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자비로운 운명 덕분이었다.

실제로 동굴로 들어서기 직전, 구역질 나는 형상으로 뒤틀린 터널을
빠져나오기 바로 그 찰나에 안개가 잠시 걷혔다. 햇불을 끄고 추격을
피하려 펭귄들 사이로 몸을 숨기기 전, 우리는 절박한 공포에 질려 마
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다가오는 존재를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 동안만 목격할 수 있었다. 만약 우리를 가려주었던 운명이
자비로운 것이었다면, 그 존재를 어렵듯이 보게 만든 운명은 그와 정반
대로 잔혹한 것이었다. 그 짧은 환영이 남긴 공포가, 그 이후로 지금까
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시 뒤를 돌아본 정확한 동기는, 아마도 쫓기는 자가 추격
자의 정체와 행방을 가늠하려는 태고의 본능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혹은 감각 중 하나가 던진 무의식적인 질문에 답하려는 자동적인 시도
였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느라 모든 감각을 탈출하는 데만 집중하
고 있었다. 세세한 부분까지 관찰하고 분석할 여유 따위는 전혀 없었
다. 그럼에도 우리 뇌의 잠재된 세포들은 코끝을 스치는 그 기묘한 냄
새에 분명 의구심을 품었을 것이다. 나중에야 우리는 그 정체를 깨달았
다. 머리 없는 장애물들을 뒤덮은 그 악취 나는 점액질로부터 멀어지
데, 정작 우리를 뒤쫓는 존재가 다가오면서 풍겨와야 할 냄새는 느껴지

지 않았던 것이다. 논리적으로라면 마땅히 뒤섞여야 할 악취의 교차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쓰러져 있는 존재들 근처에는 최근 들어 설명할 수 없게 된 새로운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쯤 되면 그 냄새는 다른 존재들에게서 풍겨 나오는 이름 모를 악취에 밀려나야 마땅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이 나타난, 견디기 힘든 냄새는 희석되기는커녕 더욱 짙어졌다. 그 독한 악취는 매 초마다 더욱 집요하게 코를 찔러왔다.

우리는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아마도 한 명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다른 이가 무의식적으로 따라 했던 모양이다. 뒤를 돌아봄과 동시에, 우리는 찰나의 순간 열린 안개 속을 향해 손전등의 불빛을 최대한으로 비추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확인하고야 말겠다는 원초적인 불안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불빛을 낮춘 채 앞쪽 미로 중심부에 널려 있는 펭귄들 사이로 몸을 숨기기 전, 눈앞의 존재를 눈부시게 만들어 혼란을 주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였을지도 모른다.

불행한 행위였다! 뒤를 돌아본 대가로 오르페우스나 룯의 아내가 치른 고통보다 더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충격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울려 퍼지는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테켈리-리! 테켈리-리!”

덴포스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남은 여정 중 내가 기억하는 첫 장면은, 그가 몽롱한 정신으로 히스테릭한 주문을 읊조리던 모습

이다. 인류 중에서 오직 나만이 그 주문에서 광기 어린 무의미함만을 읽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소리는 펭귄들의 울음소리 사이로 가상(假聲)의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눈앞의 거대한 공동(空洞)을 타고 울려 퍼졌으며, 다행히도 이미 비어버린 뒤쪽의 공동을 따라서도 울려 퍼졌다. 그가 주문을 곧바로 외우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고, 눈먼 채로 질주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의 신경 반응이 아주 조금이라도 달랐더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을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진다.

"사우스 스테이션, 워싱턴, 파크 스트리트, 켄달, 센트럴, 하버드……."

불쌍한 그 친구는 보스턴과 케임브리지를 잇는 지하철역 이름을 마치 주문처럼 읊조리고 있었다. 수천 마일 떨어진 뉴잉글랜드의 평온한 고향 땅을 파고 지나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역 이름들이었다. 하지만 나에게 그 주문은 결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도, 그렇다고 고향의 정취를 불러일으키지도 않았다. 그저 공포만이 밀려올 뿐이었다. 그가 왜 그런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지, 그 기괴하고도 불경한 연관성을 나는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개가 충분히 걷힌다면,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곳에 끔찍하고 믿기 힘든 형체가 움직이고 있으리라 예상했다. 물론 우리는 그 형체가 어떤 모습일지 나름대로 분명하게 그려두고 있었다. 하지만 안개가 너무나도 악의적으로 걷히며 드러난 실체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기괴하고 혐오

스러웠다. 그 형체는 환상 소설가들이 말하는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될 무언가'를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모습으로 구현해 놓은 듯했다. 굳이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에 비유하자면, 승강장에서 바라보는 거대하고 돌진하는 지하철 열차와 비슷할 것이다. 끝을 알 수 없는 지하 깊은 곳에서 거대한 검은 앞부분이 압도적인 위용을 드러내며 다가오고, 기괴한 빛들이 별자리처럼 박힌 채 거대한 터널을 가득 채우며 밀려드는 그런 모습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역 승강장에 서 있었던 게 아니었다. 우리는 선로 위에 있었다. 악몽 같은 형체의 검은 유채색 기둥이 15피트 너비의 통로를 따라 끈적하게 밀려오고 있었다. 그 기둥은 악취를 풍기며 불길한 속도로 전진했고, 그 앞에는 창백한 심연의 증기가 소용돌이치며 점점 더 두껍게 뭉쳐 나갔다.

그것은 끔찍하고도 형언할 수 없는 존재였다. 지하철 열차보다도 거대한 그 형체는 원형질 거품들이 무질서하게 뒤엉킨 덩어리였다. 그것은 희미한 빛을 스스로 내뿜고 있었는데, 우리를 향해 돌진하며 압박해 오는 그 거대한 전면부에는 수만 개의 눈이 녹색 빛의 농양처럼 생겨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것은 광분한 펭귄들을 짓이기며 다가왔고, 그것과 그 동족들이 악의적으로 쓸어버려 매끄럽게 닦아놓은 번들거리는 바닥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그 기괴하고도 조롱 섞인 외침은 여전히 들려왔다. “테켈리-리! 테켈리-리!” 마침내 우리는 깨달았다. 저 악마 같은 쇼고스들에게도 목소리는 없다는 사실을. 비록 옛존재들이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가변적

인 기관들을 만들어 주었을지언정, 점 모양의 무리들이 표현하는 방식 외에는 그 어떤 언어도 갖지 못했다. 따라서 쇼고스들이 내뿜는 소리란, 오직 이미 사라져 버린 옛 주인들의 억양을 흉내 낸 것에 불과했다.

12.

덴포스와 나에게는 거대한 조각물 같은 반구가 눈앞에 나타나던 순간과, 죽은 도시의 거대한 방과 복도 사이로 우리가 지나온 길을 더듬으며 빠져나오던 기억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는 그저 꿈의 파편일 뿐이다. 당시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졌는지, 구체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혹은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 매몰된 시대로부터 우리가 떠난 것은 어딘가 묘하게 적절한 순리처럼 느껴졌다. 숨을 헐떡이며 60피트 높이의 원통형 석조 구조물을 따라 올라가던 중, 우리는 곁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조각상들을 목격했다. 그것은 멸망한 종족이 초기 시절에 남긴, 부식되지 않은 정교한 기술로 빚어낸 영웅들의 행렬이었다. 마치 5천만 년 전, 옛존재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작별 인사와도 같았다.

마침내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간 우리는 무너져 내린 거대한 석조 블록 더미 위에 서게 되었다. 서쪽으로는 곡선형 벽면을 가진 높은 석조 구조물이 솟아 있었고, 동쪽으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허물어진 건물들 너머로 거대한 산맥의 음산한 봉우리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머리 위 하늘은 희박한 얼음 증기가 소용돌이치며 오팔색으로 번뜩이는 거대한 덩어리 같았고, 살을 파고드는 추위는 우리의 내장까지 움켜쥐는 듯했다.

채 15분도 지나지 않아 우리는 산기슭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경사로를 찾아냈다. 아마도 아주 오래전 형성된 테라스였을 그 길을 따라 우리는 내려왔다. 눈앞에 솟아오른 경사면 위로 듬성듬성 흩어진 폐허들 사이로, 우리의 거대한 비행기의 어두운 형체가 보였다.

목표 지점을 향해 언덕을 절반쯤 올랐을 때,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멈춰 섰다. 그리고 발아래 펼쳐진 기괴한 돌 형상들의 뒤엉킴을 다시금 내려다보았다. 믿기지 않을 만큼 비현실적인 그 형상들은 미지의 서쪽 하늘을 배경으로 신비로운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순간, 저 멀리 하늘에서 아침의 뿌연 안개가 걷힌 것이 보였다. 요동치던 얼음 증기들은 천정까지 치솟아 있었다. 그 증기들은 마치 기괴한 문양을 완성하기 직전의 형상처럼 보였으나, 결코 명확하거나 확정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한 채 비웃듯 머뭇거리고 있었다.

기괴한 도시 너머, 저 멀리 하얀 지평선 끝에는 보랏빛 봉우리들이 요정의 형상처럼 희미하게 늘어서 있었다. 바늘처럼 뾰족한 봉우리들은 서쪽 하늘의 유혹적인 장밋빛을 배경 삼아, 마치 꿈속의 풍경처럼 아스라이 솟아 있었다. 고대의 고원은 이 일렁이는 지평선을 향해 완만하게 경사져 있었고, 그 위를 가로지르는 옛 강줄기는 움푹 파인 자국을 따라 불규칙한 그림자 띠가 되어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잠시 그 풍경이 뿔어내는 비현실적이고 우주적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숨을 죽였다. 그러나 곧 막연한 공포가 우리 영혼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저 멀리 보이는 보랏빛 선은 금지된 땅의 그 끔찍한 산맥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들이 모인 곳이자, 지구의 모든 악이 집결된 중심지였다.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공포와 시생대(始生代)의 비밀을 품고 있는 곳이었다. 그 의미를 감히 정의하기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곳을 피하면서도 동시에 경외하며 기도했다. 지구상의 그 어떤 생명체도 발을 들인 적 없으나, 극야의 평원 위로 기이한 빛줄기를 쏘아 올리는 불길한 번개만이 그곳을 끊임없이 찾아들었다.

그 선사 시대 도시의 조각된 지도와 그림들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면, 이 기괴한 보랏빛 산맥은 적어도 300마일은 떨어져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 희미하고 요정 같은 산맥의 정수(essence)는 저 멀리 눈 덮인 지평선 위로 여전히 선명하게 솟아 있었다. 마치 낮선 하늘로 떠오르기 직전인, 거대하고 이질적인 행성의 톱날 같은 가장자리처럼 말이다.

그 형상들을 바라보며,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옛 기억을 떠올렸다. 저주받은 경사면을 따라 거대한 옛 강물이 도시로 쓸어 내려온, 조각된 흔적들을 말이다. 그리고 그 형상들을 그토록 조심스럽게 새겨 넣은 옛 존재들의 공포 속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이성과 얼마나 많은 광기가 깃들어 있었을지 나는 의문이 들었다.

그들의 북쪽 끝자락이 퀸 메리 랜드의 해안 근처에 닿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바로 그 순간에도 더글러스 모슨 경의 탐사대가 불과 천 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작업 중이었을 터였다. 나는 모슨 경과 그의 대원들이 해안 산맥 너머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결코 목격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당시 내가 이토록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데에는 이런 생각들도 한몫했다. 댄포스의 상태는 나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였다.

하지만 거대한 별 모양의 유적을 지나 우리 비행기에 도달하기도 전에, 우리의 공포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었다. 바로 눈앞에 놓인, 작지만 충분히 거대한 산맥을 다시 넘어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짓눌렀다.

이 산기슭으로부터 검게 변하고 폐허처럼 부서진 사면이 동쪽을 향해 황량하고도 기괴하게 솟아 있었다. 그 모습은 니콜라이 레리히가 그린 기묘한 아시아풍 회화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산 내부를 가득 채운 저주스러운 벌집 모양의 구멍들과, 그 악취 나는 몸뚱이를 꿈틀거리며 가장 높은 첨봉의 빈 구멍까지 밀어 넣었을지도 모를 끔찍하고 형체 없는 존재들을 생각하면 공포가 밀려왔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치 사악한 악기 소리처럼 넓은 음역대를 넘나들며 울려 퍼지는 저 하늘을 향한 동굴 입구들을, 우리는 다시는 배를 타고 지나갈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몇몇 봉우리 주변에는 현지의 안개가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화산 활동에 대해 초기에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레이크처럼 우

리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 우리는 방금 탈출해 나온 그 기괴한 안개를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그리고 그 안개가 뿔어져 나온 곳, 모든 증기가 흘러나오는 그 신성 모독적이고 공포를 키워내는 심연을 떠올리며 전율했다.

* * * * *

비행기 상태는 양호했다. 우리는 두툼한 비행용 모피를 서투른 손길로 끌어당겨 몸에 돌렸다. 댄포스는 별다른 문제 없이 엔진을 걸었고, 우리는 그 악몽 같은 도시 위로 아주 매끄럽게 이륙했다.

상공 아주 높은 곳에서는 엄청난 난기류가 몰아치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천정 부근의 얼음 먼지 구름이 기괴하고 환상적인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개를 넘기 위해 필요한 고도인 24,000피트 지점에서는 항해를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돌출된 봉우리들에 가까워지자 바람이 내는 기괴한 피리 소리가 다시금 선명하게 들려왔다. 조종간을 잡은 댄포스의 손이 떨리는 것이 내 눈에도 보였다. 비록 나 자신도 아마추어에 불과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 험난한 봉우리 사이를 통과하는 위험한 항로를 운항하는 데 있어 내가 그보다 나은 항해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자리를 바꿔 그의 임무를 넘겨받으려 움직이자, 그는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평정심을 붙들었다. 그리고 협곡의 벽 사이로 보이는, 붉게 물든 먼 하늘의 한 구역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하지만 조종 임무에서 벗어나 위험할 정도로 신경이 곤두선 댄포스는 가만히 있지 못했다. 그는 몸을 뒤척이며 안절부절못했다. 멀어져 가는 그 끔찍한 도시를 뒤돌아보고, 동굴이 숭숭 뚫린 채 정육면체 모양의 따개비가 달라붙은 봉우리들을 앞을 향해 바라보았다. 또한 눈 덮인 산기슭이 성벽처럼 늘어선 황량한 바다를 옆으로 훑었고, 기괴한 구름이 소용돌이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때였다. 내가 협곡 사이를 안전하게 빠져나가려 애쓰던 바로 그 순간, 그의 광기 어린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 비명은 나의 평정심을 산산조각 냈고, 나는 순간적으로 조종간을 잡은 손에 힘을 잃고 속수무책으로 허우적거렸다. 자칫하면 재앙을 맞이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1초 뒤, 나는 간신히 정신을 다잡았고 우리는 무사히 협곡을 건넜다. 그럼에도 나는 두렵다. 댄포스가 예전의 그 모습으로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사실이.

나는 앞서 댄포스가 그토록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게 만든 마지막 공포가 무엇인지 내게 말하기를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슬프게도 확신 하건대, 그 공포가 바로 지금 그의 정신이 무너져 내린 결정적인 원인이다. 산맥의 안전한 구역에 들어서서 캠프를 향해 천천히 하강할 때, 몰아치는 바람 소리와 엔진의 웅웅거림 사이로 우리가 소리 높여 주고 받은 대화가 몇 마디 있었다. 하지만 그 대화는 대부분 악몽 같은 도시를 떠나기로 준비하며 서로 나누었던 비밀 유지의 약속에 관한 것이었다.

* * * * *

덴포스가 지금까지 암시해 온 내용은 오직 하나, 마지막에 마주한 공포는 환상이었다는 사실뿐이다. 그는 단언한다. 그 공포는 우리가 가로질러 온,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증기가 자욱하며 벌레가 파먹은 듯 구멍이 숭숭 뚫린 저 광기의 산맥 속 입방체나 동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고 말이다. 대신 그는 서쪽 천정에서 소용돌이치는 구름 사이로 기괴하고도 악마적인 광경을 단 한 번 목격했다고 했다. 그것은 옛존재들조차 피하고 두려워했던, 서쪽의 또 다른 보랏빛 산맥 너머에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찰나의 목격이었다.

그는 아주 드문 경우에만, 앞뒤가 맞지 않는 무책임한 말들을 중얼거리곤 했다. '검은 구덩이', '조각된 가장자리', '원시 쇼고스', '5차원의 창문 없는 입체물', '이름 없는 원기둥들', '옛 등대', '요그 소토스', '태초의 하얀 젤리', '우주에서 온 색채', '날개들', '어둠 속의 눈들', '달의 사다리', 그리고 '태초의 것, 영원한 것, 죽지 않는 것'과 같은 기괴한 개념들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제정신일 때의 그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하며, 그저 젊은 시절에 읽었던 기묘하고도 섬뜩한 책들 때문이라고 치부해 버렸다. 사실 덴포스는 대학 도서관에 자물쇠로 잠긴 채 보관된, 벌레가 파먹은 듯 너덜너덜한 《네크로노미콘》을 끝까지 다 읽어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산맥을 넘어가며 마주한 높은 하늘은 분명 안개로 뒤덮여 어지럽게 일렁이고 있었다. 천정(天頂)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그곳을 휘감은 얼음 먼지 소용돌이가 얼마나 기괴한 형상을 띠었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요동치는 구름층이 먼 곳의 풍경을 때로는 선명하게 투영하고, 때로는 굴절시키며, 때로는 거대하게 확대해 보여준다는 사실

을 안다면, 상상력만으로도 나머지 광경을 충분히 그려낼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댄포스가 그 구체적인 공포들을 입에 올린 것은, 그가 과거에 읽었던 기록들을 기억 속에서 다시금 끄집어낸 뒤였다. 찰나의 시선만으로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목격했을 리는 없었다.

당시 그의 비명은 너무나도 명백한 근원을 가진, 단 하나의 미친 듯한 단어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했다.

“테켈리-리! 테켈리-리!”

끝